

# 濟州地域 觀光所得 殘留效果 提高方案

— 第1次產業과의 連繫性 강화 및  
觀光費用分析을 중심으로 —

金 泰 保\*  
許 香 珍\*\*

## 目 次

- I. 序 / 66
  - 1. 研究目的
  - 2. 研究範圍 및 方法
- II. 觀光產業과 第1次產業과의 連繫關係에 대한 理論的 接近 / 67
  - 1. 第1次產業의 定義와 分類
  - 2. 地緣產業의 分類와 特性
  - 3. 觀光產業과 第1次產業의 連繫關係
- III. 濟州道 觀光產業과 第1次產業의 連繫關係에 관한 實證分析 / 74
  - 1. 濟州地域經濟의 產業構造의 特性
  - 2. 濟州道 第1次產業의 實態
  - 3. 濟州道 觀光產業과 第1次產業과의 連繫關係 分析
- IV. 濟州道 觀光動向 및 觀光費用分析 / 94
  - 1. 濟州道 觀光實態의 概觀
  - 2. 濟州道 來道觀光客의 動向分析 및 觀光費用分析
  - 3. 濟州道 周邊海外市場의 觀光動向 分析
- V. 濟州地域 觀光所得 殘留效果 提高方案 / 183
  - 1. 觀光供給體系의 多樣化와 觀光受容態勢의 確立
  - 2. 觀光產業과 第1次產業과의 連繫性 強化方案
- VI. 結 / 196

\* 經商大學 經濟學科 副教授

\*\* 經商大學 觀光經營學科 助教授

# I. 序

## 1. 研究目的

濟州道の開發은 1960년대초 이후 觀光開發에 關心을 둔 이래 1970년대에 들어와 國土綜合開發計劃上的 1개 中圈이 되었고 1973년부터 1982년까지의 計劃期間으로 된 濟州道 觀光綜合開發計劃이 착수되면서 濟州道開發의 중요한 戰略手段이 되었다. 1985년에 확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特定地域 濟州道綜合開發計劃(1985~1991)에서도 國際觀光 中心에서 탈피하여 우선 國民觀光地의 構成에 주력하고 점진적으로 國際觀光地로의 발전을 유도하는 觀光開發을 根幹으로 한 地域開發의 촉진에 두고 있다.

觀光開發은 地域經濟의 측면에서 觀光産業의 振興을 통해 住民所得의 創出效果, 雇傭效果, 地域産業聯關波及效果, 地方財政收入增大效果 등에 의해 地域經濟의 성장에 상당히 기여하고 直接·間接으로 地域住民所得增大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觀光産業의 성장은 觀光産業 自體의 生産, 雇傭, 所得의 증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觀光産業과 關聯이 있는 産業의 生産, 雇傭, 所得에도 영향을 미침으로 地域經濟에 乘數的인 波及效果를 가져온다. 觀光産業과 餘他産業과의 關聯을 중심으로 觀光支出의 증대가 觀光産業 뿐만 아니라 他産業의 生産, 雇傭, 所得增大에 미치는 波及效果에 대해서는 産業聯關分析을 통해 이미 研究分析된 바 있다.

따라서 本研究에서는 濟州道 觀光開發은 地域開發次元에서 道民所得을 증대시킬 수 있는 方向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前提에서 濟州道 第1次産業과 觀光産業과의 連繫關係를 分析하여 觀光産業振興을 통한 道民所得增大에 기여할 수 있도록 域內 殘留所得 效果를 提高시킬 수 있는 方案을 제시하는 데 있다.

## 2. 研究의 範圍 및 方法

本研究는 濟州道 觀光産業과 第1次産業과는 連繫關係가 크다는 前提下에서 濟州道 1次産業과 觀光産業과의 連繫關係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觀光産業과 第1次産業과의 連繫關係 強化를 통한 濟州地域 觀光所得 殘留效果를 提高시킬 수 있는 方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研究를 위해 道民所得增大이라는 차원에서 觀光産業과 農林漁業과의 連繫性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濟州道가 當面하고 있는 觀光의 諸問題點, 觀光費用, 觀光産業과 第1次産業과의 連繫關係에 대한 實證分析을 통해 濟州道 觀光의 長期發展과 관련하여 濟州地域 觀光所得 殘留效果의 提高方案을 모색한다.

本 研究에 사용된 자료는 濟州道 觀光産業과 1次産業과 관련된 各種의 國內外 文獻, 統計 資料 등과 觀光客과 觀光案内員에 대한 設問調査 등이며, 觀光開發實態에 대한 現地調査 및 關係專門家의 意見聽取에 의하여 보완하였다.

## Ⅱ. 觀光産業과 第1次産業과의 連繫關係에 대한 理論的 接近

### 1. 第1次産業의 定義와 分類

産業은 同種 또는 類似製品을 생산하는 集團을 의미한다. 실제에 있어서는 生産물의 類似性 및 生産工程의 類似性에 비추어 産業이 분류된다. UN에서의 「國際標準産業分類 (ISIC)」에서 보면 經濟에 있어서 全活動을 크게 ① 農業·林業·狩獵業·漁業, ② 鑛業, ③ 製造業, ④ 建設業, ⑤ 電氣·가스·水道·衛生서비스, ⑥ 商業, ⑦ 運輸·倉庫·通信業, ⑧ 서어비스, ⑨ 其他로 분류하고<sup>1)</sup> 다시 이들을 각각 細分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經濟企劃院에서 ISIC를 우리나라 産業實情에 맞게 조정한 韓國標準産業分類 (KSIC) 方法에 따라 全産業을 9개의 大分類産業, 36개의 中分類産業, 90개의 小分類産業, 294개의 細分類産業, 1,048개의 細細分類産業 등으로 분류하여 사용하고 있다.

C.G.Clark는 産業構造를 經濟發展과의 關係에서 實證分析을 위해 第1次産業·第2次産業·第3次産業으로 분류하였는데 제1차산업에는 農業·牧畜業·水産業·林業·수렵업이 포함되고, 제2차산업에는 鑛業, 製造業, 建設業, 가스·電氣·수도업이 포함되고, 제3차산업에는 그밖의 일체의 非物質的 生産活動이 포함되며 그 주요한 것은 運輸·通信·商業·金融業·公務·家事서어비스, 그밖의 서어비스라 하였다. 다시 말하여 제1차산업은 농업을 중심으로 한 採取産業이고 제2차산업은 제조공업을 중심으로 한 物質의 加工業이고, 제3차산업은 일체의 서어비스산업이라 할 수 있는데 이 分類는 반드시 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sup>2)</sup>

#### 1) 農 業

농업부문은 농경지에서 穀物, 野菜 등 植物栽培活動과 家畜 또는 動物을 飼育 增殖하여 생

1) 「經濟學大辭典」, 章文閣, p.819.

2) 上揭書, p.820.

활에 필요한 產物을 생산하는 畜産活動 및 농업과 관련된 서어비스활동, 즉 농업서어비스를 포함한다.<sup>3)</sup>

농업생산에서 大宗을 이루는 栽培作物은 穀物類, 野菜 및 과일類, 工藝作物의 3개 部門으로 大別된다.<sup>4)</sup> 곡물류로는 米穀, 麥類, 豆類, 雜穀 등이 있으며, 야채 및 과일류로는 야채 및 과일과 감자, 고구마 등의 薯類가 포함된다. 工藝作物로는 纖維作物, 기름作物, 嗜好作物, 藥用作物, 花卉作物 등이 있는데 여기서 화분작물은 觀賞을 목적으로 가꾸는 草類, 花木類, 仙人掌類 등을 말한다.

畜産은 가축의 사육과 증식과정에서 생산되는 牛乳, 달걀, 벌꿀, 羊毛, 兔毛와 각종 副産物을 포함하고 農業서어비스는 농업부문에 서어비스를 제공하는 부문중 농업의 고유한 서어비스인 農耕, 水利, 農協指導, 造景, 家禽孵化 등을 포괄한다.

## 2) 林業

林業은 일반적으로 中間投入比가 낮은 原始産業으로 育林과 林産物의 2개 부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것은 다시 育林, 用材, 木炭 및 長斫, 食用林産物, 기타 林産物의 5개 基本部門으로 분류된다.<sup>5)</sup> 育林은 種苗生産과 一般造林을 의미하며 用材는 伐木活動, 木炭 및 長斫은 木炭, 長斫 등의 燃料生産과 枝葉의 채취활동, 食用林産物은 山菜, 種實類, 버섯類, 竹筍 등의 生産活動, 其他林産物은 竹林, 綠肥, 퇴비의 원료, 山林飼料, 松脂, 탄닌의 生産活動을 각각 의미한다.

## 3) 漁業

漁業은 크게 水産漁獲과 水産養殖으로 구분할 수 있다. 水産漁獲은 沿岸, 近海, 遠洋 및 內水面에 自然棲息하는 魚類, 貝類, 海藻類 등 수산물을 획득하는 生産활동으로서 遠洋漁獲, 沿近海漁獲, 捕鯨 및 內水面漁獲 등 4개의 基本部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水産養殖은 海面이나 內水面에서 漁·貝類 및 軟體動物과 海藻類 등을 양식하는 生産활동을 말하며 淺海養殖과 內水面養殖으로 분류된다<sup>6)</sup>(表II-1).

3) 國土開發研究院, 「地域産業聯關表 作成 報告」, 1983, p.21.

4) 韓國銀行, 「1980년 産業聯關表 作成 報告」, 1982, p.24.

5) 國土開發研究院, 「前掲書」, p.23.

6) 韓國銀行, 「前掲書」, p.27.

〈表 II - 1〉 第1次産業의 分類表

1. 곡물류	1. 미 곡 2. 맥 류  3. 기타 곡물	1. 미 곡 2. 보 리 3. 밀 4. 기타 맥류 5. 두 류 6. 잡 곡
2. 야채 및 과일류	4. 서 류 5. 야 채 6. 과 일	7. 서 류 8. 야 채 9. 과 일
3. 공예작물	7. 섬유 및 유작물  8. 기호작물 9. 기타 공예작물	10. 섬유작물 11. 기름작물 12. 기호작물 13. 약용작물 14. 화분작물 15. 기타 특용작물
4. 축산, 양잠 및 농업서비스	10. 축 산   11. 양 잠 12. 농업서비스	16. 젖 소 17. 한 우 18. 가 금 19. 양 돈 20. 양 봉 21. 기타 축산 22. 양 잠 23. 농업서비스
5. 임산물	13. 육 립 14. 임산물	24. 육 립 25. 용 재 26. 목 탄 27. 식용임산물 28. 기타 임산물
6. 수산물	15. 수산어획   16. 수산양식	29. 원양어획 30. 연근해어획 31. 포 경 32. 내수면어획 33. 천해양식 34. 내수면양식

자료 : 1980 년 산업연관표 작성보고, 한국은행, 1980.

## 2. 地緣產業의 分類와 特性

地緣產業은 地域經濟內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크다. 地緣產業이란 주로 地域의 資源과 勞動力을 사용하여 地域的 獨立性을 가진 特産品을 제공하는 産業으로 供給面에서는 地域性을 가지고, 市場面에서는 脫地域化되어 있고, 製品은 消費財란 定義를 내릴 수 있다.<sup>7)</sup> 日本에서 地場産業, 地域産業이란 명칭으로도 사용되는데 廣義의 概念으로 파악하여 그것이 傳統的인 産業이든 外來의인 産業이든지를 막론하고 그 地域에 뿌리를 내려 안정된 발전을 추구하고, 그리하여 地域發展에 공헌하는 産業이라면 모두 地緣産業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地緣產業은 그 特徵<sup>8)</sup>으로서 첫째, 特定の 地域에서 生成된 時期가 오래되고 傳統있는 産地가 형성되어 있다. 地緣産業은 地域內에 산출되는 資源과 材料를 主原料로 하고, 地域內의 기후, 風土 등 環境을 이용하여 축적된 勞動力, 기술 등 賦存經營資源을 活用하여 생산한다. 때로는 他地域으로부터 原材料를 구입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地域內에서 蓄積·賦存된 經營資源에 의하여 加工生産되므로 歷史的인 傳統性이 加味된다.

둘째, 이들 特定地域에 同一業種의 中小零細企業이 地域的 企業集團을 이루거나 同一産物의 産地를 형성·立地하고 있다.

세째, 當該地域의 獨自的인 特産品을 생산한다. 地緣産業은 完製品의 정도가 높은 地域特産品을 생산하는데 이들 商品들은 經濟的 價値와는 별개로 地域의 矜持 내지 獨自性을含蓄하게 되므로 消費財로서 地域的 獨自性을 창출하게 된다.

네째, 生産·販賣構造가 이른바 社會的 分業體制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地域內 分業體系의 形成으로 地緣産業은 生産과 販賣의 過程 및 構造가 社會的 分業體制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다섯째, 地緣産業의 제품은 全國이나 海外에 판매하는 産業이라는 需要의 脫地域性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地緣産業의 제품은 地域內의 수요에도 충족되지만 地域外의 수요를 지향하여 基盤産業으로서의 輸出機能까지를 담당한다.

이상과 같은 地緣産業의 特性을 간추려 보면 ① 傳統性, ② 産地形成, ③ 社會的 分業體制, ④ 特産品 生産, ⑤ 需要의 脫地域性으로 요약될 수 있다.

地緣産業의 類型은 몇 가지 基準에 의하여 분류하여 볼 수 있는데 立地, 産地形成 및 技

7) 清成忠男, "地場産業の現代的意義", 「地域開發」, 1980年 7月號, pp.1~3.

8) 山崎充, 「變わる地場産業」,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1974, p.47.

術的形態 등에 의해 분류된다.<sup>9)</sup> 첫째 立地에 의한 類型化는 大都市型 地緣産業, 地方都市 및 農村型 地緣産業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産地의 形成形態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傳統的 在來型, 在來化된 外來型, 新興型 등으로 구분되는데 傳統的 在來型은 오랜 시간에 걸쳐 존속되어온 地緣産業이며, 在來化된 外來型은 外國에서 도입된 外來産業이면서 在來化되어 우리나라의 經濟的 風土에 정착된 유형이다. 變化된 在來型은 원래 傳統的 在來型이면서 제품과 생산기술이 서서히 변화해서 벌써 在來産業을 탈피한 경우의 類型이고 新興型은 최근에 새로이 發生된 産地를 형성하고 있는 類型의 地緣産業이다. 끝으로 技術的 形態에 따라 手工業的 技術에 의존하는 경우와 機械的 導入 등에 의한 경우로 분류되기도 한다.

### 3. 觀光産業과 第1次産業의 連繫關係

第1次産業을 觀光産業과의 連繫關係下에서 地緣産業으로 육성할 때 觀光의 측면에서는 地緣産業 그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觀光對象이 되므로 觀光環境의 多樣化를 期할 수 있으며, 産業의 측면에서는 供給에서의 地域性, 市場需要面에서의 脫地域性을 가능케 함으로써 地域 經濟效果가 크게 나타난다. 供給面에서의 地域性이란 이들 地緣産業이 바로 그 地域內의 資源과 勞動力, 傳統的 技術 등의 投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原材料의 경우 地域的 生産品 및 資源을 주축으로 할때 이를 이용하는 地緣産業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수요가 증대되면 생산이 가속화되어 原材料 生產業체 의 성장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각종 소득이 창출되어 상승적인 波及效果를 기대할 수 있다. 勞動力의 경우도 지역산업의 성장발전은 더욱 많은 인력이 요구되고 이들 勞働者의 소득은 地域經濟 活性化에 기여하게 된다. 즉 地域內에서의 雇傭과 就業機會의 創出이라는 點에서 地緣産業의 役割이 크다.

따라서 第1次産業을 觀光産業과 連繫하여 地緣産業으로 육성할 때 첫째 地域의 經濟基盤을 強化시킴으로써 地域住民所得을 提高시킬 수 있다. 地域經濟成長理論에 의하면 한 地域의 經濟活動을 기본적인 雇傭과 所得을 창출하는 部門과 이 基本的인 部門에 의존하는 殘餘部門으로서 補助部門으로 二分하고, 基本的인 部門이 그 地域의 經濟基盤(economic base)으로서 地域經濟成長의 原動力이 된다고 한다. 이때 基本的인 部門, 혹은 基本産業(basic industry)은 外部로부터 當該地域으로 貨弊를 유입시키는 産業을 뜻하는 것으로, 즉 財貨

9) 清成忠男, 「地域の 變革と 中小企業」, 東京, 日本經濟評論社, 1975, pp.129~130.

나 用役을 外部에 수출하는 産業을 의미한다. 여기에 補助部門, 혹은 補助産業(non-basic industry)을 地域內 수요에 足할 정도의 財貨나 用役을 생산하는 産業을 의미한다. 따라서 補助産業은 當該地域의 經濟力을 유지하는 데 불과하나 基本産業은 地域經濟의 原動力으로서 輸出市場이 확대되어 輸出이 많아지면 수출을 하는 基本産業의 成長은 물론, 基本産業에 재화나 用役을 제공하는 補助産業도 따라서 성장하게 되는 지역경제순환의 연쇄과정을 통해 所得과 雇傭을 창출하게 된다.<sup>10)</sup>

第1次産業을 觀光産業과의 連繫下에서 地緣産業으로 육성할 때 傳統性, 產地形成, 社會的 分業體制 및 特產品 生産이라는 特性外에 需要의 脫地域性이라는, 즉 市場을 全國과 海外市場의 수요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點에 의하여 基本産業으로서 適合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地緣産業의 育成은 地域의 雇傭創出은 물론 地域資源의 利用을 확대하여 當該地域의 經濟基盤을 강화하게 된다.

둘째, 內發的 觀光開發方法의 導入을 가능케 함으로써 觀光所得 創出效果를 提高시킬 수 있다. 內發的 觀光開發은 종래의 外發的 開發方法과는 달리 資源, 勞動力, 技術 등 한 地域이 부존하는 모든 潛在力을 최대한 活用하기 위하여 地域內에 부존하고 있는 限界資源과 中間技術을 적극 活用하는 開發方法이다.<sup>11)</sup> 여기에 투입되는 限界資源은 현재 利用度가 높은 主資源과 利用度가 전혀 없는 無用資源과의 中間位置에 있는 것으로서 市場性이 약하거나 近代的 市場體制에 直結되지 못하며 동시에 單位投入當 生産性이 낮고 이를 開發하는 公式的 制度的 裝置가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지 못하나 장래 開發의 潛在力이 매우 높아 이용될 素地를 충분히 갖고 있는 資源이다. 그리고 中間技術은 자연 그대로의 형태를 약간 수정한 基礎技術과 현재의 高度技術의 中間에 위치하는 地域條件과 적합한 기술을 의미한다.<sup>12)</sup>

內發的 開發에 의한 産業開發의 例로 日本의 地場産業을 들 수 있다. 日本의 地場産業은 주로 地域의 資源과 勞動力, 技術을 사용하여 地域的 獨立性을 가진 特產品을 제공하는 産業으로서 傳統性, 產地形成, 社會的 分業體制, 特產品 生産, 全國 내지 輸出市場의 需要를 갖는다는 特性을 가지는 産業으로 日本內 340個 團地를 형성하여 그 地域 特有的 風土 및 技術로 傳統樣式의 工藝品을 만들어 昨今の 不況에도 불구하고 高價의 物件으로 팔리고 있다.

10) C. M. Tiebout, *The Community Economic Study*, New York, CED, 1962, pp.4~10.

11) 고남옥, 김태보, “제주도 관광개발과 도민소득증대의 연계촉진 방안연구”, 「사회발전연구」, 제2호, 제주대 사회발전연구소, 1985, pp.210~211.

12) 안충영, “지방경제의 문제점”, 「地方의 再發見」, 현대사회과학논총, pp.189~9.



內發的 觀光開發의 屬性을 가지는 第1次産業과 觀光産業과의 聯繫下에서의 地緣産業의 開發育成은 外發的 開發이 가장 潛在力이 큰 몇 個의 分野에 外部로부터의 財源의 支援과 流入을 통해 集中的인 투자에 의해 開發을 이루는 것과 달리 當該地域의 賦存資源과 技術 및 自立的인 財源의 투입에 의해 개발되므로 誘發되는 所得과 雇傭의 波及이 누출되지 않고 地域의 經濟循環에 再投入된다는 點에서 觀光所得의 提高效果가 크다.

세째, 第1次産業을 觀光産業과 連繫시켜 地緣産業으로 육성할 때 地域의 매력을 증대시켜 國內外觀光客의 誘致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地緣産業은 地域의 生活文化의 한 表現이다. 地域의 獨自인 生活文化는 그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觀光資源이 되는 것이어서, 個性있는 地緣産業이 발전될수록 그 地域은 觀光의 名所가 된다.<sup>13)</sup> 다시 말하여 地緣産業은 生産過程에서 축적되는 각종의 技術·技能을 통하여 그 地域 資源을 활용하여 地域特有的 工藝品이나 特産品을 만들어 냄으로써 그 地域固有의 生活文化를 유지 계속하는 役割을 하게 됨으로써 중요한 觀光對象이 될 수 있다는 點에서 그 開發意義가 크다. 따라서 이와 같은 地緣産業은 地域의 文化를 형성하여 地域의 매력을 증대시킴으로써 觀光客 誘致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13) 濟成忠男, 「前掲書」, pp.130~133.

### Ⅲ. 濟州道 觀光産業과 第1次産業의 連繫關係에 관한 實證分析

#### 1. 濟州地域經濟의 産業構造의 特性

한 地域의 경제활동의 특성은 그 地域의 産業構造를 통해 파악된다. 濟州道の 經濟活動人口는 1973년 171千名이던 것이 1986년 495千名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이들을 産業別 就業構造로 보면 1973년의 경우 農林水産業이 81.3%, 鑛工業이 3.5%,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서어비스業이 15.2%이던 것이 1985년 현재 농림수산업이 60.1%, 광공업이 3.4%,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이 36.5%로 나타나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아직도 높으나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Ⅲ-1).

〈表Ⅲ-1〉 濟州道 産業構造의 現況

産業別 年度別	全 産 業		農 林 漁 業		鑛 工		社會間接資本 및 기타 서어비스	
	金 額	%	金 額	%	金 額	%	金 額	%
1960	2,494	100.0	1,534	61.5	134	5.4	826	33.1
1965	10,007	100.0	6,832	68.3	689	6.9	2,486	24.8
1970	24,003	100.0	11,406	47.5	2,033	8.5	10,564	44.0
1975	110,190	100.0	64,742	58.7	5,457	5.0	39,991	36.3
1980	336,613	100.0	130,667	38.8	16,720	5.0	189,226	56.2
1985	680,051	100.0	274,092	40.3	20,090	3.0	385,569	56.7

資料: 제주상공회의소, 제주 경제현황, 1986.

地域總生産額 (GRP)에 대한 産業別 構成비로 보더라도 (表Ⅲ-1) 1973년의 경우 農林水産業이 51.8%, 鑛工業이 7.7%,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서어비스業이 40.5%이던 것이 1986년의 경우 농림수산업이 40.3%, 鑛工業이 3.0%,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서어비스業이 56.7%로 나타나 農林水産業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서

비즈니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地域總生産 (GRP)의 成長率에 대해 産業別로 보더라도 (表 III-1) 1963~1972년간의 年平均成長率은 9.0%인데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서비스業이 13.3%, 鑛工業 9.6%, 農林水産業 6.5%이며 1973~1985년간의 總GRP의 年平均成長率은 16.4%로서 全國平均成長率 7.3%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서비스業은 높은 성장을 보인 반면 農林水産業은 점차 성장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以上の 産業構造分析을 통해 그 特性을 요약하면 濟州道의 농업은 60년대 初까지만 하더라도 食糧作物 위주의 농업이었으나 60년대 이후 柑橘 및 特用作物, 기타 채소재배로 전환됨에 따라 濟州道 地域經濟의 基盤을 이루어 왔으나 점차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또한 鑛山 資源이 全無하고 水資源·動力資源의 빈약, 資本 및 技術의 낙후, 販賣市場의 협소, 輸送費用의 過多 등 不利한 工業與件으로 인하여 鑛工業은 落後狀態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다만 1970년대 이후 음식숙박업, 교통운수업, 娛樂 및 文化 서비스業 등 觀光産業部門이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함으로써 本道 地域經濟의 成長을 촉진시키고 있다.

## 2. 濟州道 第1次産業의 實態

### 1) 農 業

濟州道에 있어서 農業은 7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産業의 中樞를 이루어 왔는데 비옥도가 높고 평탄지가 비교적 많이 분포되어 있는 海岸地帶를 중심으로 漁業을 겸한 밭농사가 발달되어 왔다. 濟州道の 농경지면적은 濟州道 總면적 187,000 ha 가운데 26.5%인 49,553 ha를 占하고 있는데 農家口當 면적도 1986년 현재 1,106 ha로서 全國 平均 1.09 ha보다는 다소 많은 편이나 零細性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Monsoon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여름철에 고온 다습·다우 및 바람이 많고 火山炭 土壤과 암반, 돌이 많아 耕耘, 除草 및 기계화가 어려워 農業生産性이 낮은 수준에 있다.

穀物類 生産은 1961년 全體作物別 재배면적의 94.1%를 차지하였던 것이 1976년 65.1%, 1985년 43.6%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生産量은 195,638 t으로서 全國總生産量 7,315,523 t의 약 2.7%를 占하고 있다. 地域的 特殊性으로 인해 米穀의 재배면적은 계속 줄어들었으며 생산량 역시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다. 麥類는 大麥, 裸麥은 1970년대 이후 재배면적이 계속 감소하였고 맥주맥 재배면적이 1970년대말

부터 유채가격이 하락하면서 증가하여 1985년에는 8,964 ha에 이르고 있으며 재배기술의 향상으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表Ⅲ-2).

〈表Ⅲ-2〉 곡물류 생산의 현황

구 분	연도별	1961	1976	1985
합 계	면 적	63,180	44,928	31,024
	생 산 량	117,702	331,373	195,638
米 穀	면 적	3,232	2,441	1,374
	생 산 량	3,590	4,730	4,161
麥 類	면 적	29,288	16,887	14,075
	생 산 량	29,714	42,264	41,406
雜 穀	면 적	19,332	3,086	1,040
	생 산 량	11,320	4,457	1,298
豆 類	면 적	3,928	10,959	8,608
	생 산 량	4,455	10,651	9,405
기 타	면 적	7,400	11,555	5,927
	생 산 량	68,623	269,271	139,368

자료: 제주도 통계연보

野菜 및 과일類는 薯類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점차 증가하다가 1980년대에 들어와서 生産量이 감소하여 1985년에는 재배면적 5,927 ha에 23,585%에 불과하다. 野菜類 生産의 경우는 경작면적이 1965년 1,219 ha에서 1985년 46,672 ha로 38배나 증가하였는데 1985년 현재 133,376%으로 무우 15,884%, 배추 29,413%, 양배추 11,783%, 마늘 10,183%, 수박 5,426%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表Ⅲ-3).

과일類로서 감귤은 제주도 농가의 수입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경제작물로서 1961년 재배 면적이 257 ha에 불과하였으나 계속 증가하여 1985년에는 16,975 ha이었다가 부분적으로 바나나 生産으로 전환되면서 감소하여 왔는데 1985년말 현재 生産량은 394,300%이며 年間粗收益 역시 1,241억원에 이르고 있다 (表Ⅲ-4). 기타 과일類 生産으로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단감 등이 있다. 제주도의 유리한 立地條件과 함께 施設栽培技術이 보급되면서 경제작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해마다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왔다.

工藝作物은 유채, 참깨, 목화, 들깨 등이 生産되는데 이들 가운데 유채와 참깨가 主宗을

〈表Ⅲ-3〉 야채류 생산의 현황

구 분	연 도 별	1965	1975	1985
합 계	면 적	1,219	1,546	46,670
	수 량	21,906	26,086	133,376
무 우	면 적	228	438	357
	수 량	4,646	8,077	15,884
배 추	면 적	366	291	556
	수 량	6,132	5,040	29,413
양 배 추	면 적	-	117	296
	수 량	-	2,884	11,783
마 늘	면 적	104	175	1,123
	수 량	1,255	1,303	10,183
수 박	면 적	67	66	305
	수 량	1,631	1,370	5,426
기 타	면 적	454	457	44,035
	수 량	8,234	7,412	60,687

資料： 제주도 통계연보

〈表Ⅲ-4〉 감귤생산의 현황

단위： ha, %

區 分 年度別	面 積	生 産 量	粗 收 入 (百萬元)	流 通 處 理 內 容		
				생과반출	가공처리	기타소비
1977	11,710	115,500	25,870	97,985	8,167	9,348
1979	12,909	172,150	55,088	151,701	11,859	8,580
1981	14,764	247,780	78,397	205,922	22,740	19,118
1983	16,975	345,900	74,043	295,311	33,059	17,530
1985	16,969	394,300	124,189	313,041	65,659	15,600

資料： 제주도 통계연보

이루고 있다. 유채는 1960년대 이후 겨울철 경제작물로 재배되기 시작하여 化工業의 발달과 함께 그 재배면적이 급증하여 1976년에는 12,795 ha에 달하였다가 외국산 大豆가 수입됨에 따라 가격이 급락하면서 1985년에는 6,251 ha로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참깨재배는

1970 년대에 들어와 경제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배면적이 계속 증가하고 1985년에는 7,286 ha로 급격히 늘어났고 생산량도 1,850%으로 증산되어 농가소득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濟州道 畜産業은 地理的, 氣候的 특수성으로 他地域에 비해 경영방식이나 가축의 종류가 특이하다. 제주도의 中山間地域은 傾斜가 매우 완만하고 광활한 5,800 ha의 초원이 있으며 기온이 온난하고 降雨量이 많아 풀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 畜産業의 유리한 自然環境的 與件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濟州道內의 牧場現況은 1985년 현재 企業牧場 43 個所, 官營牧場 4 個所, 部落共同牧場 85 個所가 있으며 21,277 ha의 草地를 이미 조성하였고 향후 23,151 ha를 더 조성하여 이용할 계획이다.

家畜의 現況을 보면(表Ⅲ-5) 韓牛는 1961년 49,700 마리에서 1965년에는 75,800 마리로 증가되기도 하였으나, 종래 牛肉의 공급뿐만 아니라 役用으로 사육해오다가 영농기계의 확대보급에 따라 점차 사육두수가 감소하였으며, 80년대초 畜産物 波動에 의해 더욱 위축되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하여 1985년말 현재 57,100 마리로 증가하였다. 젖소도 1976년 처음으로 乳牛育成牛가 도입되면서 낙농업을 시작케하였고, 1981년 900 마리에 지나지 않았으나 점차 증가하여 1985년말 현재 1,600 마리에 달하고 있다. 돼지 사육두수는 1970년대초 이후 계속 늘어나 1976년 71,600 마리로 늘어나 돼지값 파동을 겪었고 이에 따라 사육두수도 감소되다가 다시 72,205 마리로 증가되었다. 닭 사육두수는 1960년대 이후 계속 급증하여 1985년말 현재 550,500 마리에 달하여 企業化가 비교적 빨리 이루어졌다. 濟州馬는 경제적 가치하락과 영농기계화에 밀려 사육두수가 1961년 14,000 여 마리에서

〈表Ⅲ-5〉 가축의 현황

단위 : 백마리

연도 \ 가축	한 우	육 우	젖 소	돼 지	계 주 말	닭
1961	497	7	-	504	138	991
1966	758	9	-	704	193	1,594
1971	384	11	-	579	76	1,751
1976	339	95	2	716	53	1,911
1981	274	-	9	471	20	4,280
1985	571	-	16	722	16	5,505

자료 : 제주도 통계연보

급격한 감소를 가져왔는데 현재는 天然記念物로 지정하여 멸종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데 1985년말 현재 1,600 마리에 불과하다.

2) 林業

林業은 原始産業으로서 育林과 林産物의 2부분으로 분류되는데, 育林은 種苗生産과 一般造林으로 구성되고, 林産物은 原木, 其他用材, 木炭 및 長斫, 食用林産物, 天然 고무, 其他 林産物로 구성된다.

濟州道の 林野面積은 102,101 ha로서 총면적의 59%를 占하고 있고 이 중 國有林이 30,949 ha, 公有林이 11,511 ha, 私有林이 59,641 ha로서 전체의 58.4%이고, 林地는 전체의 61.4%인 62,681 ha이다. 立木地의 林相別로는 침엽수 41.9%, 활엽수 43%, 혼효림 15.1%로서 전국에 비해 침엽수 및 활엽수의 구성비가 비교적 높다.

主要 林産物은 표고, 野生種實, 燃料, 用材, 퇴비, 산나물 등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표고는 1960년대 이후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여 東南亞, 日本 등지로 수출되고 있으며 道内 主要 土産品으로도 판매되고 있다 (表Ⅲ-6).

〈表Ⅲ-6〉 주요 임산물 생산의 현황

연도별 임산물	1976	1980	1985
야생종실	2,039	57,503	171,500
표고	52,614	72,603	69,286
연료(%)	107,600	91,949	46,722
퇴비(t)	1,006,637	501,859	565,243
사료(t)	261,575	220,047	208,152
용재(m)	13,326	6,577	5,407
산나물(kg)	96,269	74,570	1,007,872
토석류(m)	27,513	295,212	311,109

자료: 제주도청 산림과

3) 漁業

漁業은 크게 水産漁獲과 水産養殖으로 구분되는데, 濟州道는 해안선의 길이가 253 km에 달하며 水深 100 m 내외의 대륙붕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고, 특히 대만난류, 각종 沿岸水, 黃海低流冷水 등의 영향과 온대성 기후의 환경요소에 의해 水産資源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水産業의 立地的 조건이 양호하다.

제주도에는 1985년 현재 건설부 지정항으로서 濟州, 西歸, 和順, 城山, 翰林의 5개 항이 있으며 제 1종 어항이 4개소, 제 2종 어항이 10개소, 제 3종 어항이 2개소 등 16개의 指定漁港과 소규모 어항 83개소를 포함하여 총 99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漁業生産의 주요수단인 漁船의 현황은 1961년 903척으로 그 가운데 동력선이 1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후 해마다 증가하여 1985년에는 1,777척 중 87%인 1,546척을 차지하고 있어 어선의 動力化가 많이 진행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濟州道の 漁獲高는 1970년까지 24,348톤이었으나 1985년에는 44,190톤으로 증가하여 1.9배 가량 증가하였다. 어획량의 종류별 구성비를 보면(表Ⅲ-7) 海藻類 생산이 約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魚類는 33%의 어획고를 점하고 있는데 갈치, 돔류, 고등어류, 조기류 등의 順으로 잡히고 있다. 貝類는 소라와 진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체류와 갑각류는 각각 2,785톤, 551톤이 채취되고 있다(表Ⅲ-7).

〈表Ⅲ-7〉 제주도 어획고의 현황

단위: %

年 度	計	魚 類	甲殼類	軟體類	貝 類	海藻類	其 他
1970	24,348	4,448	-	-	1,615	18,186	99
1980	39,563	17,331	435	374	2,254	19,336	133
1985	44,190	14,460	551	2,785	3,391	21,790	1,213

자료: 제주도 통계연보

### 3. 濟州道 觀光産業과 第1次産業과의 連繫關係 分析

濟州道內 1次産業을 觀光産業과의 連繫關係下에서 地緣産業으로 開發 育成할 때 觀光의 側面에서는 地緣産業 그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觀光對象이 되므로 觀光環境의 多樣化를 期할 수 있으며, 地域經濟側面에서는 當該地域의 經濟基盤을 강화시키고 또한 內發的 觀光開發을 가능케 함으로써 地域住民의 觀光所得效果를 提高시킬 수 있다는 點에서 本道內 1次産業과 觀光産業과의 連繫關係의 강화는 중요한 意味를 갖는다.

濟州道內 1次産業과 觀光産業과의 連繫關係에 대한 實物經濟的 分析은 前年度 濟州道 政策課題인 「濟州道 地域觀光所得 分析 研究(姜光夏·許香珍)」에 의한 産業聯關分析을 통해 진밀한 連繫關係가 있음이 이미 分析 파악되었다.



따라서 本研究에서는 濟州道 觀光產業과 1次產業과는 긴밀한 連繫關係가 있다는 前提에서 그 連繫關係를 강화시키는데 있어서 문제점과 구체적인 方案 모색을 濟州道 觀光商品을 案内하는 觀光案内員을 대상으로 한 設問調查를 통해 分析하였다.

### 1) 調查分析의 方法

本調査는 濟州道 觀光產業과 1次產業과의 連繫關係를 강화시키는데 있어서 문제점과 具體的인 方案을 모색하는데 있으므로 調查內容은 ① 濟州道 觀光商品의 季節性 分析, ② 農業, 林業, 漁業 등의 第1次產業部門에 대한 觀光商品化의 開發方案 및 問題點, ③ 既存 觀光코스의 問題點 등을 主된 범위로 하여 濟州道에 本社를 두고 있는 10個 旅行業體의 國內外 觀光案内員을 대상으로 標本調查를 실시하였는데 標本數는 145 매이었다.

1987년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고나서 本調査는 1987년 8월 10일부터 8월 22일까지 14일간 실시되었다. 調查方法은 調查者가 當該業體를 방문하여 調查對象者에게 調查目的과 內容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 기입하게 하였다. 本調査에서 回收된 設問紙는 117매로서 回收率이 80.7%였는데, 이 가운데 應答內容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標本 5매를 제외한 나머지 112매를 最終有效標本으로 확정하였다. 이 中 定된 有效標本은 單純頻度 分佈와 百分率을 중심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分析 처리되었다.

### 2) 濟州道 觀光產業과 第1次產業과의 連繫關係 分析

#### ① 濟州觀光의 季節的 特性

㉞ 濟州觀光 活動이 對象으로서 觀光性은 여러 側面에서 옛 先人들에 의해 膾炙되어 왔다. 景觀의 빼어남에 대해서는 濟州 10景을 지정하였고, 風物에 대해서는 三多, 三無, 三麗 등으로 지칭되었다. 現代에 와서 觀光活動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利用되고 開發潛在力이 높은 觀光資源 및 觀光對象을 季節別 特徵으로 파악해 보는 것도 意義가 크다.

濟州道 봄철觀光의 특징에 대한 設問(表Ⅲ-8)에 대해서는 應答者의 64.8%인 81名이 유채꽃, 28%인 35名이 철죽, 4.8%인 6名이 한라산등반을 지적하고 있는데 봄철觀光의 특징은 유채꽃과 철죽 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濟州觀光의 peak 시즌은 유채꽃의 滿開과 더불어 시작되고 있다.

㉟ 本道 여름觀光의 特徵에 대한 設問에 대해서(表Ⅲ-9)는 應答者의 64.2%인 79名이 海水浴, 17.9%인 22名이 한라산의 녹음, 13.8%인 17名이 낚시, 2.4%인 3名이 폭포의 景觀 등을 지적하고 있어 여름觀光의 특징은 주로 海岸景觀의 鑑賞과 海邊 및 海洋 慰樂活動인 것으로 나타났다.

㊱ 本道 가을觀光의 특징에 대한 設問에 대해서(表Ⅲ-10)는 應答者의 45.2%인 71名이 감귤농원, 39.5%인 62名이 가을단풍, 6.4%인 10名이 한라산등반, 5.7%인 9名이

〈表Ⅱ-8〉 제주도 봄철 관광의 특징

구 분	응답자수	%
유채꽃	81	64.8
돌담과 자연원색의 조화	2	1.6
철쭉	35	28.0
한라산 등반	6	4.8
해녀작업의 풍경	1	0.8
계	125	100.0

주: 복수응답임.

〈表Ⅱ-9〉 제주도 여름철 관광의 특징

구 분	응답자수	%
해수욕	79	64.2
낚시	17	13.8
한라산의 녹음	22	17.9
북포의 경관	3	2.4
해상관광	1	0.8
관광농원	1	0.8
계	123	100.0

주: 복수응답임.

〈表Ⅱ-10〉 제주도 가을관광의 특징

구 분	응답자수	%
단풍	62	39.5
감귤농원	71	45.2
목장	5	3.2
역새플	9	5.7
한라산 등반	10	6.4
계	157	100.0

주: 복수응답임.

억새풀, 3.2%인 5명이 목장 등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가을觀光의 특징은 橘林秋色 순으로 성격지워진 주렁주렁 매달린 굴밭에 의해 황금빛 세계를 이룬 가을景觀과 漢拏山 樹林地帶의 가을단풍이다.

㉞ 本道 겨울觀光의 특징에 대한 設問에 대해서는 (表Ⅲ-11) 應答者의 76.5%인 75명이 한라산雪景, 9.2%인 9명이 수렵, 6.1%인 6명이 열대식물류, 4.1%인 4명이 겨울바다 산책, 3.1%인 3명이 겨울등반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겨울觀光의 특징은 鹿潭晚雪로 지적되는 漢拏山 雪景과 수렵, 등반 등 冬季慰樂活動이라고 할 수 있다.

〈表Ⅲ-11〉 제주도 겨울관광의 특징

구 분	응답자수	%
한라산 설경	75	76.5
열대식물류	6	6.1
감 굴	1	1.0
겨울 등반	3	3.1
겨울바다 산책	4	4.1
수렵	9	9.2
계	98	100.0

주: 1) 복수응답임.  
2) 무응답은 제외한 것임.

㉞ 邑선투어商品의 可能性과 農水産物 購入品目

㉞ 1次産業 분야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읍선투어商品에 대한 設問(表Ⅲ-12)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5.5%인 54명이 낚시觀光, 16.5%인 35명이 승마, 16%인 34명이 수렵, 12.3%인 26명이 목장시설관광 11.8%인 25명이 觀光農園 9.4%인 20명이 식물원 견학, 7.1%인 15명이 해산물 채취의 順으로 응답하고 있다.

㉞ 濟州道内에서 생산되는 農林水産物 中에서 觀光客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에 대한 設問(表Ⅲ-13)에 대해서는 應答者의 26.9%인 82명이 꿀, 로얄제리 등의 養蜂産物, 24.3%인 74명이 파인애플, 23%인 70명이 감귤, 8.9%인 27명이 바나나, 7.2%인 22명이 옥돔, 4.6%인 14명이 표고, 2.6%인 8명이 전복, 소라 등의 順으로 응답하고 있다. 주로 봉산물, 감귤·파인애플·바나나 등의 果實類, 옥돔·전복·소라 등의 水産製品, 표고 등이 관광객이 선호하는 제품이다.

〈表Ⅲ-12〉 1차산업 분야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옵션투어상품

구 분	응답자수	%
남 시 관 광	54	25.5
각종 식물원 견학	20	9.4
캠 등 수렵관광	34	16.0
관 광 농 원	25	11.8
해 산 물 채 취	15	7.1
입 산 물 채 취	3	1.4
목장시설 시찰	26	12.3
승 마	35	16.5
계	212	100.0

주: 복수응답임.

〈表Ⅲ-13〉 제주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중에서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것

구 분	응답자수	%
봉산물(꿀, 로얄제리 등)	82	26.9
파 인 애 풀	74	24.3
감 굴	70	23.0
표 고	14	4.6
우 돔 등	22	7.2
진 북, 소 라 등	8	2.6
난 등, 화 껍 류	6	2.0
바 나 나	27	8.9
무 응 답	2	0.7
계	305	100.0

주: 복수응답임.

③ 觀光農園 利用上의 問題點 및 地域住民 觀光所得 連繫方案

㉞ 濟州道 來道 觀光客의 관광농원 利用上의 문제점에 대한 設問(表Ⅲ-14)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0.7%인 75명이 單純한 상품종류, 16.9%인 61명이 작고 조잡한 施設規模, 14.9%인 54명이 농원간의 過當競爭, 12.2%인 44명이 비싸고 不安定한 價格體系, 9.7%인

35名이 허위 및 過大宣傳, 9.1%인 33名이 低質의 商品水準, 6.9%인 25名이 強賣行爲, 6.4%인 23名이 廣告宣傳 및 弘報의 부족 등의 順으로 응답하고 있다. 觀光農園이 제공하는 觀光商品이 단순하고 저질이며 觀光農園 施設規模가 작고 조잡하며, 농원간의 過當競爭과 價格體系가 不安定하며 強賣行爲 등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表Ⅲ-14〉 관광객 이용 농원의 문제점

구 분	응답자수	%
작고 조잡한 시설규모	61	16.9
단순한 상품종류	75	20.7
비싸고 불안정한 가격체제	44	12.2
광고선전 및 홍보의 부족	23	6.4
심한 경쟁	54	14.9
상품의 낮은 품질수준	33	9.1
종사원 등의 서비스 부족	12	3.3
강매행위	25	6.9
허위 및 과대선전	35	9.7
계	362	100.0

주: 복수응답임.

㊤ 觀光客 利用農園을 地域住民所得과 連繫시킬 수 있는 方案에 대한 設問(表Ⅲ-15)에 대해서는 應答者의 32.4%인이 商品의 다양화, 20.6%인이 流通 및 販賣의 체계화, 14.7%인이 價格의 一元化, 11.8%이 각각 品質의 고급화, 郷土性있는 商品開發 5.9%이 特産物에 대한 이미지 改善 및 弘報, 2.9%이 觀光農園收益金の 地域内 再投資 등의 順으로 응답하고 있어 住民所得增大를 위한 觀光農園의 開發育成 方案은 觀光商品의 多樣化와 郷土的인 商品開發과 品質의 高級化, 流通 販賣의 체계화와 價格 一元化, 觀光特産物 이미지 改善 및 弘報收益의 地域内 再投資 등에서 찾을 수 있다.

④ 유채꽃의 觀光選好度 및 觀光資源化 方案

㊤ 유채꽃에 대한 觀光客의 選好度を 묻는 設問(表Ⅲ-16)에 대해서는 應答者의 70.5%인 79名이 매우 높다. 23.2%인 26名이 높다고 응답하고 있어 유채꽃의 觀光選好度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Ⅲ-15〉 관광농원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주민소득과 연결방안)

구 분	응답자수	%
특산물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및 홍보	2	5.9
향토적인 상품의 개발	4	11.8
품질의 고급화	4	11.8
유통 및 판매의 체계화	7	20.6
가격의 일원화	5	14.7
상품의 다양화	11	32.4
관광농원 수익금의 지역내 재투자	1	2.9
계	34	100.0

주: 무응답은 제외한 것임.

〈表Ⅲ-16〉 유채꽃에 대한 관광객의 선호도

구 분	매우높다	높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낮다	계
응답자수	79	26	6	1	0	112
%	70.5	23.2	5.4	0.9	0	100.0

㊤ 유채유를 觀光商品化하였을 때의 전망을 묻는 設問(表Ⅲ-17)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2.5%인 14명이 매우 밝다, 22.3%인 25명이 밝다, 51.8%인 58명이 보통이다, 10.7%인 12명이 어둡다고 응답하고 있어 유채꽃의 觀光選好度에 비해 낮은 편이나 觀光商品化의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다.

〈表Ⅲ-17〉 유채류의 상품화 전망정도

구 분	매우밝다	밝다	보통이다	어둡다	매우어둡다	계
응답자수	14	25	58	12	3	112
%	12.5	22.3	51.8	10.7	2.7	100.0

㊤ 유채꽃을 春觀光資源으로 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묻는 設問(表Ⅲ-18)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2.2%인 19명이 開花期가 짧다, 23.7%인 14명이 耕作面積이 작다, 27.1%인 16명이 사진촬영 지점의 부족, 16.9%인 10명이 유채꽃 훼손 및 주민소득과 무관하

는 점의 順으로 응답하고 있는데 유채꽃의 봄觀光資源化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開花期가 짧다는 점, 耕作面積이 작다는 점, 지정사진 촬영장소의 부족, 유채꽃 훼손과 지역주민소득 파급효과가 낮다는 점 등이다.

<表Ⅲ-18> 유채꽃을 봄철 관광자원화했을 때의 문제점

구 분	응답자수	%
개화기가 짧다	19	32.2
경지면적이 적다	14	23.7
사진촬영 지정장소의 부족	16	27.1
유채꽃 훼손 및 주민소득과 무관	10	16.9
계	59	100.0

주: 1) 복수응답임.  
2) 무응답은 제외한 것임.

㉠ 유채꽃을 봄철 觀光資源化하는 데 있어서의 개선방안을 묻는 設問(表Ⅲ-19)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5.4%가 地域別 分散擴大, 20.8%가 행정적 지원, 14.6%가 지정촬영 장소의 확대, 12.5%가 유채밭의 公園化, 8.3%가 유채유의 商品化, 6.3%가 적극적 弘報對策의 마련, 2.1%가 관람요금 징수 방안 등의 順으로 지적하고 있다.

<表Ⅲ-19> 유채꽃 관광자원화에 있어서의 개선방안

구 분	응답자수	%
지역별 분산 확대	17	35.4
행정적 지원	10	20.8
지정촬영 장소의 확대	7	14.6
유채유 등의 상품화	4	8.3
적극적인 홍보정책 마련	3	6.3
관람요금 징수방안 마련	1	2.1
유채꽃밭의 공원화	6	12.5
계	48	100.0

주: 무응답은 제외한 것임.

⑤ 觀光牧場 開發을 위한 必要施設과 需要展望

㉞ 既存牧場을 觀光목장으로 개발할 경우 必要한 施設을 묻는 設問(表Ⅲ-20)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2%인 76명이 도로 등 基盤施設, 29.8%인 54명이 각종 오락시설, 16.6%인 30명이 음식점 시설, 16.6%인 31명이 숙박시설의 順으로 응답하고 있어 觀光牧場을 開發하는 데 있어 각종 위락편익활동, 숙박기능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Ⅲ-20〉 기존목장을 觀光목장화하였을 경우에 必要한 시설

구 분	응답자수	%
숙박시설	21	11.6
각종 오락시설	54	29.8
음식점 시설	30	16.6
도로 등 기반시설	76	42.0
계	181	100.0

주: 복수응답임.

㉟ 既存牧場을 觀光牧場으로 하였을 경우 觀光需要 展望을 묻는 設問(表Ⅲ-21)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1.6%인 13명이 매우 높다, 41.1%인 46명이 높다, 40.2%인 45명이 보통이다, 5.4%인 6명이 낮다, 1.8%인 2명이 매우 낮다고 응답하고 있어 觀光牧場에 需要展望은 밝다고 볼 수 있다.

〈表Ⅲ-21〉 觀光목장에 대한 관광객의 예상수요 정도

구 분	매우높다	높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낮다	계
응답자수	13	46	45	6	2	112
%	11.6	41.1	40.2	5.4	1.8	100.0

⑥ 觀光商品化가 가능한 林産物의 種類

濟州道内 林産物과 관련하여 觀光商品化가 가능한 林産物의 종류를 묻는 設問(表Ⅲ-22)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인 84명이 표고재배장 견학, 24.6%인 41명이 고사리 채취, 7.1%인 12명이 야생열매 채취와 야생화초 감상, 6%인 10명이 비자림 등 자연석물원 견학, 5.4%인 9명이 인공식물원 견학 등의 順으로 응답하고 있어 觀光商品化 가능성이



높은 林業은 표고재배장, 고사리 채취, 야생열매 채취 및 야생화초 감상, 자연식물원 등이 라고 할 수 있다.

〈表Ⅲ-22〉 도내 임산물 중 관광상품화의 가능성이 가장 큰 것

구 분	고 사 리 채 취	표고재배장 전 학	야생열매 채 취	비자림 등 자연식물원 습	인공식물원 전 학	야생화초 감 상	계
응답자수	41	84	12	10	9	12	168
%	24.4	50.0	7.1	6.0	5.4	7.1	100.0

주: 복수응답임.

⑦ 漁民의 海産物 直接販賣時의 문제점 및 改善方案

② 漁民이 채취한 해산물을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할 때의 문제점을 묻는 設問(表Ⅲ-23)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2.9%인 77명이 각각 불결한 위생과 불안정한 價格體系, 20.4%인 65명이 指定販賣 展示施設의 부족, 18.8%인 60명이 觀光地의 觀光環境 저해, 15%인 48명이 強賣 및 呼客行爲 등의 順으로 응답하고 있어 불결한 위생, 가격체계의 문란, 지정 전시시설의 부족 등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表Ⅲ-23〉 어민이 채취한 해산물을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할 때의 문제점

구 분	응답자수	%
불결한 위생	73	22.9
불안정한 가격	73	22.9
강매 및 호객행위	48	15.0
일정한 판매·전시시설의 부족	65	20.4
관광지의 환경 저해	60	18.8
계	319	100.0

주: 복수응답임.

④ 어민의 채취한 해산물 直販에 따른 개선방안을 묻는 設問(表Ⅲ-24)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2.3%인 84명이 철저한 위생관리, 26.9%인 70명이 신뢰할 수 있는 가격체계, 25%인 65명이 일정한 판매장소의 지정, 15.8%인 41명은 어촌계 등의 직접관리 등의 順으로 응답하고 있어 위생관리의 철저, 신뢰할 수 있는 가격체계의 형성, 판매장소의 지정, 어촌계 등의 직접관리 등이 개선되어야 하겠다.

〈表Ⅲ-24〉 어린이 채취한 해산물 직판에 따른 개선방안

구 분	응답자수	%
일정한 판매장소의 지정	65	25.0
철저한 위생관리	84	32.3
신뢰할 수 있는 가격체계	70	26.9
어촌계 등의 직접관리	41	15.8
계	260	100.0

주: 복수응답임.

⑧ 낚시觀光의 問題點

濟州道 낚시觀光의 문제점을 물론 設問(表Ⅳ-25)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6.7%인 74명이 낚시전용시설의 부족, 16.2%인 72명이 낚시터 安全 및 便宜施設 부족, 14.6%인 65명이 전문안내원의 부족 13.7%인 61명이 각각 弘報의 부족과 여행시간 부족, 13.5%인 60명이 교통수단 불편 등의 順으로 응답하고 있어 낚시터 전용시설 및 안전 편의시설의 부족, 전문안내원의 부족 교통수단의 불편 및 弘報의 부족 등이 문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表Ⅲ-25〉 낚시관광의 문제점

구 분	응답자수	%
낚시전용선의 부족	74	16.7
낚시터 안전 및 편의시설 부족	72	16.2
홍보의 부족	61	13.7
전문안내원의 부족	65	14.7
낚시터 의 교통수단 불편	60	13.5
한정된 이용객	51	11.5
여행시간의 부족	61	13.7
계	444	100.0

주: 복수응답임.

⑨ 觀光土産品の 選好度 및 問題點

㉞ 濟州道 觀光土産品 中에서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을 묻는 設問(表Ⅲ-26)에서는 응답자의 46.7%인 85명이 돌하르방 不製品, 18.1%인 33명이 기념타올, 13.7%

인 25 명이 산호제품, 11 %인 20 명이 정동제품, 7.7 %인 14 명이 목각제품, 2.7 %인 5 명이 식품 등의 願으로 응답하고 있어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토산품은 돌하르방 등 석제품, 기념타올, 산호제품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表 Ⅱ - 26〉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토산품

구 분	돌하르방 등 석제품	산호제품	기념타올	목각제품	정동제품	식 품	계
응답 자 수	85	25	33	14	20	5	182
%	46.7	13.7	18.1	7.7	11.0	2.7	100.0

주 : 복수응답임.

㊤ 제주도내에서 판매되는 土產品의 문제점을 묻는 設問 (表 Ⅱ - 27)에서는 응답자의 31.7 %인 101 명이 郷土性 제품의 부족, 26.6 %인 85 명이 신제품과 디자인개발의 미흡, 12.9 %인 45 명이 가격이 비싸다, 11.3 %인 36 명이 有用性 부족, 4.1 %인 13 명이 포장의 조잡, 등의 願으로 응답하고 있어 濟州道内에서 판매되는 土產品의 品質面에서는 郷土性 부족과 디자인의 조잡, 流通面에서는 가격이 비싸고 포장이 조잡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表 Ⅱ - 27〉 제주도 토산품의 문제점

구 분	응답 자 수	%
불량 품질	20	6.3
비싼 가격	41	12.9
신제품과 디자인 개발 미흡	85	26.6
홍보 및 광고선전의 부족	11	3.4
향토성 제품의 부족	101	31.7
과당 경쟁	12	3.8
조잡한 포장	13	4.1
유용성 부족	36	11.3
계	319	100.0

주 : 복수응답임.

⑩ 民泊이 필요한 觀光地

民泊을 활성화할 수 있거나 반드시 필요한 觀光地를 묻는 設問(表Ⅲ-28)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7.4%인 83명이 해수욕장, 38.9%인 68명이 낚시터, 6.9%인 12명이 中山間地帶, 4%인 7명이 都市內, 2.9%인 5명이 어촌의 順으로 응답하고 있어 民泊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개발가능한 觀光地는 해수욕장, 낚시터 및 어촌지역, 中山間地帶인 것으로 나타났다.

〈表Ⅲ-28〉 민박이 필요한 관광지

구 분	해수욕장	낚시터	도시내	중산간지대	기타 어촌	계
응답자수	83	68	-7	12	5	175
%	47.4	38.9	4.0	6.9	2.9	100.0

주: 복수응답임.

⑪ 既存 觀光코스 외에 관광객이 원하는 觀光地

既存 觀光코스상에 제외된 觀光地 중에서 관광객이 주로 원하는 觀光地를 묻는 設問(表Ⅲ-29)에서는 응답자의 22%인 22명이 제2횡단도로, 19%인 19명이 한라산 등반, 16%인 16명이 목석원, 13%인 13명이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 9%인 9명이 서귀포 해상관광, 7%인 7명이 용두암, 그 외에도 성읍민속마을, 하니문하우스, 해녀작업장, 측사선생적거지, 어승생계곡 등인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指定 觀光코스에 觀光商品化가 높은 觀光地는 제2횡단도로, 한라산 등반, 목석원, 제주자연사 박물관, 서귀포 해상관광 등이라 볼 수 있다.

⑫ 濟州道 觀光振興을 위한 當面課題

濟州道 觀光振興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課題를 묻는 設問(表Ⅲ-30)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9%인 49명이 行政當局의 지원강화, 28.4%인 48명이 觀光受容施設의 확충, 14.8%인 25명이 道民의 歡待(hospitality)姿勢의 확립, 14.2%인 24명이 觀光事業體의 倫理, 13.6%인 23명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弘報·宣傳의 강화 등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濟州道 觀光振興을 위한 當面課題는 行政支援 강화, 道民의 환대자세 확립, 관광업체의 윤리 확립 관광객 유치를 위한 弘報宣傳의 강화 등이라 할 수 있다.

〈表Ⅲ-29〉 기존 관광코스 이외에 관광객이 원하는 관광지

구	분	응답자수	%
제2횡단도로		22	22.0
한라산 등반		19	19.0
서귀포 해상관광		9	9.0
목석원		16	16.0
용두암		7	7.0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13	13.0
성읍민속마을		3	3.0
허니문 하우스		3	3.0
어승생계곡		1	1.0
해녀작업장		3	3.0
추사선생적거지		1	1.0
유인도 및 무인도		3	3.0
계		100	100.0

주: 무응답은 제외한 것임.

〈表Ⅲ-30〉 제주도 관광진흥을 위한課題

구	분	응답자수	%
관광객유치를 홍보 선전		23	13.6
관광수용시설의 확충		48	28.4
도민의 환대 자세 확립		25	14.8
관광업체의 윤리		24	14.2
행정당국의 지원 강화		49	29.0
계		169	100.0

주: 복수응답임.

## IV. 濟州道 觀光動向 및 觀光費用 分析

### 1. 濟州道 觀光實態의 概觀

#### 1) 觀光客數 및 觀光收入 現況

濟州道는 점차 國民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의 증대됨과 더불어 濟州道 當局의 적극적인 觀光開發事業과 觀光産業의 振興에 힘입어 우리 나라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觀光地로 각광을 받고 있다.

따라서 濟州道를 방문한 內·外國人 觀光客의 규모는 1986年末 현재 약 149萬名의 수준에 달하고 있다. 觀光客의 量的 성장추세를 <表IV-1>에서 살펴보면 1970年代 중반부터 年平均 약 13.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즉 1980年을 전후한 시기에 일련의 국내

<表IV-1> 年度別 觀光客의 現況

(단위: %)

區分 年度別	合計 (名)	國籍別		性 別		交通手段別		旅行形態別	
		內國人	外國人	男	女	航空	船舶	團體	個人
1976	369,182	94.5	5.5	48.8	51.2	48.3	51.7	56.8	43.2
1978	651,648	94.0	6.0	64.1	35.9	57.0	43.0	51.1	48.9
1980	669,369	96.9	3.1	55.6	44.4	58.3	41.7	37.5	62.5
1982	860,334	94.8	5.2	58.2	41.8	67.8	32.2	25.6	74.4
1984	1,217,243	96.0	4.0	-	-	73.3	26.7	28.8	71.2
1986	1,492,308	92.2	7.8	-	-	76.0	24.0	26.2	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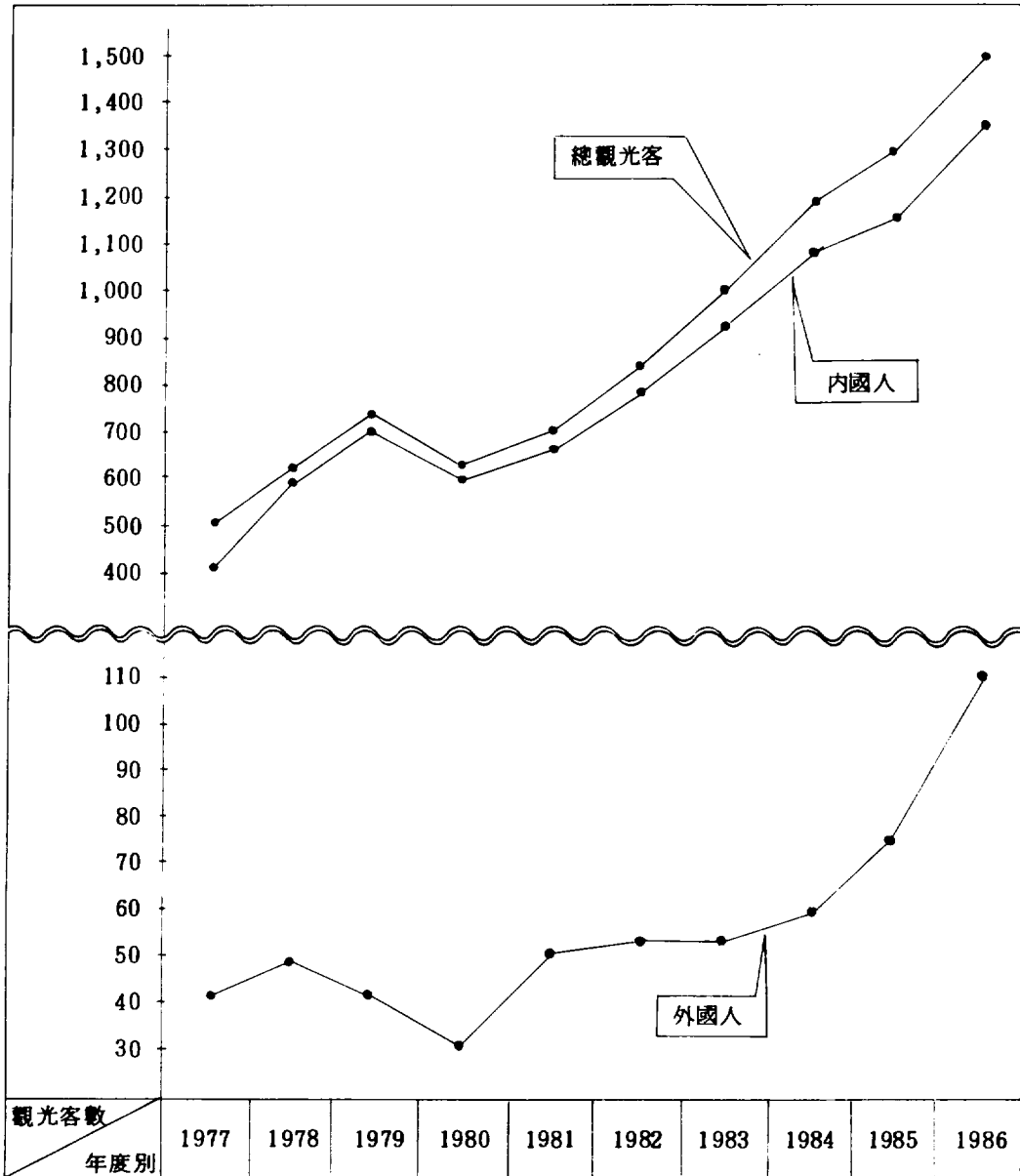
資料: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1983, 1987.

사태와 제 2차 오일쇼크 등에 의한 경기침체로 감소현상을 나타낸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림IV-1 참조).

觀光客의 國籍別 구성은 1986年末 현재 內國人이 92.2%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外國人의 경우에는 7.8%의 비율로 우리 나라를 방문한 전체 外來觀光客 약 166萬名의 7.0%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外國人 觀光客의 제주도 방문은 1985년과 1986년에 前年度 對比 각각 50.9%와 57.1%의 매우 높은 成長率을 보임으로써 外來觀光客에게 대해서도 제주도의 誘引力이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外國人 觀光客의 國籍別 實態는 <表I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年度別로 많은 차이

[ 그림 IV-1 ] 年度別 觀光客數 趨勢



를 보이고 있으나 日本人 觀光客이 꾸준히 큰 비중을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日本人과 僑胞를 합한 來道客의 구성비는 1986년에 79.5%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주도 방문하는 교포의 대부분이 在日僑胞임을 감안하면 日本市場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기타 지역으로는 최근 東南亞地域의 觀光客이 점차 증가하는 데 반해, 美國이나

歐洲地域 觀光客의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表Ⅳ-2〉 國籍別 外國人觀光客 比率

(단위 : %)

區分 年度別	合 計 (名)	僑 胞	日 本	美 國	歐 洲	기타·동남아
1976	20,264	14.1	73.7	7.3	1.3	3.6
1978	39,256	36.8	27.2	17.4	8.6	10.0
1980	20,548	47.9	30.8	16.0	0.6	4.7
1982	44,503	34.0	56.4	8.9	—	0.7
1984	48,818	26.0	59.0	9.0	—	6.0
1986	115,753	18.3	61.2	6.1	1.0	13.5

資料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1983, 1987.

또한 來訪客 現況을 性別로 살펴보면 1976년에 남녀비율이 48.8%와 51.2%로 여자가 다소 많았으나, 그 이후에는 남자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內國人 觀光客의 변화에 따른 요인이라기 보다는 日本人 觀光客이 주로 남성위주의 團體旅行형태로 급증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交通手段利用別 관광객 구성비는 1976년까지 선박편 이용이 많았으나, 1977년을 기점으로 항공편 이용이 계속 높아지면서 1986년에 76.0%에 달하는 높은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觀光客 구성비를 旅行形態別로 살펴보면 個人觀光客이 전체의 73.8%를 점함으로써 신혼여행과 하계 휴가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觀光客의 증가에 힘입어 團體觀光客을 훨씬 웃도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表Ⅳ-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6年末 현재 個人觀光客에 속하는 신혼부부와 개별여행자의 경우 각각 12.6%와 61.2%의 비율을 점하고 있는 데 비하여,

〈表Ⅳ-3〉 旅行形態別 觀光構成比

(단위 : %)

區分 年度別	合 計 (名)	個 別	신혼부부	일반단체	수학여행
1983	1,025,026	67.1	8.9	22.1	2.0
1984	1,217,243	60.2	10.2	27.9	1.7
1985	1,322,702	59.7	10.5	25.3	4.5
1986	1,492,308	61.2	12.6	22.2	4.0

資料 : 제주도 관광과, 1987.



團體觀光客인 일반단체와 수학여행은 각각 22.2%와 4.0%에 불과하다. 특히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일반단체는 감소추세에 있어서 濟州道 觀光需要패턴이 다소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觀光客의 급격한 신장세와 함께 濟州道の 觀光收入도 <表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증가하여 1986年末에 약 143,755百萬원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1977年의 13,000百萬원에 비해 약 11배 이상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表IV-4> 觀光收入 現況(經常價格)

(단위: 百萬원)

區 分 年度別	合 計	內 國 人 (%)	外 國 人 (%)
1976	6,753	5,234(77.5)	1,519(22.5)
1978	18,183	13,473(74.1)	4,710(25.9)
1980	25,997	22,709(87.4)	3,288(12.6)
1982	62,301	48,950(78.6)	13,351(21.4)
1984	101,213	84,127(83.1)	17,086(16.9)
1986	143,755	103,242(71.8)	40,513(28.2)

資料: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1983, 1987.

## 2) 觀光產業의 現況

觀光產業은 “觀光客의 要求를 충족시켜주는 기능을 가진 經濟의 一部”<sup>14)</sup>로서 觀光經濟에 대처하는 기본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觀光產業은 觀光事業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諸營業의 총체 또는 觀光客에게 다양한 觀光行動에 대응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營業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濟州道の 觀光產業은 1960年代 이후 적극적인 觀光開發事業과 대목적인 觀光需要의 증가에 힘입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그 實績은 전술한 觀光客數, 觀光收入 등의 증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른 地域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관광산업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大小의 각종 業種을 광범위하게 망라하고 있다. 실제로 觀光產業의 종류는 200여종이 넘을 정도로 다종다양하여 획일적으로 분류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本 研究에서는 地域的인 特性의 고려와 客觀的인 分析의 필요성, 이용통계의 제약성

14) A. J. Burkart, S. Medlik, "Tourism: Past, Present and Future," Second Edition, Heineman: London, 1981, p.63.

등 때문에 그 범주를 6가지 구분하여 濟州道 觀光産業의 現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宿泊業: 宿泊業은 觀光客에게 주로 宿食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目的地에 的의 滞在를 가능케 하는 시설을 말한다.

觀光産業의 추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濟州道の 宿泊業은 매년 증가하여 1986年末 현재 총 업체수가 468 個所(民泊 제외)로 객실수 9,010 室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類型別로 살펴보면 觀光호텔이 13 個所에 2,151 室(23.9%), 一般호텔 29 個所에 1,120 室(12.4%), 여관 202 個所 3,435 室(38.1%), 여인숙 224 個所에 2,304 室(25.6%)로 低級宿泊業所인 여관 및 여인숙이 전체의 63.7%를 차지하고 있다. <表Ⅳ-5>에서 보는 바와 같이 宿泊業所의 總數는 매년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 客室數에 있어서도 6年間 약 1.9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80年度 이후 觀光호텔 등 高級宿泊業所의 增加率이 매우 높아 宿泊施設의 전반적인 質的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다

<表Ⅳ-5> 宿泊業所 推移

구 분	합 계		관광호텔 <sup>1)</sup>		일반호텔		여 관		여 인 숙	
	업체수	객실수	업체수	객실수	업체수	객실수	업체수	객실수	업체수	객실수
1980 <sup>2)</sup>	314 (100)	4,807 (100)	4 (1.3)	483 (10.0)	-	-	154 (49.0)	2,798 (58.2)	156 (49.7)	1,526 (31.7)
1983	381 (100)	6,573 (100)	8 (2.1)	1,181 (18.0)	16 (4.2)	644 (9.8)	149 (39.1)	2,674 (40.7)	208 (54.6)	2,074 (31.6)
1986	468 (100)	9,010 (100)	13 (2.8)	2,151 (23.9)	29 (6.2)	1,120 (12.4)	202 (43.2)	3,435 (38.1)	224 (47.9)	2,304 (25.6)

註: 1) 관광호텔에 휴양콘도미니엄 포함.

2) 일반호텔, 여관에 포함됨.

3) ( )내는 구성비임.

資料: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1983, 1987.

② 旅客運輸業: 濟州道内에서 觀光客의 輸送을 담당하고 있는 여객운수업은 운송수단별로 觀光전세버스, 택시, 렌트카, 市·内外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旅客運輸業도 觀光客의 증가와 더불어 업체수와 차량 보유대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1986年末 현재 각각 48 個業體, 2,153 대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버스가 763 대(觀光전세버스 251 대, 시내·외버스 512 대)로 觀光客 輸送力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택시와 렌트카는 각각 1,285 대와 105 대의 차량을 보유하여 주로 新婚여행객과 가족여행객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1980年 이후의 각 運送手段別로 그 保有推移를 보면 렌트카의 年平均 33.3%의 증가율로 가장 두드러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에 新婚여행객과 가족단위, 소규모 단

체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렌트카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또한 렌트카와 더불어 관광객을 주로 수송하는 관광전세버스도 冷暖房施設의 설치와 차량구조의 개선 등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며, 1980년에 年平均 9.0%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 이외에 觀光客 利用度가 높은 택시도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表Ⅳ-6〉 旅客運輸業體 推移

연도별	업종별		합 계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택 시		렌 트 카	
	업체 수	보유 대수	업체 수	보유 대수	업체 수	보유 대수	업체 수	보유 대수	업체 수	보유 대수	업체 수	보유 대수	업체 수	보유 대수
1980	33	1,231	3	137	7	215	5	152	17	697	1	30		
1983	48	1,688	5	193	7	225	5	176	30	1,064	1	30		
1986	48	2,153	5(5)	259	6(1)	253	5	251	30	1,285	2	105		
年平均 增加率 (%)	6.8	8.3	11.2	11.7	2.8	2.7	0	9.0	10.6	8.1	16.7	33.3		

註： ( ) 内는 시내, 시외 중복 업체수임.

資料：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1983, 1987.

③ 旅行業： 旅行業은 여행자를 위하여 運送施設, 宿泊施設 기타 旅行에 부수되는 施設의 이용의 알선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業으로서 國際旅行斡旋業, 國內旅行斡旋業, 旅行代理店業으로 구분된다.<sup>15)</sup>

濟州道内の 國際旅行斡旋業體는 道内に 本社를 두고 있는 業體가 1987年 6月 현재 1個業體에 불과하며, 서울 등 대도시에 主事業場을 둔 채 營業所만을 개설하고 있는 業體가 1980年 이래 8개업체 수준에서 1986년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 반면에 國內旅行斡旋業體는 〈表Ⅳ-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에 1個業體에 불과했으나 1982年度에 許可制에서 登錄制로 完備되면서 業體數가 대폭 증가하여 1986年末 현재 11개업체로 年平均 增加率이 94.8%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業體가 유지한 觀光客數는 來道觀光客의 약 10% 수준을 점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상은 道内の 國內여행 알선업체들이 기존시장의 거래질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행알선업무의 취급대상지역 제한 등으로 대도시 觀光客送出市場에 위치한 여행사들의 소매점 역할에 머물러 있어 利益率이 저조하고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5) 1987年 7月 7日부터 시행되는 觀光振興法에서는 旅行業의 종류를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구분함(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참조).

〈表Ⅳ-7〉 旅行業體 推移

(단위: 개소)

연도별	구분	국내여행알선업		국제여행알선업	
		제주도	전국	제주도	전국
1980		1	198	8	24
1983		7	614	8	79
1986		11	697	7	88
年平均 增加率		94.8		-2.1	

註: (1) 국내여행 알선업에는 여행대리점업 포함.

(2) 국제여행 알선업에는 영업소 포함.

資料: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1987.

교통부·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1981, 1984, 1987.

④ 觀光客利用施設業: 觀光客利用施設業<sup>16)</sup>은 觀光客을 위하여 운동, 오락, 음식 또는 휴양 등에 적합한 施設을 갖추어 觀光客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慰樂觀光客의 유치 및 觀光 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다.

〈表Ⅳ-8〉에서 보는 바와 같이 濟州道の 觀光客利用施設 現況은 1986年末 현재 종합휴양업 3개업체, 골프장업 2개업체, 유흥음식점업 4개업체 등 모두 9개 업체가 있다. 이들 업체를 地域別로 보면 종합휴양업은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이외의 시설은 주로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다.

〈表Ⅳ-8〉 觀光客利用施設業 推移

(단위: 개소)

연도별	구분	합계	골프장업	종합휴양업	유흥음식점업	관광사진업
1983	11	1	1	4	5	
1986	9	2	3	4	-	

資料: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1983, 1987.

⑤ 食品接客業: 觀光活動에 필수적이며 觀光動機의 주된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는 食飲料를

16) 觀光振興法(1987年 7月 7日부터 시행)에서는 觀光客利用施設業의 종류를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골프장업, 관광음식점업,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主商品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주도의 食品接客業體는 1986年末 현재 총 3,019개소에 이르고 있다. <表Ⅳ-9>에서 業種別로 살펴보면 대중음식점이 1,947개소로 전체의 64.5%를 점하여 가장 많고, 이어서 다방업이 16.1%, 유흥음식점 13.2%, 과자영업점 5.6%, 휴게실 0.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地域別 分布는 대부분이 人口가 많고 숙박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濟州市와 西歸浦市에 편중되어 있다.

<表Ⅳ-9> 食品接客業所 現況 (1986年)

(단위: 개소)

구분 지역별	계	대중음식점	유흥음식점	과자영업점	다 방 업	휴 게 실
계 (%)	3,019(100.0)	1,947(64.5)	398(13.2)	169(5.6)	487(16.1)	18(0.1)
제 주 시	1,848	1,211	260	86	283	8
서귀포시	609	393	81	32	98	5
북제주군	277	166	29	25	52	5
남제주군	285	177	28	26	54	-

註: ( ) 내는 구성비임

資料: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1987.

⑥ 觀光土產品販賣業: 記念品 등 觀光客을 대상으로 각종 濟州道の 特産物을 판매하는 업체는 <表Ⅳ-10>과 같이 1985年末 현재 관광기념품판매업 118개업체, 외국인 전용 면세점 2개업체, 관광농원 13개업체 등 총 133개 업체이다. 地域別로는 제주시에 78개업체, 서귀포시 30개업체, 북제주군 7개업체, 남제주군 18개업체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 이외에도 관광객들이 제주도 特産物을 구입하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상설시장, 백화점, 일반상가, 오일시장 등이 있다.

<表Ⅳ-10> 觀光土產品販賣業 現況 (1985年)

(단위: 개소)

구분 지역별	계	기념품판매업	외국인전용면세점	관 광 농 원
계	133	118	2	13
제 주 시	78	76	2	-
서귀포시	30	18	-	12
북제주군	7	7	-	-
남제주군	18	17	-	1

資料: 제주도 관광과, 1986.

이들 업체들은 제주도의 각종 地域特産物에 대한 쇼핑觀光에 큰 기여를 하고 있기는 하나 新商品 開發의 부진과 상거래질서의 문란 등으로 國內·外觀光客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많은 소외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 2. 濟州道 來道觀光客의 動向分析 및 觀光費用 分析

### 1) 調査分析의 方法

#### ① 調査分析의 目的

本 調査研究에서는 濟州道를 방문하는 國內·外 觀光客을 대상으로 한 設文調査의 분석결과와 國內의 기존자료의 보충을 통하여 來訪客의 性向 및 旅行費用支出構造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조사대상자의 社會構造的 變數들을 부차적으로 적용하여 濟州道の 觀光動向을 전망하고자 한다. 이는 濟州道の 각종 觀光開發事業과 觀光産業振興이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 합당한 觀光政策의 對案을 모색함과 아울러 건전한 觀光發展 方向 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 ② 調査日時 및 對象範圍

調査期間은 '1987年 7月 27日부터 7月 29日까지 3일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2차에 나누어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1차조사는 1987年 8月 3日부터 8月 14日까지, 2차조사는 同年 9月 29日부터 10月 10日까지 도합 24일간 실시하였다.

調査對象者는 濟州道를 방문하는 內·外國人 觀光客 610名(내국인 460명, 외국인 150명)였으며, 調査地域은 內國人的 경우에는 제주국제공항 및 제주 항만터미널, 외국인은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위치한 각종 숙박업체이다.

#### ③ 調査方法

調査方法은 內國人 觀光客의 경우 設問紙에 의해 사전에 훈련된 조사가원이 조사대상자에게 調査의 目的과 內容을 설명하고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個人的 自己記述法을 사용하였으며, 外國人 觀光客의 설문에 대해서는 숙박업체의 프론트 데스크에 미리 비치해 둔 설문지에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국문판, 일문판 및 영문판 세가지를 사용하였다.

本 調査의 基準표本수는 내국인 관광객 460매, 외국인 관광객 150매로 총 610매였으나, 회수된 표본수는 내국인 416매, 외국인 91매로 총 507매였다. 이와같이 회수된 507매 표본에 대한 검색결과 응답 누락항목이 있거나 자격요건 등에 오류가 있는 표본 24매(내국인 8매, 외국인 16매)를 제외한 나머지 483매를 최종 有效標本으로 확정함으로써 總有效回收率은 79.2%에 이르렀다.

## ④ 分析方法

확정된 有效標本은 부호화(coding), 천공(punching), 오류검증 등 일련의 자료처리 절차를 거쳐, 제주대학교 전자계산소의 IBM컴퓨터시스템에서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단순빈도 분포와 백분율을 계산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후 變數間 交叉分析과 필요한 경우에는  $\chi^2$ 검증 등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 ⑤ 調查對象者의 一般的 性格

本 調査에서 나타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表IV-11>과 같이 나타났다.

內國人 응답자의 性別分布는 남녀 각각 72.1%와 27.9%로서 표본구성이 남자에 너무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年齡別로는 29세 이하가 63.5%, 30대가 21.8%로 39세 이하가 전체의 85.3%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정 연령층에 표본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본 조사의 응답자가 신혼부부와 학생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職業別分布는 사무·기술직이 32.8%로 가장 많고, 무직이 1.0%로 가장 적다. 教育水準에 따라서는 대졸이 56.4%로 가장 많으며, 고졸 25.7%, 대재 13.2%, 중졸 이하 4.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所得水準別分布는 月平均 30~40萬원이 전체의 26.0%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50~60萬원이 10.3%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으나 소득수준별 표본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內國人 觀光客의 訪問횟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제주도는 처음으로 찾아온 관광객이 전체의 64.5%로 가장 많으며, 4회가 2.5%로 가장 적다. 旅行日程別로는 2박3일이 50.0%로 응답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3박4일 28.2%, 4박5일 11.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의 同行形態는 부부가 56.1%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에는 친구·친지 15.2%, 가족단위 14.0%, 직장·사회단체 6.1%, 혼자서 5.9% 등의 순을 보이고 있고, 旅行形態別分布는 個別旅行이 69.1%로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

外國人의 경우 응답자의 남녀비율은 각각 74.7%, 25.3%로 內國人의 남녀간 표본구성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年齡別로는 29세 이하가 32.0%로 가장 많고, 40~49세가 18.7%로 가장 낮아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職業別分布는 內國人과 마찬가지로 사무·기술직이 21.3%로 가장 많으며, 학생과 무직인 경우에는 각각 1.3%에 불과하다. 教育水準에 따른 分布도 內國人의 경우와 비슷하며, 所得水準別로는 月平均 50萬원 이상이 68.0% (50~60萬원 20.0%, 60萬원 이상 48.0%)나 되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外國人 응답자의 방문횟수에 따른 분포는 제주도를 처음으로 찾아온 觀光客이 전체의 80.0%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旅行日程別로는 內國人과는 달리 3박4일이

〈表IV-11〉 調査對象者の 一般的 性格

구 성 별	분 부	내 국 인		외 국 인		계		
		응답자수 (명)	구성비 (%)	응답자수 (명)	구성비 (%)	응답자수 (명)	구성비 (%)	
	계	408	100.0	75	100.0	483	100.0	
	남 여	294 114	72.1 27.9	56 19	74.7 25.3	350 133	72.5 27.5	
연령 별	29 세 이 하	259	63.5	24	32.0	283	58.6	
	30 ~ 39 세	89	21.8	15	20.0	104	21.5	
	40 ~ 49 세	37	9.1	14	18.7	51	10.6	
	50 세 이 상	23	5.6	16	21.4	39	8.1	
	무 응 답			6	8.0	6	1.2	
직 업 별	농림·어업	5	1.2	-	-	5	1.0	
	자영업	18	4.4	13	17.3	31	6.4	
	판매·서비스직	34	8.3	5	6.7	39	8.1	
	기능·작업직	14	3.4	7	9.3	21	4.3	
	사무·기술직	134	32.8	16	21.3	150	31.1	
	경영·관리직	24	5.9	8	10.7	32	6.6	
	전문·자유	72	17.6	12	16.0	84	17.4	
	주부	42	10.3	3	4.0	45	9.3	
	학생	55	13.5	1	1.3	56	11.6	
	직무	4	1.0	1	1.3	5	1.0	
	무 응 답							
		6	1.5	9	12.0	15	3.1	
	교육수준 별	졸이	17	4.2	1	1.3	18	3.7
		고출	105	25.7	17	22.7	122	25.3
		대재	54	13.2	1	1.3	55	11.4
대상		230	56.4	43	57.3	273	56.5	
무 응 답		2	0.5	13	17.3	15	3.1	



소득수준별	20만 원 이하	69	17.0	2	2.6	71	14.7
	20~30만 원	45	11.0	5	6.7	50	10.4
	30~40만 원	106	26.0	10	13.3	116	24.0
	40~50만 원	61	15.0	6	8.3	67	13.9
	50~60만 원	42	10.3	15	20.0	57	11.8
	60만 원 이상	70	17.2	36	48.0	106	21.9
	무응답	15	3.7	1	1.3	16	3.3
방문횟수별	1회	263	64.5	60	80.0	323	66.9
	2회	82	20.1	8	10.7	90	18.6
	3회	32	7.8	1	1.3	33	6.8
	4회	10	2.5	4	5.3	14	2.9
	5회 이상	21	5.1	2	2.6	23	4.8
여행일장별	1박	8	2.0	2	2.7	10	2.1
	2박	204	50.0	24	32.0	228	47.2
	3박	115	28.2	28	37.3	143	29.6
	4박	45	11.0	9	12.0	54	11.2
	5박 이상	35	8.6	12	16.0	47	9.7
	무응답	1	0.2	-	-	1	0.2
동행형태별	혼자	24	5.9	7	9.3	31	6.4
	가족	229	56.1	10	13.3	239	49.5
	친구	57	14.0	23	30.7	80	16.6
	직장·사회단체	62	15.2	19	25.3	81	16.8
	여행사에의한단체여행	25	6.1	11	14.7	36	7.5
	무응답	8	2.0	2	2.7	10	2.1
		3	0.7	3	4.0	6	1.2
여행형태별	개별여행	282	69.1	52	69.3	334	69.2
	여행사의상품구입에의한여행	119	29.2	18	24.0	137	28.4
	무응답	7	1.7	5	6.7	12	2.5

37.3 %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에는 2박3일 32.0 %, 5박 이상 16.0 %, 4박5일 12.0 %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의 同行形態別 分布는 가족단위가 30.7 %로 가장 많고, 여행사에 의한 단체여행이 2.7 %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旅行形態에 따른 分布는 個別旅行이 69.3 %로 內國人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와같은 內·外國人 觀光客에 대한 調査對象者의 特性은 濟州道를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의 特性을 代表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표본조사기간내에 설문에 응한 관광객의 特性에 불과하다. 특히 調査期間이 8~9월에만 집중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설문에 응한 관광객의 다수가 신혼부부나 하계방학 및 휴가를 이용하는 여행자에 치우쳤다는 면이 없지 않다. 다만 여기서 나타난 特性이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一般的 性格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어 標本으로서의 代表性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 2) 觀光動向 分析

### ① 旅行目的

旅行活動은 관광 및 위락활동 등 순수한 觀光目的의 여행과 가사 및 귀향활동 그리고 觀光과 其他業務를 겸한 여행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現代人은 간혹 旅行을 지나치게 뚜렷한 目的없이 단순히 時間이나 보내는 기회로 삼고, 바람직한 旅行活動을 통해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으려 하지 않는 데에서 사회에 각종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濟州道를 방문한 觀光客의 旅行目的을 살펴보면 <表IV-12>와 같다. 內·外國人 모두가 순수관광목적이 단연 많고, 그 이외에는 방문, 업무출장, 종교·문화, 상용 등의 순으로 구분되고 있다.

㉞ 內國人的 旅行目的을 性別로 보면 남자가 방문·업무출장, 종교·문화 등에서 여자보다 다소 높은 비율의 응답을 나타내고 있으나, 순수관광목적의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경우 남자들이 주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業務를 겸한 관광여행이 많이 행해진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상용목적의 여행에 대한 응답자가 全無하다는 사실은 매우 특이하다.

年齡別로는 29세 이하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관광목적에 다소 높게 응답하고 있으며, 방문목적에는 50세 이상, 종교·문화에는 40~49세, 업무출장에는 30~39세가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다.

旅行의 目的을 職業別로 보면 순수관광목적이 기능·작업직과 무직, 주부, 사무·기술직, 판매·서어비스직, 학생 순으로 높고, 방문의 경우 농림·어업, 자영업, 경영·관리직 등의

순으로 응답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업무출장에는 경영·관리직 8.3%, 판매·서비스직 5.9% 등이고, 종교·문화는 전문·자유직이 16.7%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教育水準別로는 교육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旅行目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중졸 이하인 경우에는 응답자 전원이 관광목적에만 응답하고 있고, 고졸은 관광목적 92.4%, 방문 4.8%, 업무출장 2.9% 등으로 응답하고 있다. 대졸은 관광목적 88.9%, 종교·문화 7.4%, 방문 3.7%이고, 대졸 이상은 관광목적 91.3%, 방문 3.9%, 업무출장 3.5%, 종교·문화 1.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 外國人의 旅行目的도 內國人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性別로 살펴보면 남자는 순수관광이 87.5%, 방문, 상용과 업무출장이 각각 3.6%, 종교·문화가 1.8%의 응답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여자는 순수관광과 종교·문화가 남자보다 다소 많은 92.3%와 7.7%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年齡別로는 29세 이하와 50세 이상이 순수관광에 보다 높게 응답하고 있고, 30~39세는 업무출장과 방문에 대해서 다른 연령층보다 다소 높게 응답하고 있다. 40~49세의 경우에는 상용과 종교·문화에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職業別로는 순수관광에 자영업, 사무·기술직, 주부 등이 다른 직업보다 높게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방문에는 판매·서비스직과 전문·자유직, 상용에는 경영·관리직과 전문·자유직, 업무출장에서는 판매·서비스직과 기능·작업직에서 높게 나타나고, 종교·문화에는 전문·자유직이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내고 있다.

教育水準別로 旅行目的을 살펴보면 순수관광을 제외하고 대졸 이상은 방문, 상용에 각각 4.7%, 종교·문화에 2.3%의 응답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고졸인 경우에는 업무출장에 11.8%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응답자의 旅行의 目的이 內·外國人 모두 순수관광목적에 90% 内外의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旅行者의 대다수가 순수관광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 ② 旅行動機

㉞ 內國人이 濟州道를 찾아오게 된 動機는 친구·친지와 여행사의 권유가 각각 29.4%와 19.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表Ⅳ-13〉에서 性別로 來訪客의 여행동기를 살펴보면 별 유의한 差異가 없으나 남자가 지난 번의 제주도 여행에서 인상이 깊었기 때문에와 기타에서 여자보다 다소 높게 응답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응답하고 있다.

年齡別로는 언론매체에 의한 여행동기가 젊은 층일수록 응답비율이 높은 반면에 지난 번의

〈表IV-12〉 旅行目的

구	분	계 (명)		관		방		문		상		용		업무출장		(단위: %)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종교·문화	
		(명)	(명)	(%)	(%)	(명)	(명)	(%)	(%)	(명)	(명)	(%)	(%)	(명)	(명)	(%)	(%)		
성	별	계 (명)		408	75	374	67	16	2	-	-	2	11	7	2	1.7	2.7		
				(100.0)	(100.0)	(91.7)	(89.5)	(3.9)	(2.7)			(2.7)	(2.7)	(1.7)	(2.7)				
연	령	별	남	294	56	90.1	87.5	4.1	3.6	-	-	3.6	3.4	2.4	3.6	-	1.8		
				(100.0)	(100.0)														
			여	114	13	95.6	92.3	3.5	-	-	-	-	-	0.9	-	-	7.7		
				(100.0)	(100.0)														
29	세	이	하	249	24	94.4	95.8	2.8	-	-	-	4.2	0.8	2.0	-	-			
				(100.0)	(100.0)														
				89	15	87.6	80.0	3.4	6.7	-	-	-	-	-	7.9	13.3	1.1	-	
				(100.0)	(100.0)														
40	세	이	상	37	14	89.2	85.7	5.4	-	-	-	7.1	2.7	2.7	-	7.1			
				(100.0)	(100.0)														
50	세	이	상	23	16	85.0	87.5	10.0	6.3	-	-	-	5.0	-	-	6.3			
				(100.0)	(100.0)														
농	림	·	어	업	5	-	80.0	-	20.0	-	-	-	-	-	-	-	-		
					(100.0)	(100.0)													
자	영	업		18	13	88.9	100.0	11.1	-	-	-	-	-	-	-	-	-		
			(100.0)	(100.0)															
관	매	·	서	비	스	직	34	5	91.2	60.0	2.9	20.0	-	5.9	20.3	-	-		
							(100.0)	(100.0)											
기	능	·	작	업	직	14	7	100.0	85.7	-	-	-	-	-	14.3	-	-		
						(100.0)	(100.0)												
사	무	·	기	술	직	134	16	94.8	100.0	2.2	-	-	3.0	-	-	-	-		
						(100.0)	(100.0)												
경	영	·	관	리	직	24	8	83.3	87.5	8.3	-	-	12.5	-	-	-	-		
						(100.0)	(100.0)												

전문·자유직	72 (100.0)	12 (100.0)	86.1	66.7	5.6	8.3	-	8.3	4.2	-	4.2	16.7
주부	42 (100.0)	3 (100.0)	97.6	100.0	2.4	-	-	-	-	-	-	-
학생	55 (100.0)	1 (100.0)	89.1	100.0	3.6	-	-	-	7.3	-	-	-
무직	4 (100.0)	1 (100.0)	100.0	100.0	-	-	-	-	-	-	-	-
중졸이하	17 (100.0)	1 (100.0)	100.0	100.0	-	-	-	-	-	-	-	-
고졸	105 (100.0)	17 (100.0)	92.4	88.2	4.8	-	-	2.9	11.8	-	-	-
대재	54 (100.0)	1 (100.0)	88.9	100.2	3.7	-	-	-	7.4	-	-	-
대졸이상	230 (100.0)	43 (100.0)	91.3	88.4	3.9	4.7	-	4.7	3.5	-	1.3	2.3
20만원이하	69 (100.0)	2 (100.0)	89.8	100.0	3.4	-	-	-	-	-	6.8	-
20~30만원	45 (100.0)	5 (100.0)	91.1	80.0	8.9	-	-	-	-	20.0	-	-
30~40만원	106 (100.0)	10 (100.0)	96.2	100.0	0.9	-	-	-	0.9	-	1.9	-
40~50만원	61 (100.0)	6 (100.0)	93.4	100.0	1.6	-	-	-	4.9	-	-	-
50~60만원	42 (100.0)	7 (100.0)	83.3	85.7	4.8	14.3	-	-	11.9	-	-	-
60만원이상	70 (100.0)	8 (100.0)	87.1	87.5	8.6	12.5	-	-	2.9	-	1.4	-

註: 무응답은 제외한 것임.

〈表IV-13〉 旅行動機

구	분	(단위 : %)													
		계 (명)		인문매체		여행사		친구·친지 등의 권유		관광안내자		지난번의 제주도 여행에서 받은 인상		기타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성별	계	408 (100.0)	75 (100.0)	34 (8.3)	6 (8.0)	79 (19.4)	15 (20.0)	120 (29.4)	28 (37.3)	14 (3.4)	20 (26.7)	59 (14.5)	-	97 (23.8)	6 (8.0)
	남	209 (100.0)	56 (100.0)	7.6	10.7	19.0	21.4	27.9	30.4	3.1	26.8	15.9	-	26.6	10.7
연령별	여	113 (100.0)	13 (100.0)	10.6	-	21.2	7.7	34.5	53.8	4.4	38.5	11.5	-	17.7	-
	29세 이하	255 (100.0)	24 (100.0)	9.8	4.2	20.4	8.3	34.5	45.8	3.5	37.5	9.8	-	31.0	4.2
	30 ~ 39세	88 (100.0)	15 (100.0)	9.1	13.3	19.3	20.0	18.2	13.3	3.4	33.3	21.6	-	28.4	20.0
	40 ~ 49세	37 (100.0)	14 (100.0)	-	7.1	13.5	21.4	24.3	35.7	5.4	28.6	29.7	-	27.0	7.1
직업	50세 이상	23 (100.0)	16 (100.0)	4.4	12.5	21.7	31.3	30.4	43.8	-	6.2	17.4	-	26.1	6.2
	농림·어업	5 (100.0)	-	-	-	20.0	-	40.4	-	-	-	20.0	-	20.0	-
직업	자영업	18 (100.0)	13 (100.0)	11.1	15.4	22.2	30.8	16.7	30.8	-	23.1	27.8	-	22.2	-
	판매·서비스직	34 (100.0)	5 (100.0)	5.9	-	20.6	-	35.3	40.0	-	20.0	14.7	-	23.5	40.0
직업	기능·작업직	14 (100.0)	7 (100.0)	7.1	14.3	57.1	14.3	7.1	28.6	-	28.6	7.1	-	21.4	14.3
	사무·기술직	132 (100.0)	16 (100.0)	10.6	-	23.5	6.3	25.8	50.0	4.5	37.5	11.4	-	24.2	6.3
직업	경영·관리직	24 (100.0)	8 (100.0)	4.2	12.5	20.8	37.5	4.2	37.5	4.2	12.5	25.0	-	41.7	-

별	전 문 · 자 유 직	71 (100.0)	12 (100.0)	5.6	8.3	11.3	16.7	36.6	25.0	4.2	33.3	15.5	-	26.8	16.7
	주 부	42 (100.0)	3 (100.0)	11.9	-	28.6	-	28.6	66.7	2.4	33.3	14.3	-	14.3	-
	학 생	53 (100.0)	1 (100.0)	9.4	100.0	3.8	-	47.2	-	3.8	-	15.1	-	20.8	-
	무 직	4 (100.0)	1 (100.0)	-	-	25.0	100.0	50.0	-	-	-	-	-	25.0	-
교육수준별	중 출 이 하	16 (100.0)	1 (100.0)	18.8	100.0	25.0	-	37.5	-	-	-	18.8	-	-	-
	고 출	104 (100.0)	17 (100.0)	9.6	11.8	34.6	17.6	25.0	35.3	3.8	23.5	9.6	-	17.3	11.8
	대 재	53 (100.0)	1 (100.0)	9.4	100.0	3.8	-	49.1	-	3.8	-	11.3	-	22.6	-
	대 출 이 상	228 (100.0)	43 (100.0)	7.0	4.7	15.4	18.6	27.2	39.5	3.5	27.9	17.5	-	29.4	9.3
소득수준별	20 만 원 이 하	67 (100.0)	2 (100.0)	9.0	50.0	9.0	-	47.8	50.0	3.0	-	11.9	-	19.4	-
	20 ~ 30 만 원	44 (100.0)	5 (100.0)	9.1	-	25.0	-	34.1	60.0	4.5	20.0	6.8	-	20.5	20.0
	30 ~ 40 만 원	106 (100.0)	10 (100.0)	11.3	-	31.1	40.0	26.4	20.0	2.8	30.0	8.5	-	19.8	10.0
	40 ~ 50 만 원	61 (100.0)	6 (100.0)	4.9	16.7	18.0	16.7	23.0	66.7	6.6	-	8.2	-	39.3	-
	50 ~ 60 만 원	42 (100.0)	7 (100.0)	9.5	14.3	19.0	14.3	21.4	28.6	2.4	28.6	23.8	-	23.8	14.3
	60 만 원 이 상	69 (100.0)	8 (100.0)	1.4	12.5	10.1	25.0	27.5	37.5	2.9	12.5	31.9	-	26.1	12.5

註: 무응답은 제외한 것임.

제주도 여행에서 인상이 깊었기 때문에는 연령층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행사의 권유는 29세 이하와 50세 이상이 각각 20.4%와 21.7%로 가장 높고, 친지·친구 등의 권유도 29세 이하와 50세 이상이 각각 34.5%와 30.4%로 가장 높게 응답하고 있다.

職業別로 살펴본 여행동기는 주부와 자영업이 언론매체에, 기능·작업직이 여행사의 권유, 무직과 학생이 친지·친구 등의 권유에 가장 높게 응답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관광안내책자는 사무·기술직, 지난 번의 제주도 여행에서 인상이 깊었기 때문에는 자영업과 경영·관리직 등 고소득층에서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教育水準別로는 친구·친지 등의 권유에 중졸 이하와 대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행사의 권유에는 고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언론매체와 지난 번의 제주도 여행에서 인상이 깊었기 때문에는 중졸 이하가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기타에는 대졸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所得水準別로는 20만원 이하가 언론매체, 30~40만원은 여행사의 권유, 그리고 20~30만원과 40~50만원의 경우에는 친지·친구 등의 권유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 번의 제주도 여행에서 인상이 깊었기 때문에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소득수준이 높은 응답자는 제주도를 2회 이상 방문한 여행자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④ 外國人의 여행동기도 <表IV-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內國人과 마찬가지로 친구·친지 등의 권유가 가장 높은 37.3%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이외에는 관광안내책자와 여행사의 권유가 각각 26.7%와 20.0%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性別로 살펴보면 남자는 언론매체와 여행사의 권유에서 여자보다 높게 반응하고 있으며, 여자는 친구·친지 등의 권유와 관광안내책자에서 남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年齡別로는 여행사의 권유에 따른 여행동기에 연령층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관광안내책자에는 젊은층일수록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언론매체는 30~39세, 친구·친지 등의 권유에는 29세 이하와 50세 이상이 각각 45.8%와 43.8%의 응답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職業別 여행동기의 분포는 학생의 경우 언론매체에, 경영·관리직과 자영업은 여행사의 권유에, 주부, 사무·기술직 그리고 판매·서비스직은 친구, 친지 등의 권유에 대해서 다른 직업보다 높은 응답을 하고 있다. 또한 관광안내책자에는 사무·기술직, 전문·자유직과 주부가 각각 37.5%와 33.3%의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다.

教育水準別로는 중졸 이하와 대재가 언론매체에 높게 응답하고 있으며, 고졸과 대졸인 경우에는 모두가 친구·친지 등의 권유와 관광안내책자, 여행사의 권유의 順으로 응답하고 있다.

所得水準別 여행동기는 언론매체에 20만원 이하, 여행사 30~40만원, 친구·친지 등의



권유 40 ~ 50 만원과 20 ~ 30 만원의 소득계층이 가장 높게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관광안내책자에는 30 ~ 40 만원과 50 ~ 60 만원의 소득계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다.

內·外國人 觀光客의 여행동기는 전체적으로 보아 친구·친지 등의 권유와 여행사의 권유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에 대한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來訪客에 대한 서어비스증진을 통한 口傳效果와 여행사의 적극적인 판매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③ 宿泊施設의 利用實態

宿泊施設은 旅行者에게 주로 수면과 음식에 관계되는 서어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행목적지에서의 滞在를 가능케 하는 시설을 말한다. 특히 濟州道는 陸地部와 멀리 떨어져 있어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宿泊觀光行態를 이루고 있다. 宿泊施設의 종류는 觀光振興法과 宿泊業法에 의하여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관광호텔, 일반호텔, 여관, 여인숙 등의 常時宿泊施設과 민박, 친구·친척대, 야영 등으로 구분하여 관광객의 숙박행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㉞ 內國人的 宿泊施設 利用現況은 <表IV-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內國人的 施設別 利用度는 일반호텔 34.2%, 관광호텔 33.2%, 여관 9.8%, 야영 8.2% 등의 順으로 응답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性別로 살펴보면 남자가 여관과 야영에서 여자보다 다소 높게 응답하고 있고, 여자는 관광호텔에 남자보다 높게 응답하고 있다. 그 이외에는 남녀간에 별 유의한 差異가 없다.

年齡別로는 29세 이하는 야영에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반면에 50세 이상은 관광호텔에 가장 낮은 응답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숙박시설 이용도를 職業別로 살펴보면 경영·관리직과 주부가 관광호텔에 다른 직업보다 다소 높게 반응하고 있으며, 자영업은 일반호텔과 여관에서 가장 높게 반응하고 있다. 또한 농림·어업은 여인숙과 민박 그리고 학생은 야영과 친구·친척집의 이용에 대해서 가장 높게 응답하고 있다.

教育水準別로는 대졸 이상이 관광호텔, 고졸이 일반호텔, 중졸 이하는 여관에 각각 40.2%, 45.0%, 35.3%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대제는 야영에 52.3%의 비율로 응답함으로써 학생인 경우 常時宿泊施設의 利用度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所得水準別로는 20만원 이하가 야영에 42.4로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제

〈表VI-14〉 宿泊施設 利用現況

(단위 : %)

구	분	계 (명)		관광호텔		일반호텔		여	관		여	인		숙	친구·친척		민	박		야	영		기	타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성	별	계 (명)		377	69	125	4	37	5	3	4	20	15	31	17	1								
				(100.0)	(100.0)	(33.2)	(5.8)	(9.8)	(7.2)	(0.8)	(5.8)	(5.3)	(4.0)	(8.2)	(4.5)	(1.4)								
연	령	남		270	56	30.0	5.4	11.1	5.4	1.1	3.6	4.1	3.7	10.7	4.4	1.8								
				(100.0)	(100.0)																			
연	령	여		107	13	41.1	7.7	6.5	15.4	-	15.4	8.4	4.7	1.9	4.7	-								
				(100.0)	(100.0)																			
연	령	29세 이하		235	24	37.0	8.3	3.8	12.5	1.3	12.5	5.5	4.3	11.5	5.1	-								
				(100.0)	(100.0)																			
		30 ~ 39 세		85	15	29.4	6.7	17.6	6.7	-	-	4.7	-	2.4	2.4	4.7	-							
				(100.0)	(100.0)																			
연	령	40 ~ 49 세		35	14	31.4	7.1	14.3	7.1	-	7.1	2.9	5.7	5.7	-									
				(100.0)	(100.0)																			
연	령	50 세 이상		22	16	9.1	36.4	-	36.4	-	-	9.1	4.5	-	4.5	6.3								
				(100.0)	(100.0)																			
직	업	농림·어업		5	-	20.0	-	-	-	20.0	-	-	20.0	20.0	-	-								
				(100.0)	(100.0)																			
직	업	자영업		18	13	5.6	100.0	27.8	-	-	-	-	5.6	-	-	-								
				(100.0)	(100.0)																			
직	업	판매·서비스직		32	5	37.5	80.0	43.8	20.0	12.5	-	3.1	-	-	-	-								
				(100.0)	(100.0)																			
직	업	기능·작업직		13	7	38.5	71.4	46.2	28.6	7.7	-	-	7.7	-	-	-								
				(100.0)	(100.0)																			
직	업	사무·기술직		124	16	31.5	75.0	41.9	6.3	9.7	12.5	4.0	4.0	4.0	1.6	-								
				(100.0)	(100.0)																			
직	업	경영·관리직		23	8	56.5	87.5	26.1	12.5	4.3	-	4.3	-	-	-	-								
				(100.0)	(100.0)																			

전문·자유직	68 (100.0)	12 (100.0)	36.8	50.0	30.9	16.7	10.3	20.0	2.9	16.7	7.4	-	4.4	-	1.5	-	1.1	8.3
주부	40 (100.0)	3 (100.0)	47.5	100.0	30.0	-	7.5	-	-	-	2.5	-	2.5	-	5.0	-	0.5	-
학생	45 (100.0)	1 (100.0)	13.3	100.0	13.3	-	4.4	-	-	-	13.3	-	4.4	-	48.9	-	0.3	-
무직	3 (100.0)	1 (100.0)	66.7	100.0	33.3	-	-	-	-	-	-	-	-	-	-	-	-	-
중출 이하	17 (100.0)	1 (100.0)	5.9	100.0	41.2	-	35.3	-	-	-	5.9	-	11.8	-	-	-	-	-
고졸	100 (100.0)	17 (100.0)	31.0	88.2	45.0	5.9	11.0	5.9	1.0	-	5.0	-	4.0	-	1.0	-	2.0	-
대재	44 (100.0)	1 (100.0)	13.6	100.0	11.4	-	4.5	-	-	-	11.4	-	4.5	-	52.3	-	2.3	-
대졸 이상	214 (100.0)	43 (100.0)	40.2	76.7	33.2	7.0	8.4	7.0	0.9	9.3	4.2	-	3.3	-	3.3	-	6.5	-
20만원 이하	59 (100.0)	2 (100.0)	18.6	50.0	16.9	50.0	3.4	-	-	-	11.9	-	3.4	-	42.4	-	1.7	-
20~30만원	42 (100.0)	5 (100.0)	23.8	80.0	47.6	20.0	11.9	-	-	-	4.8	-	7.1	-	-	-	4.8	-
30~40만원	100 (100.0)	10 (100.0)	42.0	100.0	38.0	-	8.0	-	1.0	-	2.0	-	5.0	-	1.0	-	3.0	-
40~50만원	54 (100.0)	6 (100.0)	37.0	100.0	37.0	-	16.7	-	-	-	-	-	-	-	1.9	-	7.4	-
50~60만원	42 (100.0)	7 (100.0)	38.1	100.0	33.3	-	16.7	-	-	-	2.4	-	4.8	-	2.4	-	2.4	-
60만원 이상	65 (100.0)	8 (100.0)	30.8	100.0	33.8	-	7.7	-	3.1	-	10.8	-	3.1	-	3.1	-	7.7	-

註: 무응답은 제외 한 것임.

외하고는 소득층간의 별 유의한 차이가 없다.

㉞ 外國人의 숙박시설 이용은 관광호텔에 응답자의 79.7%가 응답하여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호텔, 여관, 여인숙 등은 비슷한 응답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이외의 시설에 대한 응답자는 全無하다.

이를 性別로 살펴보면 남자는 관광호텔에서 여자보다 높게, 여자는 여관과 여인숙에서 남자보다 높게 응답하고 있다.

年齡別로는 內國人과는 달리 50세 이상이 관광호텔에 가장 높게 응답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는 별 유의한 차이가 없다.

職業別로는 판매·서비스직과 전문·자유직이 일반호텔에 각각 20.0%와 16.7%의 응답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능·작업직은 여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내고 있고, 자영업과 주부 등은 응답자 모두가 관광호텔을 이용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教育水準別 숙박시설 이용도는 별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所得水準別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관광호텔 이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內國人은 일반호텔과 관광호텔, 外國人은 관광호텔 이용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高級宿泊施設의 利用度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조사기간과 조사대상에 대한 제한으로 표본구성이 다소 미흡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 ④ 飲食店施設의 利用度

飲食業은 모든 觀光行動에 대처하는 것은 아니지만 觀光産業의 일부로서 觀光事業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이로써 얻어지는 地域收入도 큰 것이다.<sup>17)</sup>

본 조사에서는 食品衛生法 등에 의한 飲食店 업종별 구분에 의하지 않고, 실무적인 편의에 의하여 관광객의 食事場所에 따라 <表Ⅳ-15>와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누어 관광객의 이용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㉟ <表Ⅳ-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內國人은 食事하는 곳으로 호텔식당, 일반음식점, 자취, 친구·친척택의 순으로 높게 나타내고 있다.

性別로 食事하는 場所를 살펴보았을 때에는 별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年齡別로는 50세 이상이 일반음식점에 가장 높게, 호텔식당에 가장 낮게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29세 이하는

17) 末武直義, 觀光事業論, 法律文化社, 1984, p.127.

자취에서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職業別로는 학생과 농림·어업자가 자취에 각각 51.9%와 40.0%, 자영업이 일반음식점에 46.2%, 기능·작업직이 호텔식당에 71.4%, 농림·어업자가 민가에 20.0%로 각각 제일 높게 나타났다.

所得水準別로는 비교적 소득이 높을수록 호텔식당과 일반음식점 이용도가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자취와 친구·친척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㉔ 外國人이 이용하는 食事場所는 <表Ⅳ-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일반음식점과 호텔식당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性別로 살펴보면 별 유의한 差가 없으며, 年齡別로는 29세 이하가 일반음식점, 30~39세는 호텔식당에 가장 높게 응답하고 있다. 한편 40~49세와 50세 이상은 친구·친척택에 대한 응답비율을 각각 7.1%와 6.3%나 보이고 있어, 응답자 중에는 교포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職業別 食事場所를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에는 전문·자유직, 친구·친척택에는 자영업과 사무·기술직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호텔식당에는 전문·자유직과 사무·기술직이 각각 25.0%와 28.6%로 가장 낮게 응답하고 있다.

教育水準別로는 대졸인 경우 관광호텔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고졸은 일반음식점을 대졸보다 많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所得水準別로 관광객의 食事場所를 살펴보았을 때에는 별 유의한 差를 발견할 수 없었다.

#### ㉕ 道内 交通手段利用의 現況

최근 택시, 버스 등의 陸上交通手段은 늘어나고 있는 觀光客과 함께 급속히 보급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道内交通手段으로서 自動車가 유일하게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㉖ 內國人 觀光客이 道内에서 이용하는 交通手段은 <表Ⅳ-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택시와 관광전세버스로 각각 응답자의 35.3%와 33.8%의 이용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 이외에는 시내·외버스 16.1%, 렌트카 10.2% 등의 순으로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다.

交通手段別 利用度에 대한 性別分布는 남자가 시내·외버스에 여자보다 응답률이 높고, 여자는 택시에서 남자보다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年齡別로는 연령층이 높을수록 관광전세버스에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29세 이하의 시내·외버스에, 그리고 40~49세는 렌트카에 다른 연령층에 비해 다소 높게 응답하고 있다.

〈表IV-15〉 飲食店 施設의 利用現況

구	성 별	구 계 (명)	제 (명)		일반음식점		호텔식당		친구·친척		민 가		차 취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연 령 별	남 여	29 세 이 하	401 (100.0)	67 (100.0)	148 (36.9)	35 (55.2)	180 (44.9)	30 (44.8)	17 (4.2)	2 (3.0)	8 (2.0)	-	48 (12.0)	-
		30 ~ 39 세	293 (100.0)	56 (100.0)	37.9	50.0	43.0	48.2	3.4	1.8	2.0	-	13.7	-
연 령 별	남 여	40 ~ 49 세	108 (100.0)	11 (100.0)	34.3	54.5	50.0	45.5	6.5	-	1.9	-	7.4	-
		50 세 이 상	252 (100.0)	22 (100.0)	32.1	63.6	45.6	36.4	4.4	-	2.4	-	15.5	-
직 업	농림·어업 자 영 업	29 세 이 하	89 (100.0)	15 (100.0)	44.9	33.3	44.9	66.7	4.5	-	1.1	-	4.5	-
		30 ~ 39 세	37 (100.0)	14 (100.0)	37.8	50.0	48.6	42.9	-	7.1	2.7	-	10.8	-
직 업	판매·서비스직 기능·작업직 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	40 ~ 49 세	23 (100.0)	16 (100.0)	56.5	56.3	30.4	37.5	8.7	6.3	-	-	4.3	-
		50 세 이 상	5 (100.0)	-	-	-	40.0	-	-	-	20.0	-	40.0	-
직 업	판매·서비스직 기능·작업직 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	29 세 이 하	18 (100.0)	13 (100.0)	55.6	46.2	38.9	46.2	-	7.7	5.6	-	-	-
		30 ~ 39 세	33 (100.0)	5 (100.0)	42.4	60.0	48.5	40.0	3.0	-	3.0	-	3.0	-
직 업	판매·서비스직 기능·작업직 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	40 ~ 49 세	14 (100.0)	7 (100.0)	28.6	28.6	64.3	71.4	-	-	-	-	7.1	-
		50 세 이 상	132 (100.0)	14 (100.0)	32.6	64.3	55.3	28.6	3.8	7.1	1.5	-	6.8	-
직 업	판매·서비스직 기능·작업직 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	29 세 이 하	24 (100.0)	8 (100.0)	45.8	50.0	50.0	50.0	-	-	-	-	4.2	-
		30 ~ 39 세	-	-	-	-	-	-	-	-	-	-	-	-

별	전문·자유지	71 (100.0)	12 (100.0)	45.1	75.0	40.8	25.0	7.0	-	2.8	-	4.2	-
	주부	40 (100.0)	3 (100.0)	32.5	-	60.0	100.0	-	-	-	-	7.5	-
	학생	54 (100.0)	1 (100.0)	27.8	-	9.3	100.0	9.3	-	1.9	-	51.9	-
	무지	4 (100.0)	1 (100.0)	50.0	-	50.0	100.0	-	-	-	-	-	-
교육수준별	중출이하	17 (100.0)	1 (100.0)	58.8	-	29.4	-	5.9	100.0	-	-	5.9	-
	고출	101 (100.0)	16 (100.0)	38.6	50.0	51.5	50.0	4.0	-	2.0	-	4.0	-
	대재	53 (100.0)	1 (100.0)	24.5	50.0	11.3	47.6	7.5	2.4	1.9	-	54.7	-
	대출이상	228 (100.0)	42 (100.0)	37.7	-	50.4	100.6	3.5	-	2.2	-	6.1	-
소득수준별	20만원이하	67 (100.0)	2 (100.0)	26.9	50.0	17.9	50.0	9.0	-	1.5	-	44.8	-
	20~30만원	44 (100.0)	4 (100.0)	36.4	75.0	50.0	25.0	4.5	-	4.5	-	4.5	-
	30~40만원	104 (100.0)	10 (100.0)	32.7	30.0	56.7	70.0	1.9	-	1.9	-	6.7	-
	40~50만원	60 (100.0)	6 (100.0)	43.3	33.3	53.3	50.0	-	16.7	1.7	-	1.7	-
	50~60만원	42 (100.0)	7 (100.0)	38.1	42.9	54.8	42.9	2.4	14.3	2.4	-	2.4	-
	60만원이상	70 (100.0)	8 (100.0)	44.3	62.5	37.1	37.5	8.6	-	1.4	-	8.6	-

註: 무응답은 제외한 것임.

〈表Ⅳ-16〉 道内 利用交通手段

(단위: %)

구	분	계 (명)		관광전세버스		택시		렌트카		시내·외버스		자가용승용차		기타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성별	계 (명)	459	91	155	24	162	44	47	6	74	11	13	4	9	2
		(100.0)	(100.0)	(33.8)	(26.4)	(35.3)	(48.4)	(10.2)	(16.1)	(12.1)	(2.8)	(4.4)	(2.0)	(2.2)	
성별	남	319	75	33.9	29.3	32.9	49.3	10.3	6.7	17.6	8	3.1	5.3	2.5	1.3
		(100.0)	(100.0)												
성별	여	140	16	33.6	12.5	40.7	43.8	10	6.3	12.9	31.3	2.9	-	0.7	6.3
		(100.0)	(100.0)												
연령별	29세 이하	293	27	30.7	22.2	34.8	44.4	8.9	-	19.8	25.9	2.7	3.7	3.0	3.7
	(100.0)	(100.0)													
	30 ~ 39세	99	23	37.4	26.1	38.4	47.8	10.1	21.7	10.1	-	0.4	4.3	-	-
	(100.0)	(100.0)													
연령별	40 ~ 49세	43	19	41.9	21.1	32.6	52.6	18.6	5.3	4.6	15.8	2.3	5.3	-	-
	(100.0)	(100.0)													
연령별	50세 이상	25	22	49.0	36.4	32	50.0	12.0	-	16.0	4.5	-	4.5	-	4.5
	(100.0)	(100.0)													
직업	농림·어업	5	-	40.0	-	-	-	-	-	60.0	-	-	-	-	-
	(100.0)	(100.0)													
직업	자영업	18	15	38.9	20.0	22.2	60.0	22.2	6.7	5.5	6.7	11.1	6.7	-	6.7
	(100.0)	(100.0)													
직업	판매·서비스직	40	6	27.6	33.3	52.5	50.0	5.0	-	12.5	-	-	16.7	-	-
	(100.0)	(100.0)													
직업	기능·작업직	15	11	66.7	27.3	20.0	27.3	6.7	27.3	6.7	9.1	-	9.1	-	-
	(100.0)	(100.0)													
직업	사무·기술직	150	20	42.0	20.0	35.3	50.0	8.7	5	10.0	20.0	3.3	-	0.7	5.0
	(100.0)	(100.0)													
직업	경영·관리직	26	11	26.9	36.4	50.0	45.5	15.4	-	7.7	9.1	-	9.1	-	-
	(100.0)	(100.0)													



별	전문·자유직	84 (100.0)	32.1	21.1	33.3	47.4	13.1	5.3	10.7	21.1	8.3	5.3	2.3	-
	주부	50 (100.0)	34.0	33.3	44.0	66.7	14.0	-	8.0	-	-	-	-	-
	학생	60 (100.0)	11.7	50.0	18.3	50.0	6.7	-	53.3	-	-	-	10.0	-
	무직	7 (100.0)	28.6	100.0	42.9	-	14.3	-	14.3	-	-	-	-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6 (100.0)	43.8	-	25.0	-	12.5	-	18.6	100.0	-	-	-	-
	고졸	120 (100.0)	45.0	38.9	33.3	44.4	7.5	-	13.3	5.6	6.8	5.6	-	5.6
	대졸	67 (100.0)	10.4	20.0	13.4	20.0	7.4	60.0	47.8	-	11.9	-	-	-
	대졸이상	255 (100.0)	33.7	23.0	42.4	52.5	12.2	1.6	0.9	14.8	5.3	6.6	-	1.6
소득수준별	20만원이하	76 (100.0)	14.5	25.0	21.1	50.0	10.6	-	43.4	25.0	2.6	-	-	7.8
	20~30만원	51 (100.0)	41.2	33.3	29.4	50.0	5.9	-	15.7	-	7.8	-	-	16.7
	30~40만원	119 (100.0)	50.4	30.8	31.9	69.2	6.7	-	9.2	-	1.7	-	-	-
	40~50만원	67 (100.0)	34.3	42.9	38.8	42.9	13.4	14.3	7.5	-	4.5	-	-	1.5
	50~60만원	45 (100.0)	33.3	30.0	40.0	50.0	11.1	-	11.1	10.0	2.2	10.0	2.2	-
	60만원이상	81 (100.0)	24.7	12.5	47.0	87.5	14.8	-	11.1	-	1.2	-	-	1.2

註: 1) 무응답은 제외한 것임.

2) 복수응답임.

交通手段別 利用率을 職業別로 살펴보았을 때, 관광전세버스는 기능·작업직, 택시는 판매·서어비스직과 기능·관리직, 렌트카는 자영업자, 시내·외버스는 학생과 농림·어업자, 자가용승용차는 자영업자와 전문·자유직 등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다.

教育水準別로는 대재의 경우 학생이기 때문에 시내·외버스 이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이외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택시와 렌트카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관광전세버스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所得水準別 交通手段別 利用度를 파악해 보면 20 만 이하는 시내·외버스에 43.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고, 30 ~ 40 만원은 관광전세버스에 50.4%의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60 만원 이상은 택시와 렌트카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이 저소득층은 시내·외버스, 중간소득층은 관광전세버스, 고소득층은 택시와 렌트카에 대한 이용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外國人 觀光客의 경우에는 <表Ⅳ-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內國人보다 택시이용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男女間에는 여자가 시내·외버스에 남자보다 높게 응답하고 있으나, 그 이외에는 남자가 높게 나타났다.

年齡別로 살펴본 利用交通手段은 연령층이 높을수록 택시에 높게 응답하고 있고, 29세 이하는 시내·외버스, 50세 이상은 관광전세버스, 30 ~ 39세는 렌트카에 각각 25.9%, 36.4%, 21.7%로 가장 높게 응답하고 있다.

職業別로는 경영·관리직이 관광전세버스에서, 자영업자와 주부가 택시에서, 기능·작업직이 렌트카에서, 그리고 사무·기술직이 시내·외버스에서 가장 높게 응답하고 있다. 또한 所得水準別로는 內國人的 경우와 유사한 교통수단 이용도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道內에서 利用한 交通手段은 內·外國人 觀光客 모두 연령층이 낮거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낮은 소득층일수록 시내·외버스와 관광전세버스에 대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반면에 연령층이 높거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높은 소득층일수록 택시와 렌트카의 이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⑥ 1次 産業分野에서 利用하고 싶은 施設

1次 産業과 관련된 각종 施設에 대하여 觀光客들이 利用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이와같은 施設의 개발에 따른 效果를 살펴보면 새로운 觀光機會의 창조, 都市人과 地域住民과의 交流, 教育과 理解의 場 제공, 그리고 農村所得의 增大 등을 들 수 있다.

제주도에서 이용 가능한 觀光農林漁業의 유형은 <表Ⅳ-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렵, 낚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이를 內·外國人別로 觀光客의 사회적 변수에 따라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㉞ 內國人 觀光客이 이용하고 싶어 하는 觀光農林漁業의 유형은 낚시 21.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어서 관광목장시설 18.5%, 식물원 학습 및 견학 15.8%, 어패류채취 12.3%, 수렵 11.7%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하고 있다.

이를 性別로 살펴보았을 때, 남자는 수렵과 낚시에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고, 여자는 식물원 학습 및 견학과 임산물 채취 등에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남자의 경우는 動的인 활동에 선호도가 높고, 여자는 비교적 靜的인 활동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年齡別로는 낚시에 50세 이상 36.4%, 과수 및 채소의 채취에 40~49세 9.0%, 관광목장시설에 29세 이하가 21.9%, 건강식품의 판매시설에 30~39세가 각각 다른 연령층에 비해 다소 높게 응답하고 있다.

農林水産業 分野의 시설에 대한 職業別 및 教育水準別 선호도를 살펴보면 統計的인 有意성을 발견할 수 없으며, 所得水準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이다.

㉟ 外國人 觀光客의 경우에 주로 이용하고 싶어 하는 觀光農林漁業의 유형도 內國人과 마찬가지로 낚시에 24.7%의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그 이외에는 관광목장시설 16.5%, 수렵 14.1%, 과수 및 채소의 채취와 식물원 학습 및 견학에 각각 10.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性別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內國人과 마찬가지로 낚시 27.9%, 수렵 17.6%로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고, 여자는 관광목장시설과 식물원 학습 및 견학에 각각 35.3%와 23.5%의 응답률로 남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年齡別로는 별 유의한 差를 발견할 수 없으며, 職業別로는 낚시에 기능·작업직, 과수 및 채소의 채취에 경영·관리직, 관광목장시설에 판매·서비스직, 식물원 학습 및 견학에 주부가 다른 직업보다 높게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教育水準과 所得水準에 따라서는 별 유의한 差가 없다.

전체적으로 보아 제주도를 방문하는 內·外國인들이 利用하고 싶어하는 1次 産業分野의 각종 시설은 낚시, 관광목장시설, 식물원 견학 및 학습 등을 들 수가 있겠다.



별	주	부	49 (100.0)	10.2	-	16.3	-	16.3	25.0	2.0	-	6.1	-	18.4	25.0	8.2	-	6.1	-	16.3	50.0
학	생		71 (100.0)	14.1	-	25.4	-	25.4	-	2.8	-	2.8	-	22.5	-	8.4	-	1.4	-	11.3	-
무	직		6 (100.0)	-	-	16.7	25.0	16.7	25.0	16.7	25.0	16.7	-	16.7	25.0	-	-	-	-	16.7	-
교	중	이	20 (100.0)	5.0	-	25.0	100.0	10.0	-	-	-	5.0	-	20.0	-	10.0	-	15.0	-	10.0	-
육	고	졸	112 (100.0)	8.0	17.4	23.2	21.7	12.5	13.0	4.5	8.7	4.5	-	17.9	13.0	8.0	13.0	5.4	4.3	16.1	8.7
수	대	졸	63 (100.0)	14.5	-	24.6	-	11.6	-	2.9	-	2.9	-	21.7	-	8.7	-	1.4	-	11.6	-
준	대	졸	278 (100.0)	12.9	14.8	20.1	24.1	12.6	7.4	2.1	9.3	3.6	-	18.0	16.7	4.3	5.6	9.0	11.1	17.2	11.1
별	20	이	88 (100.0)	12.5	-	21.6	-	11.4	-	3.4	-	2.3	-	22.7	100.0	10.2	-	2.3	-	13.6	-
소	만	하	50 (100.0)	6.0	33.3	18.0	-	14.0	-	4.0	-	4.0	-	24.0	33.3	4.0	33.3	2.0	-	24.0	-
득	~	30	126 (100.0)	11.9	7.1	17.5	21.4	15.9	7.1	2.4	7.1	3.2	-	22.2	28.6	4.8	-	9.5	14.2	12.7	14.2
수	만	만	70 (100.0)	14.3	40.0	27.1	40.0	10.0	-	-	-	4.3	-	14.3	-	4.3	20.0	5.7	-	20.0	-
준	~	50	48 (100.0)	10.4	11.1	16.7	22.2	6.3	11.1	-	11.1	2.1	-	18.8	11.1	8.3	11.1	16.7	11.1	20.8	11.1
별	만	만	83 (100.0)	14.5	11.1	27.7	22.2	10.8	22.1	6.0	11.1	4.8	-	9.6	11.1	3.6	11.1	9.6	11.1	13.3	-

註: 1) 무응답은 제외함 것임.  
2) 복수 응답임.

⑦ 農水産物 購入現況

濟州道の 第1次 産業 분야에서 生産되는 농수산물 중에서 觀光客들이 주로 구입하는 것은 감귤, 파인애플, 표고, 꿀 등의 봉산물, 그리고 해산물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内·外國人 觀光客의 일반적 성격에 따라 구입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㉞ <表Ⅳ-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内國人 觀光客이 道内에서 구입하는 농수산물은 파인애플이 응답자의 33.0%의 비중을 차지하여 가장 많으며, 그 이외에는 꿀 등의 봉산물 25.4%, 감귤 20.4%, 해산물 12.6%, 그리고 표고 8.6%의 순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응답자의 일반적 성격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별 유의한 差가 없다.

㉟ 外國人 觀光客의 경우에는 内國人과 달리 해산물에 28.6%의 응답률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파인애플과 봉산물에 각각 21.4%, 감귤 18.6%, 표고 10.0%의 순으로 구입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外國人 觀光客도 응답자의 일반적 성격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内國人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별 유의한 差가 없다.

⑧ 土産品 購入現況

土産品은 본래 消費가 지역적으로 한정되고 있던 것을 觀光商品化함으로써 그 産物이 지닌 가치를 再開發한 것이다. 이러한 土産品에 대한 購入動機는 다양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관광객에게 충분한 만족과 이점을 주는 것으로, 그 같은 土産品의 생산과 판매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土産品의 생산·판매에 의해 그 地域에 떨어지는 收益은 결코 적지 않아, 觀光開發 뿐만 아니라 地域經濟에 크게 공헌하는 地域産業이기 때문이다.

濟州道の 대표적인 觀光土産品은 食品과 工産品이 主宗을 이루며, 生産品目은 석제품, 패각제품 등을 주원료로 하는 돌하루방, 물허벅, 해녀상을 비롯 총 30여 종에 달하고 있다.<sup>18)</sup>

이들 土産品에 대한 内·外國人 觀光客의 일반적 성격에 따른 구입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㉞ 内國人 觀光客이 道内에서 購入한 土産品을 <表Ⅳ-19>에서 살펴보면 돌하루방 등의 석제품에 대한 응답률이 33.9%로 가장 많이 구입하고 있고, 이어서 정동제품, 식품, 산호제품, 기념타올 등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를 性別과 年齡別로 살펴볼 때 별 유의한 差가 없으나 職業別로는 전문·자유직과 사무·기술직이 석제품에 각각 42.9%와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자영업자는 산호제품, 기능·작업직은 식품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18) 濟州道, 觀光開發計劃(특정지역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제1권), 1985, p.95.

教育水準과 所得水準에 따른 土產品 구입현황은 별다른 統計的 有意性을 발견할 수 없다.

㉞ 外國人 觀光客의 경우에 土產品 購入現況은 식품에서 다소 높게 반응하고 있고, 그 이외의 物品에 대해서는 內國人과 비슷한 응답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를 性別로 살펴보면 여자가 석제품과 식품에서 남자보다 높게 응답하고 있으며, 남자는 기념타올에 높게 나타났다.

年齡別로는 40~49세가 석제품에 41.1%, 30~39세는 기념타올에 20.0%, 29세 이하와 50세 이상은 식품에 각각 30.8%, 31.3%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다.

職業別 土產品 구입현황은 석제품에 기능·작업직, 산호제품과 정동제품에 자영업자, 식품에 판매·서비스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教育水準別로는 별 유의한 差가 없으며, 所得水準에 따라서는 40~50만원이 석제품에, 그리고 20~30만원은 식품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 ㉟ 特産物 購入場所 現況

濟州道를 방문하는 觀光客들이 道 내에서 生産되는 각종 農水産物과 土產品 등의 特産物들을 구입하는 場所로 토산품전문판매점, 상설시장, 오일시장, 농원, 백화점,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㊸ <表Ⅳ-20>에서 內國人 觀光客이 濟州道 特産物을 구입하는 장소를 살펴보면 토산품전문판매점에 57.5%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농원이 21.6%, 상설시장 10.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응답자의 일반적 성격에 따라서 살펴보면 統計的 有意性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㊹ <表Ⅳ-20>에서 外國人 觀光客의 경우에 特産物 구입장소를 보면 內國人과 마찬가지로 토산품전문판매점에 53.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그 이외에는 백화점 17.8%, 상설시장 12.3%, 오일시장 11.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性別로 살펴보면 남자가 백화점과 오일시장에서 여자보다 높게 반응하고 있으며, 여자는 토산품전문판매점과 상설시장에서 보다 높게 응답하고 있다.

또한 職業別로는 주부와 학생, 경영·관리직은 토산품전문판매점, 기능·작업직은 상설시장, 판매·서비스직은 백화점 등에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별 유의한 差를 발견할 수 없다.

전체적으로 보아 內·外國人 觀光客이 特産物을 구입하는 장소는 토산품전문판매점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광객의 일반적 성격간의 차

〈表 IV - 18〉 道 내에서 구입한 農水産物

( 단 위 : % )

구 분	계 (명)		감		파인애플		표 고		농산물(쌀 등)		해산물(옥돔 등)	
	내 국 인	외 국 인	내 국 인	외 국 인	내 국 인	외 국 인	내 국 인	외 국 인	내 국 인	외 국 인	내 국 인	외 국 인
계 (명)	764(100.0)	70(100.0)	156 (20.4)	13 (18.6)	252 (33.0)	15 (21.4)	66 (8.6)	7 (10.0)	194 (25.4)	15 (21.4)	96 (12.6)	20 (28.6)
성 별												
남	541(100.0)	63(100.0)	21.6	17.5	33.0	19.0	8.3	11.1	24.4	23.4	12.7	28.6
여	223(100.0)	7(100.0)	17.5	28.6	32.7	42.9	9.4	-	27.8	-	12.6	28.6
연 령												
29세 이하	459(100.0)	21(100.0)	20.3	14.2	33.0	33.3	8.5	4.8	27.0	42.9	11.3	33.3
30 ~ 39세	184(100.0)	16(100.0)	21.7	18.8	34.2	12.5	28.6	12.5	22.9	25.7	14.7	31.3
40 ~ 49세	77(100.0)	23(100.0)	18.1	17.4	32.4	21.8	14.3	13.0	19.5	21.8	15.6	26.1
50세 이상	44(100.0)	13(100.0)	20.5	23.1	29.5	15.4	9.1	7.7	29.5	23.1	11.6	31.0
종 류												
농 립 · 어 업	6(100.0)	-	16.7	-	50	-	16.7	-	16.7	-	-	-
자 영 업	38(100.0)	10(100.0)	23.7	20.0	31.6	-	7.9	20.0	26.3	30.0	10.5	10.0
판매 · 서비스 직	56(100.0)	2(100.0)	26.8	-	41.0	-	7.1	-	30.4	-	12.5	100.0
기능 · 작업 직	24(100.0)	7(100.0)	33.4	-	29.2	28.6	4.1	14.3	16.7	14.3	16.7	42.9
사무 · 기술 직	277(100.0)	17(100.0)	22.0	-	32.5	29.4	9.0	17.6	25.6	17.6	10.9	35.3
경영 · 관리 직	61(100.0)	6(100.0)	21.3	-	26.2	50.0	11.5	-	26.2	33.3	14.8	16.7
전문 · 자유 직	137(100.0)	14(100.0)	19.0	-	33.6	21.4	9.5	7.1	27.8	28.6	10.2	42.9



별	부	88(100.0)	2(100.0)	18.1	-	30.7	50.0	8.0	-	27.2	-	15.6	50.0
학	생	50(100.0)	1(100.0)	12.0	-	46.0	100.0	2.0	-	16.0	-	24.0	-
무	적	7(100.0)	1(100.0)	-	-	28.6	-	28.6	-	42.9	-	-	100.0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9(100.0)	-	21.0	-	31.6	-	5.2	-	21.0	-	21.0	-
	고졸	201(100.0)	3(100.0)	20.4	-	35.3	66.7	6.5	-	27.4	33.3	10.4	-
	대졸	50(100.0)	36(100.0)	14.0	-	48.0	30.6	4.0	-	14.0	25.0	20.0	44.4
	대졸이상	491(100.0)	8(100.0)	20.8	-	30.8	-	10.1	-	26.0	62.5	12.0	37.5
소득수준별	20만원이하	70(100.0)	-	21.0	-	40.0	-	8.6	-	20.0	-	20.0	-
	20~30만원	78(100.0)	1(100.0)	21.8	-	38.5	-	5.1	-	30.8	-	3.9	100.0
	30~40만원	206(100.0)	11(100.0)	21.9	-	35.9	9.1	6.8	27.3	26.2	45.4	9.2	18.0
	40~50만원	131(100.0)	6(100.0)	22.1	-	32.8	16.7	6.9	16.7	26.0	16.7	12.2	50.0
	50~60만원	104(100.0)	6(100.0)	23.1	-	22.1	-	12.5	16.7	24.0	66.7	14.4	16.7
	60만원이상	150(100.0)	4(100.0)	18.7	-	30.0	-	12.0	-	23.3	25.0	16.0	75.0

註: 1) 무응답은 제외한 것임.

2) 복수응답임.

〈表Ⅳ-19〉 道 내에서 구입한 土產品

(단위 : %)

구분	계 (명)		석제품(돌하루방 등)		산호제품		기념타울		정동제품		식품		축산물		기타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계 (명)	644 (100.0)	78 (100.0)	218 (33.9)	22 (28.2)	65 (10.1)	10 (12.8)	61 (9.5)	7 (9.0)	126 (19.6)	9 (11.5)	90 (14.0)	20 (25.6)	48 (7.6)	1 (1.3)	36 (5.6)	9 (11.5)
성별																
남	441 (100.0)	64 (100.0)	33.1	23.4	14.1	10.9	10.8	10.9	19.0	14.1	13.4	23.4	6.6	1.6	6.6	12.5
여	203 (100.0)	14 (100.0)	35.5	50.0	9.4	7.1	6.4	-	20.7	-	15.3	35.7	9.4	-	3.4	7.1
연령별																
29세 이하	413 (100.0)	26 (100.0)	35.1	34.6	9.2	11.5	8.7	3.8	19.9	7.7	13.8	30.8	7.5	-	5.8	11.5
30~39세	145 (100.0)	20 (100.0)	33.8	20.0	10.3	10.0	11.0	20.0	18.6	15.0	15.2	25.0	6.2	5.0	4.8	5.0
40~49세	58 (100.0)	17 (100.0)	29.3	41.1	13.8	5.9	12.1	11.8	13.8	11.8	13.8	17.6	13.8	-	3.4	11.8
50세 이상	28 (100.0)	16 (100.0)	25.0	18.8	15.2	12.5	7.1	-	32.1	12.5	10.7	31.3	-	-	10.7	25.0
직업																
농림·어업	3 (100.0)	-	33.3	-	-	-	-	-	33.3	-	-	-	-	-	33.3	-
차영업	25 (100.0)	15 (100.0)	28.0	20.0	16.0	26.7	8.0	6.7	32.0	20.0	16.0	6.7	-	-	4.0	20.0
판매·서비스직	53 (100.0)	8 (100.0)	24.5	25.0	15.1	12.5	17.0	-	18.9	-	15.1	62.5	7.5	-	1.9	-
기능·작업직	56 (100.0)	15 (100.0)	10.7	46.7	1.8	6.7	12.5	6.7	7.1	6.7	60.7	20.0	3.6	-	3.6	13.3
사무·기술직	166 (100.0)	18 (100.0)	42.8	11.1	16.3	5.6	16.9	16.7	28.3	11.1	3.0	27.8	9.6	-	7.2	27.8
경영·관리직	66 (100.0)	13 (100.0)	22.7	38.5	6.1	15.4	10.6	-	16.7	15.4	25.8	15.4	3.0	-	15.0	15.4
전문·자유직	98 (100.0)	10 (100.0)	42.9	20.0	8.2	10.0	3.1	10.0	22.4	10.0	13.3	40.0	9.2	-	1.0	10.0



〈表IV-20〉 特産物 購入場所 現況

(단위 : %)

구 분	계 (명)		토산물전문판매점		상설시장		오일시장		농 원		백화점		기 타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계 (명)	499 (100.0)	73 (100.0)	287 (57.5)	39 (53.4)	52 (10.4)	9 (12.3)	8 (1.6)	8 (11.0)	108 (21.6)	2 (2.7)	12 (2.4)	13 (17.8)	32 (6.4)	2 (2.7)
성 별	348 (100.0)	59 (100.0)	57.8 (146)	50.8 (100.0)	12.3 (100.0)	21.4 (100.0)	2.7 (100.0)	7.1 (100.0)	21.9 (100.0)	-	0.7 (100.0)	7.1 (100.0)	6.8 (100.0)	-
연 령	290 (100.0)	24 (100.0)	61.7 (100.0)	54.2 (100.0)	10.7 (100.0)	12.6 (100.0)	1.4 (100.0)	16.7 (100.0)	25.5 (100.0)	4.1 (100.0)	0.3 (100.0)	12.6 (100.0)	0.3 (100.0)	-
성 별	126 (100.0)	16 (100.0)	49.2 (100.0)	56.3 (100.0)	11.1 (100.0)	6.3 (100.0)	0.8 (100.0)	12.6 (100.0)	15.9 (100.0)	-	6.3 (100.0)	25.0 (100.0)	16.7 (100.0)	-
성 별	55 (100.0)	18 (100.0)	54.5 (100.0)	55.6 (100.0)	9.0 (100.0)	11.1 (100.0)	3.6 (100.0)	11.1 (100.0)	16.4 (100.0)	-	3.6 (100.0)	22.2 (100.0)	12.7 (100.0)	-
성 별	28 (100.0)	15 (100.0)	57.1 (100.0)	40.0 (100.0)	7.1 (100.0)	20.0 (100.0)	1.8 (100.0)	6.7 (100.0)	9.0 (100.0)	6.7 (100.0)	1.8 (100.0)	13.3 (100.0)	5.5 (100.0)	13.3 (100.0)
직	3 (100.0)	-	-	-	-	-	-	-	33.3 (100.0)	-	-	-	66.7 (100.0)	6.7 (100.0)
직	20 (100.0)	15 (100.0)	55.0 (100.0)	46.7 (100.0)	5.0 (100.0)	6.7 (100.0)	-	6.7 (100.0)	30.0 (100.0)	6.7 (100.0)	-	26.7 (100.0)	10.0 (100.0)	-
직	40 (100.0)	6 (100.0)	52.5 (100.0)	50.0 (100.0)	20.0 (100.0)	-	-	16.6 (100.0)	22.5 (100.0)	-	-	33.3 (100.0)	5.0 (100.0)	-
직	17 (100.0)	8 (100.0)	58.8 (100.0)	50.0 (100.0)	-	25.0 (100.0)	-	12.5 (100.0)	23.5 (100.0)	12.5 (100.0)	11.8 (100.0)	-	5.9 (100.0)	-
직	173 (100.0)	14 (100.0)	57.8 (100.0)	57.1 (100.0)	10.4 (100.0)	14.3 (100.0)	1.1 (100.0)	14.3 (100.0)	21.4 (100.0)	-	2.9 (100.0)	14.3 (100.0)	6.4 (100.0)	-
직	36 (100.0)	10 (100.0)	50.0 (100.0)	60.0 (100.0)	16.7 (100.0)	-	-	20.0 (100.0)	30.6 (100.0)	-	-	20.0 (100.0)	2.8 (100.0)	-
직	88 (100.0)	15 (100.0)	63.6 (100.0)	46.7 (100.0)	8.0 (100.0)	20.0 (100.0)	2.2 (100.0)	6.7 (100.0)	20.5 (100.0)	-	1.1 (100.0)	20.0 (100.0)	4.5 (100.0)	6.7 (100.0)

별	부	59 (100.0)	2 (100.0)	55.9	100.0	6.8	-	5.0	-	23.7	-	-	-	8.5	-
학	생	52 (100.0)	1 (100.0)	59.6	100.0	13.5	-	1.9	-	9.6	-	7.7	-	7.7	-
무	직	-	1 (100.0)	-	-	-	100.0	-	-	-	-	-	-	-	-
교	중	17 (100.0)	-	47.0	-	17.6	-	-	-	11.8	-	5.9	-	17.6	-
육	출	129 (100.0)	16 (100.0)	61.2	56.3	10.9	6.3	1.6	6.3	20.2	6.3	0.8	18.8	5.4	6.3
수	고	51 (100.0)	1 (100.0)	58.8	100.0	13.7	-	2.0	-	11.8	-	5.9	-	7.9	-
준	대	300 (100.0)	49 (100.0)	56.3	51.0	9.3	14.3	1.6	12.2	2.3	2.0	2.0	20.4	6.0	-
별	대	66 (100.0)	2 (100.0)	59.1	100.0	10.6	-	3.0	-	15.1	-	6.0	-	6.0	-
소	20	53 (100.0)	5 (100.0)	54.7	60.0	15.1	-	1.9	-	20.8	-	1.9	40.0	5.7	-
득	~30	135 (100.0)	11 (100.0)	57.0	45.5	51.9	-	0.7	18.1	26.7	-	2.2	36.4	8.1	-
수	30~40	82 (100.0)	6 (100.0)	62.1	50.0	7.3	16.7	1.2	-	23.1	16.7	1.2	16.7	4.9	-
준	40~50	59 (100.0)	7 (100.0)	52.5	57.1	18.6	-	-	-	22.0	-	-	28.6	6.8	14.3
별	50~60	85 (100.0)	8 (100.0)	57.6	50.0	14.1	12.5	1.2	12.5	20.0	-	2.4	25.0	4.7	-
	60														

註: 1) 무응답은 제외한 것임.

2) 복수응답임.

이에 따른 有意性은 발견하기 어렵다.

⑩ 濟州道 特産物의 問題點

濟州道를 방문한 內國人 觀光客이 特産物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믿을 수 없는 가격체제 37.0%, 비싼 가격에 36.2%의 응답자가 지적하고 있다. 또한 外國人의 경우에는 27.2%가 비싼 가격, 23.6%가 믿을 수 없는 가격체제, 그리고 21.8%가 유용성 등에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特産物의 문제점에 대하여 內·外國人을 막론하고 가격이 비싸며, 그 가격체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같은 일반적인 결과를 觀光客의 性格別로 분석해 보면 <表Ⅳ-21>과 같다.

㉞ 內國人이 느끼는 제주도 特産物에 대한 문제점은 性別, 年齡別, 職業別간에 별 유의한 差가 없다.

그러나 教育水準別로는 대재인 경우 디자인이 단순하다에 41.3%의 응답률로 높게 나타났고, 所得水準別로는 통계적 有意性을 찾을 수 없다.

㉟ 外國人의 경우 性別로 살펴보면 남자는 비싼 가격, 디자인 등에서 여자보다 더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고, 여자는 믿을 수 없는 가격체제, 포장을 남자보다 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年齡別로는 30~39세가 디자인에 25.0%, 40~49세는 비싼 가격에 41.7%, 50세 이상은 포장에 27.3%로 각각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응답하고 있다.

또한 職業別과 所得水準別로 보면 별 유의성을 발견할 수 없으나, 教育水準別로 볼 때는 고졸이 믿을 수 없는 가격체제, 대졸이 비싼 가격에 보다 높게 지적하고 있다.

이와같은 결과를 전체적으로 볼 때, 觀光客에게 판매하는 特産物의 販賣增大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정가격의 결정과 신뢰할 수 있는 가격체제의 확립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⑪ 觀光活動現況

觀光客이 濟州道에서 주로 참여하는 觀光活動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表Ⅳ-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가지로 구분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㉞ 濟州道를 방문하는 內國人 觀光客의 觀光活動別 주된 관광대상은 제주도의 觀光資源의 특성을 나타내듯이 전체의 29.8%가 자연경관 및 풍경구경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그 다음으로 독특한 생활관습·언어 등, 고적·사적지 방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응답자의 일반적 성격에 따라 분석해 본 결과는 별 통계적 有意性을 발견할 수 없다.

㉟ 外國人의 경우도 역시 자연경관 및 풍경구경에 25.8%의 응답률을 보임으로써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어서 고적·사적지 방문, 맛있는 음식, 수영·해수욕, 유흥·오락

〈表IV-22〉 觀光活動別 主된 參與對象

구	분	계 (명)	성 별		연 령 별					교 육 수 준 별			
			남	여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 재	대 출 이상	
													남
계	내국인	1,290(100.0)	916	374	857	259	107	65	61	328	226	635	
	외국인	190(100.0)	149	41	74	32	47	39	1	48	2	134	
자연경관 및 풍경구경	내국인	384(29.8)	29.9	29.4	29.1	31.7	29.0	33.8	27.9	31.7	22.6	33.1	
	외국인	49(25.8)	25.5	26.8	25.6	28.1	17.0	30.8	-	25.0	50.0	23.1	
특별한 생활관습·언어 등	내국인	195(15.1)	15.0	15.5	15.9	12.4	15.0	13.8	14.8	15.5	10.2	17.6	
	외국인	18(9.5)	8.7	12.2	12.2	-	8.5	12.8	100.0	2.1	-	11.2	
교적·사적지 방문	내국인	191(14.8)	15.0	14.4	14.7	13.9	19.6	12.3	21.3	14.9	9.7	16.9	
	외국인	25(13.2)	14.8	7.3	9.5	15.6	8.5	20.5	-	14.6	-	12.7	
유 흥·오 락	내국인	41(3.2)	3.2	3.2	3.9	2.3	1.9	-	1.6	3.0	2.2	4.0	
	외국인	17(9.0)	9.4	7.3	8.1	12.5	12.8	5.1	-	14.6	-	8.2	
수 영·해 수 욱	내국인	74(5.7)	6.4	4.0	4.4	7.3	10.3	9.2	6.6	2.1	10.2	0.6	
	외국인	20(10.5)	7.4	22.0	16.2	12.5	12.8	-	-	10.4	50.0	9.7	
등 산·캠 핑	내국인	74(5.7)	5.6	6.1	6.2	5.8	2.8	4.6	4.9	4.6	10.2	5.2	
	외국인	5(2.6)	2.7	2.4	5.4	3.1	2.1	-	-	2.1	-	3.7	
골 프	내국인	5(0.4)	0.4	0.3	0.1	0.4	1.9	1.5	1.6	-	-	0.6	
	외국인	15(7.9)	9.4	2.4	4.1	9.4	12.8	10.3	-	12.5	-	6.7	
뉘 시	내국인	16(1.2)	1.3	1.1	0.8	1.9	2.8	1.5	4.9	2.1	1.8	1.3	
	외국인	4(2.1)	2.7	-	1.4	3.1	6.4	-	-	4.2	-	2.2	
농장·목장·과수원 방문	내국인	105(8.1)	8.1	8.3	8.8	7.7	5.6	6.2	6.6	10.0	26.1	0.9	
	외국인	8(4.2)	4.0	4.9	5.4	3.1	4.3	2.6	-	6.3	-	3.7	
토 산품 등의 쇼핑	내국인	145(11.2)	11.2	11.2	11.9	10.8	8.4	9.2	8.1	12.5	5.3	13.7	
	외국인	8(4.2)	4.7	2.4	2.7	-	4.3	5.1	-	2.1	-	4.4	
맛 있는 음식	내국인	60(4.7)	3.9	6.4	4.3	5.0	2.8	7.7	1.6	4.3	1.8	6.1	
	외국인	21(11.1)	10.7	12.2	9.5	12.5	10.6	12.8	-	6.3	-	14.2	

註: 복수응답임.

〈表IV-21〉 濟州道 特産物의 問題點

(단위: %)

구분	계 (명)		비싼가격		다자인		포		장		유용성		민을수없는가격체계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계 (명)	522 (100.0)	55 (100.0)	189 (36.2)	15 (27.2)	59 (11.3)	8 (14.5)	41 (7.9)	7 (12.7)	40 (7.7)	12 (21.8)	193 (37.0)	13 (23.6)		
성별														
남	376 (100.0)	44 (100.0)	35.8	29.5	12.0	15.9	8.8	11.4	8.8	22.7	34.6	20.5		
여	146 (100.0)	11 (100.0)	37.0	18.1	9.6	9.1	5.5	18.1	4.8	18.1	43.2	36.4		
연령														
29세 이하	350 (100.0)	22 (100.0)	37.0	31.8	11.0	18.1	6.9	13.6	7.8	18.1	38.0	18.1		
30 ~ 39세	114 (100.0)	12 (100.0)	33.3	16.7	12.3	25.0	7.9	8.3	7.0	25.0	39.5	25.0		
40 ~ 49세	38 (100.0)	12 (100.0)	42.1	41.7	13.2	8.3	10.5	-	10.5	25.0	23.7	25.0		
50세 이상	20 (100.0)	11 (100.0)	35.0	27.3	10.0	-	20.0	27.3	5.0	18.1	30.0	27.3		
직업														
농림·어업	7 (100.0)	-	42.9	-	-	-	-	-	28.6	-	28.6	-		
자영업	23 (100.0)	11 (100.0)	26.1	36.4	13.0	9.1	4.3	27.3	13.0	9.1	43.4	18.2		
판매·서비스직	40 (100.0)	2 (100.0)	40.0	-	5.0	-	-	-	8.0	50.0	48.0	50.0		
기능·작업직	20 (100.0)	5 (100.0)	35.0	40.0	5.0	40.0	-	-	10.0	-	50.0	20.0		
사무·기술직	185 (100.0)	19 (100.0)	37.8	21.1	8.6	10.5	9.7	10.5	7.6	31.6	36.2	26.3		
경영·관리직	31 (100.0)	5 (100.0)	32.3	40.0	12.9	-	19.4	-	9.7	20.0	25.8	40.0		
전문·자유직	97 (100.0)	10 (100.0)	33.0	30.0	13.4	10.0	10.3	20.0	8.2	20.0	35.1	20.0		



별	주 학 무	부 생 지	49 (100.0)	-	44.9	-	6.1	-	4.1	-	-	-	44.9	-	-
			58 (100.0)	2 (100.0)	34.5	50.0	24.1	-	5.2	-	6.9	50.0	29.3	-	-
			4 (100.0)	-	50.0	-	-	-	-	-	-	-	50.0	-	-
	교 육 수 준 별	중 출 이 하	13 (100.0)	1 (100.0)	46.2	-	7.7	-	7.7	100.0	-	-	38.5	-	-
		고 출	133 (100.0)	12 (100.0)	40.6	16.7	7.5	8.3	5.3	8.3	6.0	33.3	40.6	33.3	-
		대 재	80 (100.0)	2 (100.0)	26.3	50.0	41.3	-	3.8	-	7.5	50.0	21.3	-	-
		대 출 이 상	294 (100.0)	32 (100.0)	36.4	31.3	4.8	12.5	10.2	15.6	8.8	18.8	39.8	21.9	-
	소 득 수 준 별	20만원 이하	71 (100.0)	2 (100.0)	38.0	50.0	19.7	-	4.2	-	7.0	50.0	31.0	-	-
		20 ~ 30만원	69 (100.0)	3 (100.0)	36.2	-	10.1	33.3	8.7	33.3	7.2	-	37.7	33.3	-
		30 ~ 40만원	144 (100.0)	8 (100.0)	36.9	25.0	8.3	-	8.3	12.5	5.6	37.5	41.0	25.0	-
		40 ~ 50만원	82 (100.0)	5 (100.0)	32.9	40.0	7.3	20.0	11.0	20.0	6.1	20.0	42.7	-	-
		50 ~ 60만원	55 (100.0)	7 (100.0)	38.1	14.3	16.4	14.3	5.5	28.6	12.7	28.6	27.2	14.3	-
		60만원 이상	85 (100.0)	5 (100.0)	32.9	40.0	10.6	-	9.4	20.0	11.8	-	35.3	40.0	-

註: 1) 무응답은 제외한 것임.

2) 복수응답임.

등의 순으로 나타나 內國人的 참여성향에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性別로 살펴보면 별 유의한 差가 없으나, 年齡別로는 29세 이하가 수영·해수욕, 40~49세는 골프, 50세 이상은 자연경관 및 풍경구경에서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教育水準別로는 고졸인 경우 유희·오락에 14.6%, 농장·목장·과수원 방문에 10.0%, 대졸인 경우 독특한 생활관습·언어 등에 11.2%, 맛있는 음식에 14.2%로 다른 교육 수준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결과를 토대로 濟州道를 방문하는 國內·外 觀光客의 전반적인 觀光活動의 性向을 살펴보기 위하여 觀光活動을 休養觀光, 民俗觀光, 스포츠觀光 그리고 遊興觀光<sup>19)</sup>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內國人的 濟州道 觀光活動패턴은 休養-民俗-스포츠-遊興觀光(4.9:3.0:1.4:0.8) 순으로 休養觀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外國人的 觀光活動패턴은 休養-스포츠-民俗-遊興(3.4:2.3:2.3:2.0)의 순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4大 分類에 의하여 나타난 두드러진 特徵은 內·外國人 觀光客間에 民俗과 스포츠觀光의 순위가 바뀐으로써 內國인 觀光客에 비해 外國人 觀光客이 다소 動的인 觀光活動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觀光客 1인당 平均 參與活動의 수는 총 11개의 설문조사내용 가운데 內國인이 3.16개, 外國인이 2.53개로 內國인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⑫ 觀光客이 要求하는 觀光慰樂施設

장차 濟州道를 방문하는 觀光客들은 과거의 단순한 자연경관감상 위주의 觀光行態에서 점차 動的이면서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위락중심 관광으로 변모해 나갈 것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觀光客들이 제주도 관광활동에 필요하다고 提案하거나 要求하는 觀光慰樂施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㉞ 內國인 觀光客은 <表Ⅳ-23>에서와 같이 편리한 한라산 등반, 온천, 민속공연감상, 편리한 낚시터 등의 순으로 제주도 관광위락활동에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를 性別에 따라서 살펴보면 統計的 有意性을 발견할 수 없으며, 年齡別로는 젊은층일수록 하이킹, 스키, 요트, 수상스키에 높게 나타났고, 연령층이 높을수록 온천에 높게 나타났다. 또한 30대와 40대는 각종 어린이 놀이시설과 편리한 낚시터에 비교적 높게 응답하고 있다.

19) ① 休養觀光: 자연경관 및 풍경구경, 농장·목장·과수원 방문, 토산품 등의 쇼핑

② 民俗觀光: 독특한 생활관습·언어 등, 고적·사적지 방문

③ 스포츠觀光: 수영·해수욕, 등산·캠핑, 골프, 낚시

④ 遊興觀光: 유희·오락, 맛있는 음식

教育水準에 따라 요구하는 관광위락시설은 중졸 이하가 온천에 25.0%로 높게 반응하고 있으며, 고졸은 편리한 한라산 등반 35.0%, 대재는 하이킹 21.1%, 그리고 대졸은 별장 및 산장에 10.1%로 각 항목에서 다른 교육수준보다 높게 응답하고 있다.

㉠ 外國인이 제주도의 관광위락활동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施設은 內國人과는 다르게 민속공연감상에 13.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에는 보트타기 11.6%, 하이킹 10.1%, 수상스키와 편리한 낚시터에 각각 8.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性向은 외국인 관광객의 觀光活動패턴이 매우 動的이며, 방문지역에 대한 民俗 등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性別에 따라 요구하는 관광위락시설은 여자가 문화재감상, 수상스키, 각종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고, 편리한 한라산등반, 온천, 민속공연감상 등에서는 남자가 높게 나타내고 있다. 年齡別로는 민속공연감상에 50세 이상이 26.3%로 연령층이 높을수록 높게 반응하고 있고, 수상스키에 29세 이하가 19.1%, 각종 어린이 놀이시설에 30~39세 17.6%, 그리고 온천과 편리한 한라산등반도 연령층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教育水準에 따라서는 고졸이 편리한 한라산등반과 보트타기, 대졸이 수상스키, 문화재감상 등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볼 때 濟州道를 방문하는 內·外國人 觀光客들은 각종 위락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제는 과거와 같이 일부의 위락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위락활동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訪問을 希望하는 觀光對象

1987年 濟州統計年報에 의하면 <表IV-24>에서 보듯이 觀光客이 가장 많이 방문한 道內 既存觀光地는 天池淵瀑布로서 총 관광객의 56.4%인 841千名이 다녀갔고, 다음으로는 천제연, 민속자연사박물관, 만장굴 등의 순으로 각각 52.9%, 51.9%, 51.6%의 訪問率을 나타내고 있다. 年度別 增減推移는 1985년부터 민속자연사박물관의 利用率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향몽유적지, 산방굴사, 천제연의 이용률도 1986년에 크게 늘어났다.

제주도의 觀光活動은 주로 이러한 기존관광지를 중심으로 자연경관감상 등에 치우쳐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기존관광지 이외에도 觀光客들이 시간이 허용될 경우 추가로 방문하고 싶어하는 觀光對象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觀光客이 직접 기입한 32개 종류의 관광대상을 유형별로 묶어 재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內國人的 訪問을 희망하는 觀光對象은 <表IV-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內國人是

〈表IV-23〉 觀光客이 要求하는 觀光慰樂施設

(단위: %)

구	분	계(명)	성 별		연 령 별				교 육 수 준 별			
			남	여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중졸이하	고 졸	대 재	대졸이상
계	내국인	675 (100.0)	493 (100.0)	182 (100.0)	432 (100.0)	151 (100.0)	59 (100.0)	31 (100.0)	28 (100.0)	157 (100.0)	90 (100.0)	397 (100.0)
	외국인	129 (100.0)	100 (100.0)	29 (100.0)	47 (100.0)	34 (100.0)	31 (100.0)	19 (100.0)	1 (100.0)	33 (100.0)	1 (100.0)	78 (100.0)
보 트 타 기	내국인	31 (4.6)	4.7	4.4	4.4	5.3	5.1	3.2	7.1	4.4	2.2	5.0
	외국인	15 (11.6)	12.0	10.3	10.6	14.7	12.9	5.3	-	12.1	-	7.7
요 트	내국인	10 (1.5)	1.0	2.7	1.6	2.0	-	-	3.6	1.9	-	1.5
	외국인	5 (3.9)	3.0	6.9	6.4	-	6.5	-	-	3.0	-	2.6
수 상 스 키	내국인	20 (3.0)	2.6	3.8	3.2	4.0	-	-	7.1	1.9	5.6	2.5
	외국인	11 (8.5)	7.0	13.8	19.1	-	6.5	-	-	6.0	-	11.5
카 누	내국인	7 (1.0)	1.0	1.1	0.9	1.3	-	3.2	-	-	2.2	1.3
	외국인	3 (2.3)	3.0	-	4.2	2.9	-	-	-	3.0	-	2.6
스 키	내국인	11 (1.6)	1.8	1.1	1.9	2.0	1.7	-	3.6	1.3	2.2	1.5
	외국인	7 (5.4)	5.0	6.9	8.5	5.9	3.2	-	-	6.0	-	6.4
하 이 킹	내국인	30 (4.4)	5.3	2.2	5.3	4.6	-	-	-	1.9	21.1	3.0
	외국인	13 (10.1)	10.0	10.3	17.0	2.9	3.2	15.8	-	6.0	100.0	9.0

승	마	내국인 외국인	30 (4.4) 7 (5.4)	3.4	7.1	5.3	2.0	3.3	6.5	7.1	5.7	2.2	4.2
	각종 어린이 놀이시설	내국인 외국인	22 (3.3) 8 (6.2)	3.8	1.6	1.4	7.9	5.1	3.2	7.1	2.5	-	4.0
	민속 공연 감상	내국인 외국인	82 (12.1) 17 (13.2)	12.6	11.0	12.5	11.3	11.8	12.9	10.7	9.6	14.4	12.8
	문화재 감상	내국인 외국인	44 (6.5) 10 (7.8)	6.7	6.0	6.9	6.0	-	9.7	-	8.9	10.0	4.8
	별장 및 산장	내국인 외국인	57 (8.4) 3 (2.3)	8.3	8.8	9.5	6.6	8.4	3.2	-	5.7	7.8	10.1
은	친	내국인 외국인	85 (12.6) 9 (7.0)	12.7	12.1	11.3	11.3	18.6	25.8	25.0	13.4	5.7	12.0
	편리한 한라산 등반	내국인 외국인	200 (29.6) 10 (7.8)	29.0	31.3	29.4	29.8	32.2	29.0	17.9	35.0	14.0	29.7
	편리한 낚시터	내국인 외국인	46 (6.8) 11 (8.5)	6.9	6.6	6.3	6.6	13.6	3.2	10.7	7.6	2.2	7.3
				10.0	3.4	8.5	11.8	6.5	10.5	-	6.0	-	7.7

註: 복수응답임.

〈表IV-24〉 주요 관광지별 방문객 추이

연도별 관광지명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총 방문객 수	724	860	1,025	1,217	1,323
민속자연사박물관	-	-	-	247(20.3)	606(45.8)	774(51.9)
삼성혈	154(21.3)	193(22.4)	324(31.6)	459(37.7)	507(38.3)	553(37.1)
무석원	150(20.7)	225(26.2)	333(32.5)	363(29.8)	302(22.8)	457(30.6)
천제연	354(49.2)	409(47.6)	411(40.1)	383(31.5)	412(31.1)	789(52.9)
천지연	403(55.7)	490(57.0)	565(55.1)	693(57.0)	704(53.2)	841(56.4)
정방폭포	341(47.1)	320(37.2)	458(44.7)	505(41.5)	561(42.4)	666(44.6)
김녕굴 및 만장굴	377(52.1)	447(52.0)	550(53.7)	601(49.4)	681(51.5)	770(51.6)
협재굴 및 쌍용굴	211(29.1)	256(30.0)	385(37.6)	477(39.2)	587(44.4)	680(45.6)
산꿈부리	181(25.0)	294(34.2)	383(37.4)	441(36.2)	513(38.8)	611(41.0)
산방굴사	209(28.9)	231(26.9)	194(18.9)	139(11.4)	174(13.2)	474(31.8)
안덕제곡	84(11.6)	76(8.8)	40(3.9)	17(1.4)	10(0.8)	13(0.9)
일출봉	-	374(43.5)	465(45.4)	512(42.1)	560(42.3)	714(47.9)
항몽유적지	-	-	-	-	99(7.5)	303(20.3)
비자림	-	-	-	-	10(0.8)	108(7.2)

(단위: 천명)

○ 註: ( ) 안은 총 관광객 수에 대한 비율임.

○ 資料: 濟州道, 제주통계연보, 1987.

〈表Ⅳ-25〉 추기로 訪問하고 싶은 觀光對象

(단위 : %)

구 분	계 (명)	성 별		연 령 별			교 육 수 준 별				방 문 횟 수 별						
		남	여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제	대졸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계 (명)	내국인	256	191	65	162	60	26	8	12	64	34	146	166	53	25	3	9
	외국인	25	18	7	8	4	8	6	-	4	-	13	22	1	-	1	-
유·무인도	내국인	44	19.4	10.8	17.3	21.7	11.5	-	16.7	9.4	17.6	20.5	17.5	18.9	8.0	33.3	22.2
	외국인	1	-	14.3	12.5	-	-	-	-	25.0	-	-	9.1	-	-	-	-
한라산 (백록담, 영실)	내국인	153	61.3	55.4	59.9	65.0	38.5	87.5	50.0	70.3	53.0	57.5	60.8	49.1	68.0	66.7	77.8
	외국인	15	61.1	57.1	62.5	50.0	66.7	-	-	50.0	-	69.2	68.2	-	-	100.0	-
무장지대	내국인	17	4.7	12.3	8.1	3.3	3.8	12.5	16.7	3.1	8.8	6.8	7.2	7.5	4.0	-	-
	외국인	1	5.6	-	-	-	12.5	-	-	-	-	7.7	-	100.0	-	-	-
1,100교지	내국인	3	1.0	1.5	0.6	1.7	3.8	-	8.3	1.6	-	0.7	-	5.7	-	-	-
	외국인	-	-	-	-	-	-	-	-	-	-	-	-	-	-	-	-
유람선 (해저 및 해상관광)	내국인	8	2.1	6.2	1.9	3.3	11.5	-	8.3	4.7	-	2.7	3.0	1.9	8.0	-	-
	외국인	1	5.6	-	-	-	-	16.7	-	-	-	-	4.5	-	-	-	-
서귀포해안	내국인	15	5.8	6.2	6.2	1.7	15.4	-	-	3.1	8.8	6.8	6.6	5.7	4.0	-	-
	외국인	4	11.1	28.6	12.5	50.0	25.0	-	-	25.0	-	7.7	4.5	-	-	-	-
남시버	내국인	5	2.1	1.5	1.9	1.7	3.8	-	-	-	5.9	2.0	1.2	3.8	4.0	-	-
	외국인	2	11.1	-	-	-	12.5	16.7	-	-	-	7.7	9.1	-	-	-	-
헬기관광	내국인	1	-	1.5	0.6	-	-	-	-	1.6	-	-	0.6	-	-	-	-
	외국인	-	-	-	-	-	-	-	-	-	-	-	-	-	-	-	-
시내관광	내국인	10	3.7	4.6	3.7	1.7	11.5	-	-	6.3	5.9	2.7	3.0	7.5	4.0	-	-
	외국인	1	5.6	-	12.5	-	-	-	-	-	-	7.7	4.5	-	-	-	-

註: 무응답은 제외 한 것임.

여행일정의 사정에 따라서 한라산(백록담, 영실)에 절대 다수인 59.8%가 응답하고 있고, 이어서 유·무인도 17.2%, 목장지대 6.6%, 서귀포해안 5.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비교적 有意性이 없는 연령, 교육수준 및 방문횟수별로 살펴보면, 年齡別로는 50세 이상이 한라산에 8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49세는 서귀포해안에 15.4%, 시내관광과 유람선에 각각 11.5%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30~39세는 유·무인도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教育水準에 따라서는 중졸 이하가 목장지대, 고졸은 한라산, 대졸은 남시터, 대졸은 유·무인도에서 다른 교육수준에 비해 높게 응답하고 있다.

또한 內國人 觀光客이 추가로 방문하고 싶은 觀光對象은 訪問回數別로 살펴보면 한라산(백록담, 영실)에 대해서 5회 이상이 77.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자주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도 한라산등반의 기회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4회는 유·무인도, 3회는 유람선, 2회는 1,100고지와 시내관광, 1회는 서귀포해안 등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다.

㉔ 外國人の 경우에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추가로 訪問하고 싶은 觀光對象은 內國人和 마찬가지로 한라산(백록담, 영실)에 60.0%로 가장 많이 응답하고 있다. 다음에는 서귀포해안이 16.0%, 남시터 8.0% 등의 순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性向을 몇 가지 變數別로 살펴보면, 性別에 따라서 남자는 남시터, 목장지대, 유람선, 시내관광 등에서 여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유·무인도, 서귀포해안에 대해서는 여자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年齡別로는 29세 이하는 유·무인도와 시내관광에 각각 12.5%, 30대는 서귀포해안에 50%, 40대는 목장지대 12.5%, 50세 이상은 유람선에 16.7%로 가장 높게 나타냈다. 또한 教育水準別 방문을 희망하는 觀光對象을 보면 유·무인도와 서귀포해안에서는 고졸이 높게 응답하고 있고, 한라산, 목장지대, 남시터, 시내관광에 대해서는 대졸이 높게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주도를 방문하는 內·外國人 觀光客들은 여행일정에 따라 추가로 찾고 보고 싶은 觀光對象을 한라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內國인이 유·무인도, 外國인은 서귀포 해안을 들고 있다. 이러한 觀光客의 性向分析 결과는 觀光需要패턴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다양한 觀光資源의 확보를 위한 대책수립에 기준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⑭ 濟州道 旅行中 不便한 點



승	마	내국인	30 (4.4)	3.4	7.1	5.3	2.0	3.3	6.5	7.1	5.7	2.2	4.2	
		외국인	7 (5.4)	5.0	6.9	6.4	2.9	9.7	-	-	-	6.0	-	6.4
각종 어린이 놀이시설		내국인	22 (3.3)	3.8	1.6	1.4	7.9	5.1	3.2	7.1	2.5	-	-	4.0
		외국인	8 (6.2)	5.0	10.3	2.1	17.6	6.5	-	-	-	9.1	-	5.1
민속 공연 감상		내국인	82 (12.1)	12.6	11.0	12.5	11.3	11.8	12.9	10.7	9.6	14.4	12.8	
		외국인	17 (13.2)	14.0	10.3	4.2	14.7	19.4	26.3	100.0	12.1	-	-	12.8
문화재 감상		내국인	44 (6.5)	6.7	6.0	6.9	6.0	-	9.7	-	8.9	10.0	4.8	
		외국인	10 (7.8)	5.0	17.2	8.5	8.8	9.7	-	-	3.0	-	-	10.3
별장 및 산장		내국인	57 (8.4)	8.3	8.8	9.5	6.6	8.4	3.2	-	5.7	7.8	10.1	
		외국인	3 (2.3)	3.0	-	-	2.9	-	10.5	-	3.0	-	-	2.6
은	친	내국인	85 (12.6)	12.7	12.1	11.3	11.3	18.6	25.8	25.0	13.4	5.7	12.0	
		외국인	9 (7.0)	8.0	3.4	4.2	5.9	6.5	15.8	-	-	-	-	7.7
편리한 한라산 등반		내국인	200 (29.6)	29.0	31.3	29.4	29.8	32.2	29.0	17.9	35.0	14.0	29.7	
		외국인	10 (7.8)	10.0	-	-	8.8	9.7	15.8	-	-	15.2	-	7.7
편리한 낚시터		내국인	46 (6.8)	6.9	6.6	6.3	6.6	13.6	3.2	10.7	7.6	2.2	7.3	
		외국인	11 (8.5)	10.0	3.4	8.5	11.8	6.5	10.5	-	6.0	-	-	7.7

註: 복수응답임.

〈表IV-24〉 주요 관광지별 방문객 추이 (단위: 천명)

관광지명	연도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총 관광객 수		724	860	1,025	1,217	1,323	1,492
민속자연사박물관		-	-	-	247(20.3)	606(45.8)	774(51.9)
삼성혈	154(21.3)	193(22.4)	324(31.6)	459(37.7)	507(38.3)	553(37.1)	553(37.1)
목석원	150(20.7)	225(26.2)	333(32.5)	363(29.8)	302(22.8)	457(30.6)	457(30.6)
친제연	354(49.2)	409(47.6)	411(40.1)	383(31.5)	412(31.1)	789(52.9)	789(52.9)
친지연	403(55.7)	490(57.0)	565(55.1)	693(57.0)	704(53.2)	841(56.4)	841(56.4)
정방폭포	341(47.1)	320(37.2)	458(44.7)	505(41.5)	561(42.4)	666(44.6)	666(44.6)
김녕굴 및 만장굴	377(52.1)	447(52.0)	550(53.7)	601(49.4)	681(51.5)	770(51.6)	770(51.6)
협재굴 및 쌍용굴	211(29.1)	256(30.0)	385(37.6)	477(39.2)	587(44.4)	680(45.6)	680(45.6)
산굼부리	181(25.0)	294(34.2)	383(37.4)	441(36.2)	513(38.8)	611(41.0)	611(41.0)
산방굴사	209(28.9)	231(26.9)	194(18.9)	139(11.4)	174(13.2)	474(31.8)	474(31.8)
안덕계곡	84(11.6)	76(8.8)	40(3.9)	17(1.4)	10(0.8)	13(0.9)	13(0.9)
일출봉	-	374(43.5)	465(45.4)	512(42.1)	-	560(42.3)	714(47.9)
항몽유적지	-	-	-	-	-	99(7.5)	303(20.3)
비자림	-	-	-	-	-	10(0.8)	108(7.2)

○ 註: ( ) 안은 총 관광객 수에 대한 비율임.

○ 資料: 濟州道, 제주통계연보, 1987.

〈表IV - 25〉 추가로 訪問하고 싶은 觀光對象

(단위 : %)

구 분	제 (명)	성 별		연 령 별				교 육 수 준 별				방 문 횟 수 별				
		남	여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재	대졸 이상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계 (명)	내국인 256(100.0)	191	65	162	60	26	8	12	64	34	146	166	53	25	3	9
	외국인 25(100.0)	18	7	8	4	8	6	-	4	-	13	22	1	-	1	-
유·무인도	44(17.2)	19.4	10.8	17.3	21.7	11.5	-	16.7	9.4	17.6	20.5	17.5	18.9	8.0	33.3	22.2
한라산 (백록담, 영실)	내국인 153(59.8)	61.3	55.4	59.9	65.0	38.5	87.5	50.0	70.3	53.0	57.5	60.8	49.1	68.0	66.7	77.8
	외국인 15(60.0)	61.1	57.1	62.5	50.0	66.7	-	-	50.0	-	69.2	68.2	-	-	100.0	-
북장지대	내국인 17(6.6)	4.7	12.3	8.1	3.3	3.8	12.5	16.7	3.1	8.8	6.8	7.2	7.5	4.0	-	-
	외국인 1(4.0)	5.6	-	-	-	12.5	-	-	-	-	7.7	-	100.0	-	-	-
1,100고지	내국인 3(1.2)	1.0	1.5	0.6	1.7	3.8	-	8.3	1.6	-	0.7	-	5.7	-	-	-
	외국인 -	-	-	-	-	-	-	-	-	-	-	-	-	-	-	-
유람선 (해저 및 해상관광)	내국인 8(3.1)	2.1	6.2	1.9	3.3	11.5	-	8.3	4.7	-	2.7	3.0	1.9	8.0	-	-
	외국인 1(4.0)	5.6	-	-	-	-	16.7	-	-	-	-	4.5	-	-	-	-
서귀포해안	내국인 15(5.9)	5.8	6.2	6.2	1.7	15.4	-	-	3.1	8.8	6.8	6.6	5.7	4.0	-	-
	외국인 4(16.0)	11.1	28.6	12.5	50.0	25.0	-	-	25.0	-	7.7	4.5	-	-	-	-
남시터	내국인 5(2.0)	2.1	1.5	1.9	1.7	3.8	-	-	-	5.9	2.0	1.2	3.8	4.0	-	-
	외국인 2(8.0)	11.1	-	-	-	12.5	16.7	-	-	-	7.7	9.1	-	-	-	-
헬기관광	내국인 1(0.4)	-	1.5	0.6	-	-	-	-	1.6	-	-	0.6	-	-	-	-
	외국인 -	-	-	-	-	-	-	-	-	-	-	-	-	-	-	-
시내관광	내국인 10(3.9)	3.7	4.6	3.7	1.7	11.5	-	-	6.3	5.9	2.7	3.0	7.5	4.0	-	-
	외국인 1(4.0)	5.6	-	12.5	-	-	-	-	-	-	7.7	4.5	-	-	-	-

註 : 무응답은 제외한 것임.

여행일정의 사정에 따라서 한라산(백록담, 영실)에 절대 다수인 59.8%가 응답하고 있고, 이어서 유·무인도 17.2%, 목장지대 6.6%, 서귀포해안 5.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비교적 有意性이 없는 연령, 교육수준 및 방문횟수별로 살펴보면, 年齡別로는 50세 이상이 한라산에 8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49세는 서귀포해안에 15.4%, 시내관광과 유람선에 각각 11.5%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내고 있다. 또한 30~39세는 유·무인도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教育水準에 따라서는 중졸 이하가 목장지대, 고졸은 한라산, 대졸은 남시터, 대졸은 유·무인도에서 다른 교육수준에 비해 높게 응답하고 있다.

또한 內國人 觀光客이 추가로 방문하고 싶은 觀光對象은 訪問回數別로 살펴보면 한라산(백록담, 영실)에 대해서 5회 이상이 77.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자주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도 한라산등반의 기회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4회는 유·무인도, 3회는 유람선, 2회는 1,100고지와 시내관광, 1회는 서귀포해안 등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다.

㉔ 外國人의 경우에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추가로 訪問하고 싶은 觀光對象은 內國人과 마찬가지로 한라산(백록담, 영실)에 60.0%로 가장 많이 응답하고 있다. 다음에는 서귀포해안이 16.0%, 남시터 8.0% 등의 순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性向을 몇 가지 變數別로 살펴보면, 性別에 따라서 남자는 남시터, 목장지대, 유람선, 시내관광 등에서 여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유·무인도, 서귀포해안에 대해서는 여자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年齡別로는 29세 이하는 유·무인도와 시내관광에 각각 12.5%, 30대는 서귀포해안에 50%, 40대는 목장지대 12.5%, 50세 이상은 유람선에 1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教育水準別 방문을 희망하는 觀光對象을 보면 유·무인도와 서귀포해안에서는 고졸이 높게 응답하고 있고, 한라산, 목장지대, 남시터, 시내관광에 대해서는 대졸이 높게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주도를 방문하는 內·外國人 觀光客들은 여행일정에 따라 추가로 찾고 싶은 觀光對象을 한라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內國人이 유·무인도, 外國人은 서귀포 해안을 들고 있다. 이러한 觀光客의 性向分析 결과는 觀光需要패턴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다양한 觀光資源의 확보를 위한 대책수립에 기준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⑭ 濟州道 旅行中 不便한 點

濟州道는 최근 급속한 관광객의 증가속에서 수요에 따른 공급의 부족, 서어비스의 미비, 自然環境의 심한 파괴 및 무질서한 商去來 질서 등으로 觀光客의 不滿足 내지 不便度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관광객들이 제주도 여행중에 느꼈던 不滿足 및 不便한 點에 대한 13개 항목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불편성향과 응답자의 사회적 변수에 따른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㉞ 內國人 觀光客이 제주도 旅行中에 가장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항으로는 물가가 비싸다(20.4%)를 지적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관광지의 입장료가 과다하다에 13.1%, 관광지의 바가지요금 12.4%, 음식의 부적절 9.9%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가격과 요금, 음식에 대한 不便感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를 응답자의 일반적 성격에 따라 분석해 보면 <表Ⅳ-26>과 같다. 性別로는 남자가 숙박시설 및 항공편 등 예약의 어려움에 다소 높게 반응하고 있는데 반해, 여자는 각종 가격과 요금에 대한 불편을 높게 지적하고 있다.

年齡別로 보면 관광지의 바가지요금에는 젊은층일수록 더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음식의 부적절에는 40대가 20.8%의 응답률로 가장 높게 지적하고 있다. 또한 50세 이상은 관광종사원의 불친절 및 상품강매행위에 11.1%, 호객행위에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教育水準別로 여행중 不便한 點을 살펴보면 고졸은 물가가 비싸다에 26.0%, 중졸 이하와 대졸 이상은 관광지 입장료과다에 각각 21.1%와 21.3%로 가장 높게 응답하고 있다.

㉟ <表Ⅳ-26>과 같이 外國人은 제주도 여행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으로 호객행위(23.4%)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고, 이어서 관광안내시설 및 자료의 부족과 기후조건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어 內國人的 경우와는 크게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外國人은 전반적으로 서어비스의 미비와 기후조건 등에 대한 불편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하에서는 性別, 年齡別, 教育水準別 등 응답자의 일반적 성격에 따라 外國人的 不便한 사항의 변화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不便한 점에 대한 남녀간의 차이는 관광업체의 서어비스부족과 물가가 비싸다 등에서 남자가 높게 반응하고 있으며, 여자는 숙박시설 및 항공편 등 예약의 어려움, 기후조건 등에서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年齡別로는 숙박시설 및 항공편 등 예약의 어려움에 연령층이 낮을수록 높게 지적하고 있으며, 음식의 부적절에는 30~39세, 각종 관광시설의 불결에는 40~49세, 물가가 비싸다

< 表Ⅳ-26 > 제주도 여행중 불편한 점

구	분	계 (명)	성		연령				교육수준			
			남	여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중이하	고졸	대재	대이상
					(명)	(%)	(명)	(%)	(명)	(%)	(명)	(%)
계 (명)	내국인	1,088 (100.0)	800 (100.0)	288 (100.0)	733 (100.0)	233 (100.0)	77 (100.0)	45 (100.0)	33 (100.0)	285 (100.0)	604 (100.0)	164 (100.0)
	외국인	137 (100.0)	111 (100.0)	26 (100.0)	43 (100.0)	34 (100.0)	31 (100.0)	23 (100.0)	1 (100.0)	36 (100.0)	2 (100.0)	82 (100.0)
숙박시설 및 항공편 등 예약의 어려움	내국인	63 (5.8)	6.9	2.8	4.6	8.2	7.8	8.9	12.1	6.3	5.1	6.1
	외국인	13 (9.4)	8.1	15.4	16.3	8.8	6.5	-	-	8.3	-	9.8
음식의 부적절	내국인	108 (9.9)	9.3	11.8	8.9	9.4	20.8	11.1	6.1	10.9	11.1	4.3
	외국인	10 (7.3)	7.2	7.7	7.0	11.7	6.5	-	-	5.6	50.0	7.3
관광지 입장료 파다	내국인	143 (13.1)	13.6	11.8	13.2	13.3	15.6	6.7	21.1	11.6	11.3	21.3
	외국인	5 (3.6)	4.5	-	2.3	5.9	-	8.7	-	5.6	-	3.7
물가가 비쌌	내국인	222 (20.4)	19.9	21.9	20.3	22.3	16.9	17.8	15.2	26.0	19.7	14.6
	외국인	7 (5.1)	6.3	-	7.0	2.9	3.2	13.0	-	-	-	8.5
관광업체의 서비스 부족	내국인	52 (4.8)	4.8	4.9	4.6	5.2	2.6	8.9	6.1	2.8	6.1	2.4
	외국인	8 (5.8)	7.2	-	-	8.8	6.5	4.3	-	8.3	-	6.1
교통의 불편	내국인	60 (5.5)	5.0	6.9	6.3	3.0	5.2	6.7	9.1	4.2	5.0	9.1
	외국인	7 (5.1)	5.4	3.8	2.3	8.8	6.5	4.3	-	8.3	-	4.9

(단위: %)

각종 관광시설의 불결	내국인	17 (1.6)	1.4	2.1	1.8	0.9	1.3	2.2	6.1	1.4	1.5	1.2
	외국인	9 (6.6)	7.2	3.8	-	5.9	16.1	8.7	-	8.3	-	4.9
관광안내시설 및 자료부족	내국인	64 (5.9)	6.9	3.1	5.2	6.9	7.8	8.9	-	6.0	5.6	7.9
	외국인	14 (10.2)	9.9	11.5	11.6	5.9	9.7	13.0	-	8.3	-	12.2
관광지의 바가지 요금	내국인	135 (12.4)	11.8	14.2	14.1	10.3	6.5	6.7	3.0	13.3	12.6	12.2
	외국인	8 (5.8)	6.3	3.8	2.3	-	12.9	8.7	-	5.6	-	7.3
호객행위	내국인	43 (4.0)	4.1	3.8	4.8	3.0	2.6	-	-	3.2	4.6	4.3
	외국인	32 (23.4)	22.5	26.9	30.0	17.6	9.7	34.8	100.0	16.7	50.0	24.4
관광종사원의 불친절 및 상품강매행위	내국인	62 (5.7)	5.9	5.2	5.7	5.6	2.6	11.1	9.1	5.3	6.3	3.7
	외국인	4 (2.9)	3.6	-	2.3	5.9	-	4.3	-	5.6	-	1.2
기후조건	내국인	32 (2.9)	3.1	2.4	2.4	3.0	5.2	6.7	6.1	2.8	2.2	5.4
	외국인	14 (10.2)	7.2	23.1	14.0	8.8	19.4	-	-	11.1	-	9.8
기념품 등의 품질수준 불만족	내국인	86 (7.9)	7.5	9.0	8.0	9.0	5.2	4.4	6.1	6.3	8.9	7.3
	외국인	6 (4.4)	4.5	3.8	4.7	8.8	3.2	-	-	8.3	-	-

註: 복수응답임.

와 호객행위에는 50세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教育水準別로는 고졸의 경우 교통의 불편, 각종 관광시설의 불편, 기념품의 품질수준 등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보이고 있고, 대졸 이상은 물가와 관광안내시설 및 자료의 부족 등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이 內·外國人間에는 제주도 여행중에 불편감 내지 불만족을 느끼는 바가 서로 상이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성별이나 연령층은 가릴 것 없이 內國人是 물가가 비싸다는 점과 바가지 요금에 外國人은 호객행위 등에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으므로 적정가격체계의 확립과 상거래의 질서유지를 적극 실천하여야 하겠다.

⑬ 旅行時의 애로사항

濟州道를 방문하는 觀光客들의 애로사항은 <表Ⅳ-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內國人是 음식에 대해서 30.0%로 가장 높게 응답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 서어비스, 기후 등의 순으로 고른 응답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外國人 觀光客의 애로사항은 교통에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어서 기후 24.6%, 숙박시설 14.8%, 음식 13.1%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㉞ 內國人 觀光客의 애로사항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숙박시설과 기후에서 여자보다 높게 반응하고 있으나, 교통과 음식 등에서는 여자가 높게 나타났다.

年齡別로는 29세 이하가 위락시설에 10.9%, 30~39세는 숙박시설과 기후에 각각 11.5%와 16.1%, 40~49세는 음식에 58.1%, 50세 이상은 교통과 서어비스에 각각 25.0%, 31.3%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하고 있다.

職業別로는 교통에 농림·어업자와 학생, 숙박시설에 학생, 음식에 주부와 기능·작업직, 기후에 농림·어업자와 자영업자, 서어비스에 무직, 그리고 위락시설의 부족에 판매·서어비스직 등이 다른 계층보다 많은 애로점을 느끼고 있다.

教育水準別로 살펴본 內國人 觀光客의 애로사항은 중졸 이하가 숙박시설에 25.0%, 고졸이 음식과 위락시설의 부족에 각각 40.4%와 13.5%, 대졸은 교통과 기후에 각각 26.4%, 그리고 대졸 이상은 서어비스에 20.7%의 응답률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所得水準別로는 별 유의한 差가 없이 고른 응답분포를 보이고 있다.

㉟ 外國人 觀光客이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을 性別로 보면 남자는 교통과 위락시설의 부족에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자는 그 이외의 사항에서 남자보다 높게 반응하고 있다.

年齡別로는 숙박시설에 대해서 30대 이하인 낮은 연령층이 높게 응답하고 있는데 반해, 서어비스에 대해서는 연령층이 높을수록 많은 애로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음식과 기후



에 대해서는 40~49세가 가장 높게 표시하고 있다.

職業別로는 자영업자와 기능·작업직이 교통에 각각 43.8%, 50.0%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숙박시설에는 학생, 음식과 서어비스에는 판매·서어비스직, 그리고 기후에는 판매·서어비스직과 경영·관리직이 가장 높게 응답하고 있다.

教育水準別로 애로사항을 파악해 보았을 때에는 고졸이 교통, 대재는 서어비스, 대졸 이상은 기후에 각각 높게 응답하고 있다.

所得水準別로는 낮은 소득층일수록 음식에 많은 애로점을 느끼고 있고, 중간 소득층 이상은 교통에 많은 애로사항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50~60만원의 소득계층은 기후에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결과로 볼 때, 內國人 觀光客의 입장에서 濟州道는 구미에 맞는 음식의 개발이 미비한 실정이고, 또한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交通利用手段이 제한되어 있어 접근도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外國人 觀光客의 입장에서는 일부 일본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國內·外 他地域을 경유해야 하는 접근의 곤란성과 기후에 대하여 가장 많은 애로점을 느끼고 있다.

#### ⑩ 濟州道の 適正旅行期間

濟州道를 방문하는 內國人 觀光客은 <表Ⅳ-28>에서 보듯이 本道를 여행하는 적정기간으로 3박4일에 54.3%나 응답하여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2박3일 18.2%, 4박5일 18.0%, 5박 이상 8.9%의 순으로 응답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이 제주도를 여행하는 적정기간으로 3박4일을 중심으로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주요 觀光需要를 창출하는 市場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교통수단의 제한 등으로 여행기간 성향에 있어서 국내여타의 觀光地와는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性別과 年齡別로 살펴보았을 때, 별 유의한 差가 없으며, 職業別로는 학생이 4박5일과 5박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教育水準別로도 대재는 4박5일과 5박 이상에 각각 40.0%, 29.1%의 반응을 보이고 있고, 고졸과 대졸은 3박4일에 각각 55.4%와 59.3%의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所得水準別로는 학생이 포함된 2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오히려 고소득층보다 장기적인 여행기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앞서 살펴본 內國人의 여행일정으로 2박3일(50.0%)이 가장 보편적이었다는 점과 비교해 보면 관광객들은 時間的으로 충분한 여행기간을 갖고 있지 못했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表IV - 27 > 제주도 여행의 애로사항

(단위 : %)

구분	계 (명)		교 통		숙박시설		음 식		기 후		서비스		위락시설의 부족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계 (명)	373 (100.0)	61 (100.0)	79 (21.2)	18 (29.5)	33 (8.8)	9 (14.8)	112 (30.0)	8 (13.1)	46 (12.3)	15 (24.6)	67 (18.0)	6 (9.8)	36 (9.7)	5 (8.2)
성별														
남	266 (100.0)	52 (100.0)	19.2	32.7	10.5	13.5	27.4	9.6	14.3	23.1	17.7	11.5	10.2	9.6
여	107 (100.0)	9 (100.0)	24.3	11.1	4.7	22.2	36.4	33.3	7.5	33.3	18.7	-	8.4	-
연령														
29세 이하	239 (100.0)	25 (100.0)	22.6	20.0	8.4	20.0	28.5	20.0	12.1	28.0	17.6	4.0	10.9	8.0
30 ~ 39세	87 (100.0)	14 (100.0)	20.7	35.7	11.5	28.6	24.1	7.1	16.1	14.3	19.5	7.1	8.0	14.3
40 ~ 49세	31 (100.0)	8 (100.0)	9.7	25.0	9.7	-	58.1	25.0	6.5	37.5	9.7	12.5	6.5	-
50세 이상	16 (100.0)	13 (100.0)	25.0	30.8	-	-	31.3	-	6.3	23.1	31.3	30.8	6.3	15.4
직업														
농림·어업	3 (100.0)	-	33.3	-	-	-	-	-	33.3	-	33.3	-	-	-
자영업	21 (100.0)	16 (100.0)	4.8	43.8	9.5	12.5	19.0	-	28.6	6.3	23.8	18.8	14.3	18.8
판매·서비스직	26 (100.0)	4 (100.0)	11.5	-	-	-	38.5	25.0	11.5	50.0	15.4	25.0	23.1	-
기능·작업직	10 (100.0)	6 (100.0)	10.0	50.0	10.0	33.3	40.0	16.7	10.0	-	30.0	-	-	-
사무·기술직	120 (100.0)	14 (100.0)	22.5	28.6	10.8	7.1	32.5	21.4	6.7	35.7	16.7	7.1	10.0	-
경영·관리직	18 (100.0)	5 (100.0)	22.2	20.0	5.6	-	27.8	20.0	11.1	40.0	16.7	-	16.7	20.0

전문·자유직	75 (100.0)	9 (100.0)	24.0	22.2	9.3	33.3	25.3	11.1	12.8	33.3	21.3	-	8.0	-
주부	37 (100.0)	-	24.3	-	2.7	-	43.2	-	5.4	-	18.9	-	5.4	-
학생	52 (100.0)	1 (100.0)	25.0	-	13.5	100.0	17.3	-	27.0	-	11.5	-	5.8	-
무직	5 (100.0)	1 (100.0)	-	-	-	-	40.0	-	-	100.0	40.0	-	20.0	-
중졸이하	12 (100.0)	-	25.0	-	25.0	-	16.7	-	25.0	-	8.3	-	-	-
고졸	89 (100.0)	12 (100.0)	16.9	33.3	7.9	25.0	40.4	-	4.5	16.7	16.9	8.3	13.5	16.7
대재	53 (100.0)	4 (100.0)	26.4	-	13.2	25.0	17.0	-	26.4	-	11.3	75.0	5.7	-
대졸이상	217 (100.0)	39 (100.0)	21.2	28.2	7.4	12.8	29.5	15.4	11.5	30.1	20.7	5.1	9.7	7.7
20만원 이하	63 (100.0)	2 (100.0)	25.4	-	12.7	50.0	19.0	50.0	22.2	-	14.3	-	6.3	-
20~30만원	39 (100.0)	4 (100.0)	17.9	-	15.4	-	35.9	50.0	10.3	25.0	17.9	25.0	2.6	-
30~40만원	105 (100.0)	10 (100.0)	19.0	50.0	5.7	10.0	30.5	-	11.4	20.0	21.9	-	11.4	20.0
40~50만원	54 (100.0)	3 (100.0)	25.9	33.3	9.3	33.3	31.5	-	5.6	-	20.4	33.3	7.4	-
50~60만원	39 (100.0)	7 (100.0)	20.5	28.6	10.3	14.3	25.6	-	17.9	42.9	12.8	14.3	12.8	-
60만원 이상	60 (100.0)	11 (100.0)	15.0	27.3	6.7	9.1	35.0	-	10.0	18.2	18.3	27.3	15.0	18.2

註: 무응답은 제외 한 것임.

〈表IV-28〉 濟州道の 連正旅行期間 (內國人)

(단위 : %)

구	분	계	1박2일	2박3일	3박4일	4박5일	5박 이상
성별	남	473(100.0)	3(0.6)	86(18.2)	257(54.3)	85(18.0)	42(8.9)
	여	349(100.0)	0.6	18.3	55.3	17.2	8.6
		124(100.0)	0.8	19.4	50.8	19.4	9.7
연령별	20세	279(100.0)	1.1	15.8	51.6	21.8	9.7
	30세	104(100.0)	-	24.0	51.0	14.4	10.6
	40세	51(100.0)	-	15.7	64.7	13.7	5.9
	50세 이상	39(100.0)	-	23.1	69.2	5.1	2.6
직업별	농림·어업	5(100.0)	-	20.0	20.0	20.0	40.0
	영업	31(100.0)	-	22.6	64.5	12.9	-
	판매·서비스직	39(100.0)	-	17.9	69.2	10.3	2.6
	기능·작업직	21(100.0)	-	38.1	42.9	14.3	4.8
	사무·기술직	148(100.0)	1.4	21.6	59.5	12.2	5.4
	경영·관리직	32(100.0)	-	9.4	68.8	18.8	3.1
	자유	82(100.0)	-	18.3	52.4	20.7	8.5
	전문·자부	45(100.0)	-	17.8	55.6	11.1	15.6
	학생	56(100.0)	1.8	3.6	26.8	41.1	26.8
	무직	5(100.0)	-	20.0	60.0	20.0	-
교수	출이	18(100.0)	5.6	16.7	61.1	16.7	-
준	출	121(100.0)	1.7	24.8	55.4	10.7	7.4
별	재	55(100.0)	-	3.6	27.3	40.0	29.1
	상	270(100.0)	-	18.5	59.3	16.3	5.9
소득수	만원 이하	71(100.0)	1.4	7.0	32.4	35.2	23.9
수	~ 30만원	47(100.0)	-	17.0	55.3	19.1	8.5
준	~ 40만원	116(100.0)	0.9	25.0	54.3	13.8	6.0
별	~ 50만원	67(100.0)	1.5	14.9	65.7	14.9	3.0
	~ 60만원	49(100.0)	-	28.6	61.2	6.1	4.1
	이상	78(100.0)	-	15.4	61.5	14.1	9.0

註: 복수응답임.

### 3) 觀光費用 分析

觀光客이 旅行中 支出한 經費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는 地域經濟的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의 旅行費用構造分析은 앞으로의 여행비용 연구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술연구의 진척 및 실무적인 입장에서의 여행비용이 끼치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코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연구의 결과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전체 觀光客의 特性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며, 標本調査期間에 설문에 응한 관광객의 특성에 불과하다는 제한점을 앞에서 이미 밝혔다. 즉 자료조사의 制約에 의해 조사기간이 일정 시기에 집중됨으로 인해서 모든 계층에 대한 代表性을 가질 수 있는 조사자료의 결과추출이 미흡하다는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sup>20)</sup>

#### ① 濟州道 來道 觀光客의 1人當 總 旅行經費의 構造

㉞ 제주도를 방문하는 內國人 觀光客들이 1人當 旅行經費를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한 본 조사의 설문결과는 <表 IV-29>와 같다. 즉 내국인 관광객의 1人當 平均所要經費는 211,381 원 (천도 항공·선박요금 포함)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86年의 “濟州道 地域觀光所得分析”에서 조사한 결과 나타난 170,000 원보다 약 24%나 증가된 규모이다. 旅行經費의 지출범위에 있어서는 15~20 만원이 18.1%, 10~15 만원이 17.4%, 20~25 만원이 17.2%, 30 만원 이상 16.7%, 25~30 만원 14.0% 등의 순을 차지하여 다양한 비용지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를 응답자의 일반적 성격에 따라 여행경비지출구조를 분석해 보면, 性別로는 가장 적은 금액인 5만원 미만과 가장 많은 금액인 30만원 이상에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20~25 만원에서는 여자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남녀간의 비율이 별 차이가 없다.

年齡別 1人當平均旅行經費는 50세 이상은 15~20 만원에 26.1%와 5~10 만원에 21.7%, 40~49세는 10~15 만원에 35.1%, 29세 이하는 25~30 만원에 16.2%로 각각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30만원 이상에서는 50세 이상이 8.7%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職業別로는 5만원 미만에서는 농림·어업과 학생이 가장 높고, 5~10 만원에 있어서는 학생과 무직, 최고액인 30만원 이상에서는 사무·기술직이 22.4%로 가장 높으며, 이어서 경영·관리직, 전문·자유직 등이 高額의 여행경비를 지출하는 직종임이 드러나고 있다. 1人當

20)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소득수준별 등의 人口變數의 社會經濟的 特性에 따른 총 관광객수의 자료가 수집되어 있을 경우에는 比例標集을 통한 일정한 加重值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旅行費用構造를 分析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료의 부족으로 계층별 加중평균배분작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

〈表Ⅳ-29〉 內國人觀光客의 1人당 總 旅行經費

구 분		계(명)	5만원 미만	5~10만원	10~15만원	15~20만원	20~25만원	25~30만원	30만원이상	1인당 평균
계(명)		408(100.0)	25(6.1)	43(10.5)	71(17.4)	74(18.1)	70(17.2)	57(14.0)	68(16.7)	211,381원
성 별	남	294(100.0)	8.2	10.5	17.7	18.0	15.0	13.3	17.3	
	여	114(100.0)	0.9	10.5	16.7	18.4	22.8	15.8	14.9	
연 령 별	29세 이하	259(100.0)	9.7	10.4	12.0	17.8	16.6	16.2	17.4	
	30~39세	89(100.0)	-	6.7	23.6	18.0	19.1	13.5	19.1	
	40~49세	37(100.0)	-	13.5	35.1	16.2	16.2	8.1	10.8	
	50세 이상	23(100.0)	-	21.7	26.1	26.1	17.4	-	8.7	
직 업	농림·어업	5(100.0)	40.0	20.0	20.0	-	-	20.0	-	
	자영업	18(100.0)	-	5.6	55.6	5.6	5.6	11.1	16.7	
	판매·서비스직	34(100.0)	-	5.9	11.8	35.3	11.8	20.6	14.7	
	기능·작업직	14(100.0)	-	-	21.4	35.7	14.3	21.4	7.1	
	사무·기술직	134(100.0)	0.7	9.0	19.4	14.2	19.4	14.9	22.4	
	경영·관리직	24(100.0)	-	-	20.8	12.5	25.0	20.8	20.8	
	전문·자유직	72(100.0)	1.4	8.3	12.5	26.4	20.8	11.1	19.4	

(단위 : %)

별	부	42(100.0)	-	7.1	16.7	14.3	28.6	19.0	14.3
학	생	55(100.0)	38.2	27.3	9.1	10.9	3.6	3.6	7.3
무	직	4(100.0)	-	25.0	-	25.0	25.0	25.0	-
교육수준별	중	17(100.0)	-	35.3	41.1	-	11.8	5.9	5.9
	고	105(100.0)	1.0	10.5	22.9	20.0	18.1	16.2	11.4
	대	54(100.0)	40.7	24.1	9.3	11.1	1.9	3.7	9.3
	대	230(100.0)	0.9	5.7	14.8	20.4	20.9	16.1	21.3
소득수준별	20만원 이하	69(100.0)	33.3	23.1	11.6	13.0	7.2	5.8	5.8
	20~30만원	45(100.0)	-	15.6	24.4	15.6	13.3	15.6	15.6
	30~40만원	106(100.0)	1.9	5.7	14.2	21.7	18.9	17.9	19.8
	40~50만원	61(100.0)	-	9.8	16.4	16.4	19.7	16.4	21.3
	50~60만원	42(100.0)	-	2.4	21.0	11.9	23.8	21.9	19.0
	60만원 이상	70(100.0)	-	8.6	15.1	24.3	17.1	14.3	20.6

註: 무응답은 제외한 것임.

平均旅行經費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15~20만원일 때는 판매·서비스직과 기능·작업직이 각각 35.3%와 35.7%로 비중이 가장 크고, 10~15만원에서는 자영업이 55.6%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10~15만원대부터 학생과 농림·어업자의 비율이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경제력에 있어서의 이 계층의 상대적 열세를 짐작할 수 있다.

教育水準別 1人當 平均여행경비는 중졸 이하와 大在는 15~20만원대 이하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졸과 대졸 이상은 10~15만원에서부터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所得水準別 分布는 20만원 이하가 여행경비규모가 적을수록 응답률이 높고, 所得이 높아질수록 여행비용지출이 많아지고 있어 旅行費用과 所得과의 관계는 正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㉔ 外國人의 경우도 1人當 平均旅行經費가 431,930원(항공·선박요금 제외)으로 1986년의 “濟州道 地域觀光所得分析”에서 조사결과 나타난 406,000원보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1986년에 韓國觀光公社가 조사한 全國 外來觀光客의 1人當 平均 旅行經費支出額 745,000원보다는 다소 적은 수준이다. 旅行經費의 액수별 지출범위는 <表Ⅳ-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50만원대가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70만원 20.6%, 10~30만원 19.1%, 70만원 이상 17.6%, 10만원 미만 10.3%의 순으로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性別로 살펴보면 30만원 이상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30만원 이하에서는 남녀의 응답비율이 역전되고 있다.

年齡別로는 10만원 미만에 29세 이하가 17.4%, 10~30만원대에는 40~49세 28.6%, 30~50만원대에는 30~39세 40.0%로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는 반면, 50~70만원대는 40~49세 7.1%, 70만원 이상에는 29세 이하 8.7%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職業에 따른 1人當 平均旅行經費는 10만원 미만에서 주부, 사무·기술직, 전문·자유직의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최고액인 70만원 이상에서는 경영·관리직이 37.5%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에 자영업자, 전문·자유직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1人當 平均旅行經費가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는 30~50만원대는 사무·기술직이 53.3%로 비중이 비교적 높고, 이어서 판매·서비스직, 경영·관리직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教育水準別로는 고졸이 대졸보다 많은 액수의 지출규모에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다.

## ② 主要項目別 旅行經費構造

㉕ 內國人 觀光客이 支出하는 1人當 平均旅行經費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表Ⅳ-31>과 같이 宿泊費가 42,759원으로 전체의 20.2%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記念品購入費 16.3%, 道內交通費 13.0% 등의 순을 보이고 있다. 1986년에 조사한 자료와



〈表Ⅳ-30〉 外國人觀光客의 1人當 總 旅行經費

(단위 : %)

구분	계(명)	10만원 미만	10~30만원	30~50만원	50~70만원	70만원 이상	1인당 평균
계(명)	68(100.0)	7(10.3)	13(19.1)	22(32.4)	14(20.6)	12(17.6)	431,930 원
성별							
남	56(100.0)	7.1	17.9	32.1	21.4	21.4	
여	12(100.0)	25.0	25.0	33.1	16.7	-	
연령별							
29세 이하	23(100.0)	17.4	21.7	26.1	26.1	8.7	
30~39세	15(100.0)	6.7	6.7	40.0	26.7	20.0	
40~49세	14(100.0)	14.3	28.6	21.4	7.1	28.5	
50세 이상	16(100.0)	-	25.0	37.5	18.8	18.8	
직업							
농림·어업	-	-	-	-	-	-	
자영업	13(100.0)	-	7.7	30.8	30.8	30.8	
판매·서비스직	5(100.0)	-	20.0	40.0	40.0	-	
기능·작업직	7(100.0)	14.3	28.6	-	57.1	-	
사무·기술직	15(100.0)	20.0	6.7	53.3	6.7	13.3	
경영·관리직	8(100.0)	-	12.5	37.5	12.5	37.5	
전문·자유직	12(100.0)	16.7	41.7	8.3	8.3	25.0	
주부	3(100.0)	33.3	-	33.3	33.3	-	
학생	1(100.0)	-	-	100.0	-	-	
무직	1(100.0)	-	100.0	-	-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00.0)	-	100.0	-	-	-	
고졸	17(100.0)	11.8	5.9	35.5	23.5	23.5	
대졸	1(100.0)	-	-	100.0	-	-	
대졸이상	42(100.0)	7.1	21.4	31.0	19.0	21.4	

註: 무응답은 제외 한 것임.

비교해 볼 때는 기념품구입비와 숙박비, 기타 잡비 등에서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表Ⅳ-31> 내국인관광객의 여행경비 지출 구조 비교

구분 항목	1986년		1987년	
	금액(원)	구성비(%)	금액(원)	구성비(%)
숙박비	31,000	18.2	42,759	20.2
음식료비	18,000	10.6	21,517	10.2
도내교통비	21,000	12.4	27,501	13.0
유흥비	23,000	13.5	22,353	10.6
입장료	-	-	9,694	4.6
기념품구입비	17,000	10.0	34,560	16.3
항공·선박요금	48,000	28.2	27,007	12.8
기타·잡비	12,000	7.1	25,990	12.3
계	170,000	100.0	211,381	100.0

註: 1) 1987년 항공·선박요금은 편도요금임.

2) 1986년 입장료는 도내교통비에 포함됨 (제주대학교 사회발전연구 제3집, 1987. P.386. 참조)

⊕ 外國人 觀光客의 경우도 <表Ⅳ-32>에서 보듯이 宿泊費가 108,426원으로 전체의 25.1%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遊興費 23.0%, 記念品購入費 18.3%, 飲食料費 13.4%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986년에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면 위의 항목들의 지출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전체 여행경비중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와같은 결과를 英國의 觀光振興을 위한 開發指標로서 활용되었던 「표준적인 해외관광객의 여비지출구조」의 자료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表Ⅳ-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숙박비가 전체의 30%로 가장 높은 범위를 차지하여, 오히려 1987년에 濟州道를 방문한 內國人과 外國人보다는 각각 9.8%, 4.9%만큼 더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음식료비도 숙박비와 마찬가지로 英國에서 조사된 지표가 내국인 관광객보다 14.8%, 외국인 관광객보다 11.6%나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 이외에 기념품구입비 항목에서 제주도 관광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교통비와 유흥오락비에서는 오히려 濟州道 觀光客들이 전체 여행경비 중 지출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外國人 觀光客의 경우 유흥오락비 항목에 있어서 英國이 사용하는 지표에 비해 13%나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表Ⅳ-32〉 외국인관광객의 여행경비 지출구조 비교

구분 항목	1986년		1987년	
	금액(원)	구성비(%)	금액(원)	구성비(%)
숙박비	75,000	18.5	108,426	25.1
음식료비	38,000	9.4	57,774	13.4
도내교통비	52,000	12.8	49,627	11.5
유홍비	39,000	9.6	99,462	23.0
입장료	-	-	15,333	3.5
기념품구입비	45,000	11.1	79,020	18.3
항공·선박요금	124,000	30.5	-	-
기타·잡비	33,000	8.1	22,288	5.2
계	406,000	100.0	431,930	100.0

註: 1) 1987년 외국인의 항공·선박요금은 제외

2) 1986년 입장료는 도내교통비에 포함됨 (제주대학교 사회발전연구 제3집, 1987, p. 386. 참조)

〈表Ⅳ-33〉 英國의 海外觀光客 旅行經費支出構造의 指標

항목	구성비(%)
숙박비	30
음식료비	25
교통비(관광지내)	5
유홍오락비	10
기념품구입비	25
기타잡비	5
계	100

資料: Michael Peters, "International Tourism," Hutchinson of London, 1969, p. 32.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래관광객의 절대 다수가 日本團體旅行者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이들이 많은 유홍비를 지출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성별, 연령별, 직업별, 교육수준별 등 관광객의 일반적 성격에 따라 旅行經費의 항목별 지출구조의 변화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③ 宿泊費

㉞ 內國人 觀光客이 제주도 여행중 지출한 1人當 平均宿泊費는 <表Ⅳ-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여행경비의 20.2%인 42,759 원이며, 응답자의 분포는 1~3만원이 41.6%, 3~5만원 23.3%, 7~9만원 9.9% 등의 순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性別로 살펴보면 별 유의한 差가 없으며, 年齡別로는 29세 이하가 3~5만원대에 26.0%, 30~39세가 9만원 이상에서 13.1%, 40~49세는 1~3만원 55.9%, 50세 이상은 1만원 미만에서 20.0%로 각각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이할만한 것은 나이가 많을수록 숙박비 지출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職業別로는 1만원 미만대에 학생과 농림·어업자, 1~3만원대는 기능·작업직과 자영업자, 3~5만원대는 경영·관리직, 그리고 5만원 이상에서는 전문·자유직과 사무·기술직이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教育水準에 따라서는 중졸 이하와 대재가 숙박비를 적게 지출하고 있으며, 고졸과 대졸은 학력순으로 다소 높게 지출하고 있다.

㉟ 外國人 觀光客의 1人當 平均宿泊費 支出은 총 여행경비의 25.1%인 108,416원이고, 그 분포는 9만원 이상에 67.7%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응답자의 일반적 성격에 따른 숙박비지출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性別, 年齡別, 教育水準別로는 별 有意性を 찾아볼 수 없다. 비교적 有意性이 있는 職業別로 볼 때, 판매·서어비스직은 5~7만원에 40.0%, 전문·자유직은 7~9만원에 20.0%로 다른 직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이 內·外國人 觀光客 모두가 제주도 여행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여행경비 항목으로 宿泊費에 응답하고 있는 것은 결국 관광객들의 消費를 유도할 수 있는 위락시설이나 쇼핑대상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飲食料費

㉞ 觀光客의 飲食料費의 지출은 道民의 所得과도 매우 관련이 깊은 항목이다. 內國人的의 경우 道內 여행기간동안 소비한 음식료비의 1人當 平均支出額은 전체 경비의 10.2%인 21,517 원으로 작년보다 다소 높아지고 있다. 그 응답분포는 <表Ⅳ-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만원이 27.2%로 가장 높고, 1만원 미만 25.4%, 2~3만원 20.8% 등의 순을 보이고 있다. 이를 性別로 보면 별 有意的인 差가 없으며, 年齡別로는 30~39세가 1만원 미만, 40~49세는 1~2만원에서 비교적 다른 연령층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職業別 平均 飲食料費는 숙박비와 마찬가지로 학생과 농림·어업자가 가장 적은 금액인 1만원 미만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1~2만원대는 판매·서어비스직이 42.4%, 무직 50%, 2~3

< 表IV - 34 > 宿泊費

구 분	계(명)		1만원 미만		1~3만원		3~5만원		5~7만원		7~9만원		9만원 이상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계(명)	365(100.0)	62(100.0)	35(9.6)	—	152(41.6)	4(6.5)	85(23.3)	5(8.1)	30(8.2)	7(11.3)	36(9.9)	4(6.5)	27(7.4)	42(67.7)
성 별	남	53(100.0)	11.5	—	41.0	5.7	21.1	7.5	9.6	11.3	9.6	7.5	7.3	67.9
	여	104(100.0)	4.8	—	43.3	11.1	28.8	11.1	4.8	11.1	10.6	—	7.7	66.7
연 령	29세 이하	227(100.0)	10.6	—	37.0	9.5	26.0	9.5	7.9	9.5	12.3	4.8	6.2	66.7
	30~39세	84(100.0)	3.6	—	46.4	7.1	20.2	—	8.3	7.1	8.3	11.1	13.1	78.6
	40~49세	34(100.0)	11.8	—	55.9	8.3	14.7	8.3	8.8	8.3	2.9	25.0	5.9	50.0
	50세 이상	20(100.0)	20.0	—	50.0	—	20.0	13.3	10.0	20.0	—	—	—	66.7
직 업	농림·어업	4(100.0)	50.0	—	25.0	—	—	—	25.0	—	—	—	—	—
	자영업	17(100.0)	17.6	—	52.9	—	11.8	—	5.9	8.3	—	8.3	11.8	83.3
	판매·서비스직	33(100.0)	3.0	—	57.6	—	18.2	—	6.1	40.0	9.1	—	6.1	60.0
	기능·작업직	14(100.0)	7.1	—	64.3	14.3	21.4	—	7.1	—	—	—	—	85.7
	사무·기술직	124(100.0)	5.6	—	45.2	7.1	19.4	21.4	8.9	7.1	12.9	7.1	8.1	57.1
	경영·관리직	22(100.0)	—	—	31.8	14.3	59.1	—	—	—	9.1	—	—	85.7
	전문·자유직	67(100.0)	7.5	—	32.8	10.0	26.9	10.0	11.9	10.0	10.4	20.0	10.4	50.0
	주부	39(100.0)	—	—	43.6	—	28.2	—	7.7	—	12.8	—	7.7	100.0
	학생	35(100.0)	42.9	—	22.9	—	14.3	—	8.6	—	2.9	—	8.6	100.0
	무직	4(100.0)	—	—	50.0	—	—	100.0	—	—	50.0	—	—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6(100.0)	25.0	—	50.0	—	18.8	—	6.3	—	—	—	—	100.0
	고졸	99(100.0)	6.1	—	50.5	6.7	25.3	6.7	5.1	13.3	5.1	6.7	8.1	66.7
	대졸	35(100.0)	45.7	—	22.9	—	11.4	—	8.6	—	2.9	—	8.6	100.0
	대졸이상	213(100.0)	4.2	—	39.9	7.7	24.4	2.6	9.9	12.8	14.1	7.7	7.5	69.2

註: 무응답은 제외된 것임.

〈表IV-35〉 飲食料費

구 분	계(명)		1만원 미만		1~2만원		2~3만원		3~4만원		4~5만원		5만원 이상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성 별	389(100.0)	63(100.0)	99(25.4)	-	106(27.2)	3(4.8)	81(20.8)	8(12.7)	35(9.0)	13(20.6)	40(10.3)	7(11.1)	28(7.2)	32(50.8)
연 령	282(100.0)	54(100.0)	26.2	-	27.3	5.6	22.3	13.0	7.8	18.5	8.9	13.0	7.4	50.0
성 별	107(100.0)	9(100.0)	23.4	-	27.1	-	16.8	11.1	12.1	33.3	14.0	-	6.5	55.6
29세 이하	244(100.0)	21(100.0)	27.5	-	28.3	4.8	21.0	4.8	8.6	33.3	8.6	9.5	6.1	47.6
30~39세	89(100.0)	15(100.0)	15.7	-	29.2	6.7	22.5	20.0	7.9	-	15.7	6.7	9.0	66.7
40~49세	35(100.0)	12(100.0)	31.4	-	11.4	-	22.9	25.0	14.3	8.3	11.4	8.3	8.6	58.3
50세 이상	21(100.0)	15(100.0)	33.3	-	33.3	6.7	9.5	-	9.5	33.3	4.8	20.0	9.5	40.0
농림·어업	5(100.0)	-	40.0	-	40.0	-	20.0	-	-	-	-	-	-	-
자 영 업	18(100.0)	12(100.0)	22.2	-	33.3	-	16.7	16.7	-	8.3	16.7	16.7	11.1	58.3
판매·서비스직	33(100.0)	5(100.0)	21.2	-	42.4	-	15.2	20.0	3.0	-	12.1	20.0	6.1	60.0
기능·직업직	14(100.0)	7(100.0)	21.4	-	7.1	14.3	50.0	14.3	7.1	28.6	14.3	-	-	42.9
사무·기술직	127(100.0)	14(100.0)	22.8	-	30.7	7.1	21.3	14.3	13.4	21.4	6.3	7.1	5.5	50.0
경영·관리직	24(100.0)	8(100.0)	-	-	20.8	12.5	29.2	-	16.7	12.5	16.7	25.0	16.7	50.0
전문·자유직	70(100.0)	10(100.0)	20.0	-	25.7	-	22.9	10.0	7.1	30.0	12.9	10.0	11.4	50.0
주 부 생	41(100.0)	2(100.0)	22.0	-	19.5	-	19.5	-	14.6	-	17.1	-	7.3	100.0
학 생	47(100.0)	1(100.0)	59.6	-	21.3	-	8.5	100.0	2.1	-	6.4	-	2.1	-
무 직	4(100.0)	1(100.0)	25.0	-	50.0	-	25.0	-	-	100.0	-	-	-	-
중 출 이 하	16(100.0)	1(100.0)	25.0	-	43.8	-	18.8	-	6.3	100.0	6.3	-	-	-
고 졸	102(100.0)	15(100.0)	24.5	-	27.5	6.7	22.5	33.3	9.8	-	10.8	6.7	4.9	53.3
대 재	46(100.0)	1(100.0)	63.0	-	19.6	-	8.7	100.0	-	-	6.5	-	2.2	-
대 출 이 상	223(100.0)	40(100.0)	17.9	-	27.4	2.5	22.9	5.0	10.8	22.5	11.2	15.0	9.9	55.0

註: 무응답은 제외한 것임

만원대는 기능·작업직이 50.0%, 5만원 이상대는 경영·관리직이 16.7%로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教育水準에 따라서는 중졸 이하가 1~2만원, 고졸과 대졸 이상이 2~3만원, 대재가 1만원 미만에서 높게 응답하고 있다.

④ 外國人 觀光客은 1人當 平均飲食料費로 전체 경비의 13.4%인 57,774원을 지출하고 있다. 지출구조의 분포는 5만원 이상이 응답자의 50.8%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3~4만원 20.6%, 2~3만원 12.7%, 4~5만원 11.1% 등의 순서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性別에 따라 살펴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다소 많은 음식료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年齡別로는 29세 이하와 50세 이상이 3~4만원에서 각각 33.3%, 40~49세는 2~3만원에서 25.0%, 30~39세는 5만원 이상에서 66.7%의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다. 職業別 음식료비 지출구조는 기능·작업직과 학생이 비교적 적게 지출하고 있고, 教育水準間에는 별 유의할 만한 차를 발견할 수 없다.

이와같이 外國人 觀光客이 內國人에 비해서 飲食料費 지출이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品質과 서어비스, 價格 등에서 수준이 높은 호텔食堂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道內交通費(안내수수료 포함)

濟州道內에서 觀光客 운송수단으로 이용되는 交通手段은 주로 관광전세버스, 택시, 렌트카, 시내·외버스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관광전세버스는 단체여행객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택시와 렌트카의 경우는 주로 신혼여행객과 가족동반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觀光客들이 이러한 交通手段을 이용한 댓가로 지출하는 交通費用은 雇傭效果뿐만 아니라 地域住民의 所得增大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濟州도를 방문하는 內國人 觀光客의 1人當 平均道內交通費(안내수수료 포함)는 전체비용의 13.0%인 27,501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表Ⅳ-36>에서와 같이 액수별 분포에 따라 살펴보면, 1~2만원대가 27.7%로 가장 높고, 1만원 미만 19.3%, 4~5만원 17.5%, 2~3만원 14.4%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性別에 따른 道內交通費 지출비율은 남자가 1만원 미만에서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1~2만원 이상에서는 모두 여자가 높게 응답하고 있다. 年齡別로는 29세 이하가 道內交通費中 최소액인 1만원 미만에서 23.5%의 응답률을 보여 가장 많고, 중간액수인 1~3만원에서는 40~49세와 50세 이상이 가장 많은 반면에 액수가 커질수록 30~39세와 29세 이하가 더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職業에 따른 平均道內交通費를 보면 1만원 미만에서는 농림·어업자와 무직이 각각 75.0%, 학생 60.8%의 순으로 높은 비율이 나타나고, 4만원 이상에 있어서는 경영·관리직과 전문·자유직 등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다. 教育水準別로는 다른 항목의 여행경비와 마찬가지로 학력이 가장 낮은 중졸 이하와 학생의 신분인 대재가 적은 액수에 응

〈表Ⅳ-36〉 道内交通費 (안내 수수로 포함)

구 분	계 (명)		1만원 미만		1~2만원		2~3만원		3~4만원		4~5만원		5만원 이상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계 (명)	388(100.0)	55(100.0)	74 (19.3)	3 (5.5)	106 (27.7)	14 (25.5)	55 (14.4)	8 (14.5)	30 (7.8)	4 (7.3)	67 (17.5)	6 (10.9)	51 (13.3)	20 (36.4)
성 별														
남	273(100.0)	48(100.0)	22.3	4.2	27.5	29.2	12.8	8.3	7.0	6.3	17.9	10.4	12.5	41.7
여	110(100.0)	7(100.0)	11.8	14.3	28.2	-	18.2	57.1	10.0	14.3	16.4	14.3	15.5	-
연 령														
29세 이하	243(100.0)	16(100.0)	23.5	12.5	21.8	6.3	14.0	25.0	8.2	12.5	18.1	6.3	13.6	37.5
30~39세	83(100.0)	14(100.0)	9.6	-	33.7	21.4	14.5	21.4	6.0	14.3	20.5	14.3	15.7	28.6
40~49세	35(100.0)	10(100.0)	8.6	10.0	42.9	20.0	20.0	-	11.4	10.0	8.6	10.0	8.6	50.0
50세 이상	22(100.0)	15(100.0)	18.1	-	45.4	53.3	9.1	6.7	4.5	-	13.6	13.3	9.1	26.7
직 업														
농림·어업	4(100.0)	-	75.0	-	-	-	-	-	-	-	-	-	-	25.0
자영업	17(100.0)	12(100.0)	5.9	-	41.2	16.7	17.6	-	11.8	-	17.6	16.7	5.9	66.7
판매·서비스직	33(100.0)	5(100.0)	18.2	-	27.3	40.0	12.1	20.0	6.1	-	18.2	20.0	18.2	20.0
기능·작업직	13(100.0)	5(100.0)	23.1	-	53.8	20.0	7.7	-	-	-	7.7	20.0	7.7	60.0
사무·기술직	125(100.0)	12(100.0)	10.4	8.3	30.4	25.0	14.4	33.3	12.0	8.3	17.6	-	15.2	25.0
경영·관리직	23(100.0)	6(100.0)	4.3	-	34.8	50.0	8.7	33.3	13.0	16.7	21.7	-	17.4	-
전문·자유직	66(100.0)	9(100.0)	12.1	11.1	28.8	22.2	16.7	-	1.5	11.1	24.2	11.1	16.7	44.4
주부	42(100.0)	2(100.0)	9.5	-	33.3	-	14.3	50.0	9.5	-	16.7	50.0	16.7	-
학생	51(100.0)	1(100.0)	60.8	100.0	8.8	-	15.7	-	3.9	-	9.8	-	2.0	-
무직	4(100.0)	1(100.0)	75.0	-	-	100.0	-	-	-	-	25.0	-	-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100.0)	1(100.0)	40.0	-	40.0	100.0	6.7	-	6.7	-	6.7	-	-	-
고졸	99(100.0)	14(100.0)	18.2	-	34.3	36.7	16.2	14.3	10.1	-	14.1	14.3	7.1	10.0
대졸	50(100.0)	1(100.0)	60.0	100.0	8.0	-	16.0	-	2.0	-	10.0	-	4.0	-
대졸이상	217(100.0)	34(100.0)	9.2	5.9	28.1	17.6	13.8	17.6	8.3	5.9	21.2	8.8	19.4	34.0

註: 무응답은 제외된 것임.



담하는 비율이 높고, 많은 액수인 경우 고졸보다 대졸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外國人의 경우 1人當 平均道內交通費는 총 여행경비의 11.5%인 49,627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그 분포는 최고액인 5만원 이상에서 36.4%로 가장 높고, 1~2만원 25.5%, 2~3만원 14.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性別로 보면 남자는 5만원 이상과 1~2만원에서 각각 41.7%와 29.2%로 높게 응답하고 있고, 여자는 2~3만원에서 57.1%로 가장 높게 응답하고 있다. 年齡別로는 1~2만원에서 50세 이상이 53.3%, 5만원 이상에 있어서는 40~49세 50.0%, 29세 이하 37.5%, 30~39세 28.6%, 50세 이상 26.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道內交通費 지출분포를 職業別로 보면 자영업자, 기능·작업직, 전문·자유직의 순으로 많은 交通費用을 지출하고 있고, 경영·관리직, 판매·서비스직, 사무·기술직 등은 1~3만원대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 ⑥ 遊興娛樂費

㉞ 濟州道の 市部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遊興娛樂서비스업종에 상대적으로 特化되어 있다. 유흥오락서비스업은 소비지향적인 특성을 지닌 만큼 都市經濟成長에 매우 민감하며, 이들 업소의 이용과정에서 불건전한 사치, 퇴폐 및 소비풍조가 만연하는 등의 逆機能的인 측면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유흥오락서비스업은 이들 업소의 서비스수준을 높이며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건전한 觀光客의 휴식처 내지 위락시설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濟州地域經濟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內國人 觀光客이 濟州道에서 여행중 소비하는 1人當 平均遊興娛樂費는 총 여행비용의 10.6%인 22,253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Ⅳ-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액수별 분포는 1~2만원이 30.9%, 1만원 미만이 28.4%, 2~3만원이 18.1%로 나타나 3만원 이하를 지출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77.4%를 점하고 있다. 이를 性別로 볼 때 별 유의할만한 差가 없으며, 年齡別로는 젊은층일수록 1만원 미만에서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많을수록 1~2만원 이상에서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職業別로 유흥오락비의 지출을 살펴보면 1만원 미만에서는 농림·어업자, 학생, 무직의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고, 1~2만원에서는 전문·자유직, 경영·관리직, 자영업자와 사무·기술직의 순서로 높게 응답하고 있다. 또한 2~3만원대는 주부가 38.9%, 4~5만원대는 기능·작업직이 28.6%, 최고액인 5만원 이상에서는 경영·관리직이 16.7%로 다른 직업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教育水準別로는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중졸 이하와 대졸은 최소액수인 1만원 미만에서 높게 나타났고, 대졸은 2~3만에서, 고졸은 3~4만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㉟ 外國人 觀光客의 경우는 제주도를 여행하는 동안 1人當 平均遊興娛樂費로 총 여행비용의 23.0%인 99,462원을 지출하였다. 이 액수는 內國人 觀光客의 유흥오락비 지출액에 비해 77,209원이나 더 많은 것이다. 액수별 분포는 <表Ⅳ-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

〈表IV-37〉 遊興娛樂費 (內國人)

구분		계(명)	1만원 미만	1~2만원	2~3만원	3~4만원	4~5만원	5만원 이상	(단위: %)
구분		계(명)	1만원 미만	1~2만원	2~3만원	3~4만원	4~5만원	5만원 이상	(단위: %)
성별	남	145(100.0)	29.0	31.7	17.2	6.4	12.4	3.4	
	여	59(100.0)	27.1	28.8	20.3	8.5	8.5	6.8	
연령별	29세 이하	147(100.0)	30.6	31.3	17.0	6.1	10.2	4.8	
	30~39세	42(100.0)	23.8	28.6	16.7	11.9	14.3	4.8	
	40~49세	9(100.0)	22.2	33.3	33.3	-	11.1	-	
	50세 이상	6(100.0)	16.7	33.3	33.3	-	16.7	-	
직업별	농림·어업	1(100.0)	100.0	-	-	-	-	-	
	자영업	9(100.0)	22.2	33.3	11.1	11.1	22.2	-	
	판매·서비스직	21(100.0)	28.6	19.0	23.8	9.5	19.0	-	
	기능·작업직	7(100.0)	-	28.6	28.6	-	28.6	14.3	
	사무·기술직	66(100.0)	25.8	33.3	19.7	6.1	12.1	3.0	
	경영·관리직	12(100.0)	16.7	41.7	16.7	8.3	-	16.7	
	전문·자유직	40(100.0)	22.5	45.0	7.5	5.0	12.5	7.5	
	주부	18(100.0)	27.8	11.1	38.9	11.1	5.6	5.6	
	학생	26(100.0)	57.7	26.9	7.7	3.8	3.8	-	
	무직	4(100.0)	50.0	50.0	-	-	-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4(100.0)	50.0	25.0	-	-	25.0	-	
	고졸	53(100.0)	26.4	28.3	17.0	9.4	15.1	3.8	
	대졸	28(100.0)	57.1	25.0	10.7	3.6	3.6	-	
	대졸 이상	118(100.0)	21.2	33.9	21.2	6.8	11.0	5.9	

註: 무응답은 제외한 것임.

〈表Ⅳ-38〉 遊興娛樂費 (外國人)

구 분	계 (명)	계 (명)	(단위 : %)						
			2만원 미만	2~4만원	4~6만원	6~8만원	8~10만원	10만원 이상	
성 별	남	50(100.0)	7(14.0)	6(12.0)	6(12.0)	7(14.0)	4(8.0)	20(40.0)	
	여	44(100.0)	9.1	11.4	13.6	11.4	9.1	45.5	
	6(100.0)	50.0	16.7	-	-	33.3	-	-	
연 령 별	29세 이하	15(100.0)	26.7	13.3	13.3	20.0	6.7	20.0	
	30~39세	14(100.0)	14.3	-	-	28.6	-	42.9	
	40~49세	8(100.0)	-	25.0	25.0	-	-	50.0	
	50세 이상	13(100.0)	7.7	-	15.4	-	15.4	61.5	
직 업 별	농림·어업	-	-	-	-	-	-	-	
	자영업	12(100.0)	-	-	16.7	8.3	8.3	66.7	
	판매·서비스직	4(100.0)	25.0	-	-	-	-	75.0	
	기능·작업직	6(100.0)	16.7	16.7	16.7	33.3	-	16.7	
	사무·기술직	11(100.0)	18.2	16.7	-	9.1	18.2	36.4	
	경영·관리직	6(100.0)	-	33.3	16.7	16.7	-	33.3	
	전문·자유직	5(100.0)	40.0	-	20.0	-	-	40.0	
	주부	2(100.0)	-	50.0	-	50.0	-	-	
	학생	1(100.0)	-	-	-	-	100.0	-	
	무직	1(100.0)	100.0	-	-	-	-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100.0)	-	-	100.0	-	-	-	
	고졸	15(100.0)	6.7	13.3	6.7	13.3	-	60.0	
	대졸	1(100.0)	-	-	-	-	100.0	-	
	대졸 이상	30(100.0)	20.0	13.3	10.0	10.0	10.0	36.7	

註: 무응답은 제외 한 것임.

만원 이상이 40%로 가장 높고, 이어서 2만원 미만과 6~8만원에 각각 14.0%, 2~4만원과 4~6만원에 각각 12.0%의 순을 보이고 있다. 이를 性別로 보면 여자는 2만원 미만에서 남자보다 훨씬 많으며, 10만원 이상에서는 남자가 45.5%로 여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年齡別에 따른 유흥오락비 지출을 살펴보면 2만원 미만에는 젊은층일수록 높고, 최고액인 10만원 이상에서는 장년층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職業別로는 2만원 미만에 전문·자유직이 40.0%, 2~4만원에 주부가 50.0%, 10만원 이상에 판매·서비스직과 자영업자가 각각 75.0%, 66.7%로 비교적 높게 응답하고 있다. 教育水準別로 유흥오락비를 보면 고졸이 대졸보다 많은 액수에 높은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⑦ 觀光地 入場料

① 濟州道에서 현재 觀光客에게 관람료를 징수하는 有料觀光地는 20여 곳에 이르고 있고, 그 收入도 상당액에 달해 濟州道 地方財政收入 增大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濟州道를 방문하는 內國人 觀光客이 道內 有料觀光地에서 入場料로 소요된 1人當 平均費用은 총 여행비용의 4.6%인 9,694 원이며, 그 분포는 5,000~1만원이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어서 최소액인 5,000원 미만이 27.6%, 10,000~15,000원이 22.7%를 차지하고 있다(表Ⅳ-39 參照). 이를 性別로 보면 별 유의한 차가 없으며, 年齡別로는 젊은층일수록 入場料를 적게 지출하고 있다. 職業別 1人當 平均入場料 지출구조는 최소액인 5,000원 미만에서는 농림·어업자, 학생, 무직 등이 다른 항목에서와 같이 높게 응답하고 있고, 5,000~1만원에서는 자영업자 81.3%, 판매·서비스직 53.3%, 경영·관리직 52.6% 등의 순으로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10,000~15,000원에서는 기능·작업직이 3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教育水準別로 살펴보면 대재의 경우 5,000원 미만에 53.8%로 가장 높고, 그 이외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② 外國人 觀光客의 경우 道內 有料觀光地에서 지출한 1人當 平均入場料는 총 여행비용의 3.5%인 15,333 원이며, 그 분포는 10,000~15,000원에 28.6%의 응답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表Ⅳ-39>에서 보듯이 性別에 따른 1人當 平均入場料는 5,000원 미만부터 10,000원까지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지출하고 있으나, 10,000~15,000원부터는 남녀 비율이 역전되어 여자보다 남자가 많이 지출하고 있다. 年齡別로는 5,000원 미만과 5,000~10,000원에 29세 이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최고액인 20,000원 이상에서는 30~39세가 3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職業에 따른 1人當 平均入場料의 경우를 보면 별 有意性을 발견할 수 없으며, 教育水準別로는 응답자 비중이 가장 높게 차지하는 10,000~15,000원에 고졸이 38.5%로 가장 높게 응답하고 있다.

⑧ 記念品 購入費

(表Ⅳ-39) 觀光地 入場料

구 분	계 (명)		5,000원 미만		5,000원 ~ 10,000원		10,000원 ~ 15,000원		15,000원 ~ 20,000원		20,000원 이상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성 별	366(100.0)	56(100.0)	101(27.9)	7(12.5)	156(42.6)	11(19.6)	83(22.7)	16(28.6)	17(4.9)	11(19.6)	9(2.5)	11(19.6)
연 령	263(100.0)	47(100.0)	28.5	10.6	43.0	14.9	21.7	31.9	5.3	21.3	1.5	21.3
성 별	103(100.0)	9(100.0)	25.2	22.2	41.7	44.4	25.2	11.1	2.9	11.1	4.9	11.1
연 령	242(100.0)	19(100.0)	27.7	21.1	43.8	31.6	22.3	21.1	3.7	15.8	2.5	10.5
성 별	72(100.0)	11(100.0)	31.9	-	36.1	9.1	20.8	36.4	8.3	18.2	2.8	36.4
연 령	32(100.0)	12(100.0)	21.9	8.3	43.8	25.0	25.0	33.3	6.3	25.0	3.1	8.3
성 별	20(100.0)	14(100.0)	20.0	14.3	50.0	7.1	30.0	28.6	-	28.6	-	21.4
직 업	3(100.0)	-	66.7	-	33.3	-	-	-	-	-	-	-
직 업	16(100.0)	12(100.0)	12.5	8.3	81.3	25.0	-	33.3	6.3	-	-	25.0
직 업	30(100.0)	5(100.0)	13.3	40.0	53.3	-	26.7	40.0	3.3	-	3.3	20.0
직 업	13(100.0)	5(100.0)	23.1	20.0	30.8	-	38.5	40.0	7.7	20.0	-	20.0
직 업	124(100.0)	13(100.0)	21.8	7.7	38.7	23.1	29.0	38.5	8.1	23.1	2.4	7.7
직 업	19(100.0)	7(100.0)	21.1	14.3	52.6	-	26.3	42.9	-	14.3	-	28.6
직 업	63(100.0)	7(100.0)	25.4	14.3	46.0	42.9	23.8	-	3.2	42.9	1.6	-
직 업	37(100.0)	2(100.0)	27.0	-	40.5	50.0	21.6	-	5.4	-	5.4	50.0
직 업	53(100.0)	1(100.0)	54.7	-	30.2	-	11.3	100.0	-	-	3.8	-
직 업	4(100.0)	1(100.0)	50.0	-	50.0	-	-	-	-	100.0	-	-
직 업	15(100.0)	1(100.0)	33.3	100.0	40.0	-	20.0	-	-	-	6.7	-
직 업	90(100.0)	13(100.0)	21.1	-	47.8	30.8	22.2	38.5	6.7	7.7	2.2	23.1
직 업	52(100.0)	1(100.0)	53.8	-	30.8	-	11.5	100.0	1.9	-	1.9	-
직 업	207(100.0)	37(100.0)	23.7	16.2	43.5	16.2	25.6	24.3	4.8	21.6	2.4	21.6

註: 무응답은 제외 한 것임.

공예품, 식품류 등의 쇼핑觀光商品은 觀光慾求와 관련하여 실제 觀光行動을 유발하는 자극 또는 여러가지의 힘이 되는 經濟的 觀光動機의 對象이 된다. 쇼핑觀光은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分野로 地域住民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며, 지역별 轉化商品開發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제주도의 입장에서 볼 때도 쇼핑觀光은 낙후된 제조산업분야의 발전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제주도의 참 모습과 이미지를 부각하는 등의 홍보 효과도 지대하므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와 수용태세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濟州道를 방문하는 內國人 觀光客이 여행중 소비하는 1人當 平均記念品購入費는 총 여행비용의 16.3%인 34,560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Ⅳ-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분포는 5만원 이상이 25.9%로 가장 높고, 이어서 4~5만원 21.0%, 1만원 미만 19.8%, 2~3만원 13.1% 등의 순을 보이고 있다. 이를 性別로 보면 별 有意할 만한 差가 없으나, 年齡別로는 5만원 이상에서 29세 이하가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만원 미만에서는 50세 이상이 41.1%로 가장 높다. 職業別과 教育水準別로 記念品購入費를 살펴보면 다른 항목에서 지출한 費用構造와 비슷한 직업분포를 보이고 있다.

한편 外國人 觀光客이 濟州道 여행중 지출한 1人當 平均記念品購入費는 총 여행비용의 18.3%인 79,020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분포를 <表Ⅳ-41>에서 살펴보면 10만원 이상이 3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2~4만원 22.6%, 8~10만원 17.0%, 4~6만원 13.2% 등의 순이다. 이를 남녀간의 비율을 통해 살펴보면 8~10만원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年齡別로는 2~4만원대에서 젊은층일수록 더 높게 응답하고 있고, 8~10만원대에는 30~39세와 50세 이상이 각각 23.1%, 10만원 이상에는 40~49세와 29세 이하가 각각 44.4%, 41.2%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記念品購入費를 職業別과 教育水準別로 볼 때는 별 有意한 差를 발견하기 어렵다.

#### ⑨ 航空·船舶料金

濟州道를 방문하는 觀光客들이 來道交通手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항공과 선박 뿐이다. 內國人의 경우 來道交通費(편도 항공·선박요금)가 총 여행비용에 차지하는 비중이 12.8% 되고 있으나 실제로 濟州地域所得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內國人 觀光客이 제주도를 여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1人當 平均來道交通費(편도 항공·선박요금)는 약 27,007원이고 外國人 觀光客의 경우에도 대부분 1人當 平均 30,000원 이상의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內國人 觀光客의 지출액수별 분포를 <表Ⅳ-42>에서 보면 3만원 이상이 50.1%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來道交通手段으로 항공을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는 25,000~30,000만원이 17.5%, 20,000~25,000원이 14.1%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비교적 有意性이 있는 職業別로 살

〈表Ⅳ-40〉 記念品 購入費 (內國人)

구 계	분 부	제 (명)	1만원 미만	1~2만원	2~3만원	3~4만원	4~5만원	(단위: %)		
								5만원 이상	89(25.9)	
성 별	남	343(100.0)	68(19.8)	45(13.1)	52(15.2)	17(5.0)	72(21.0)	89(25.9)		
	여	244(100.0)	20.5	13.9	14.8	5.7	20.5	24.6		
연 령 별	29세 이하	99(100.0)	18.2	11.1	16.2	3.0	22.2	29.3		
	30~39세	226(100.0)	19.5	14.2	11.9	5.8	20.8	27.9		
	40~49세	71(100.0)	11.3	15.5	19.7	5.6	23.9	23.9		
	50세 이상	29(100.0)	31.0	6.9	27.6	-	13.8	20.7		
직 업 별	농림·어업	17(100.0)	41.1	-	17.6	-	23.5	17.6		
	자영업	3(100.0)	66.7	-	-	-	33.3	-		
	판매·서비스직	14(100.0)	7.1	7.1	64.3	7.1	7.1	7.1		
	기능·작업직	30(100.0)	-	16.7	16.7	6.7	23.3	36.7		
	사무·기술직	14(100.0)	7.1	28.6	7.1	7.1	35.7	14.3		
	경영·관리직	118(100.0)	11.9	13.6	8.5	7.6	26.3	32.2		
	전문·자유직	20(100.0)	20.0	15.0	10.0	-	15.0	40.0		
	주부	60(100.0)	20.0	11.7	18.3	5.0	23.3	21.7		
	학생	36(100.0)	16.7	-	22.2	-	25.0	36.1		
	무직	39(100.0)	66.7	17.9	12.8	-	-	2.6		
	무	4(100.0)	25.0	-	-	-	25.0	50.0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1(100.0)	27.3	9.1	27.3	-	18.1	18.1	
		고졸	96(100.0)	9.4	17.7	16.7	7.3	22.9	26.0	
대졸		194(100.0)	67.5	17.5	10.0	-	-	5.0		
대졸 이상		40(100.0)	14.9	10.3	14.4	5.2	24.2	30.9		

註: 무응답은 제외 한 것임.

<表IV-41> 記念品 購入費 (外國人)

구 분	계 (명)	(단위: %)							
		2만원 미만	2~4만원	4~6만원	6~8만원	8~10만원	10만원 이상		
성 별	남 여	5(9.4) 4(8.7)	12(22.6) 10(21.7)	7(13.2) 6(13.0)	1(1.9) 1(2.2)	9(17.0) 9(19.6)	19(35.8) 16(34.8)		
연 령 별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17.6 - - 15.4	29.4 23.1 22.2 15.4	5.9 15.4 22.2 15.4	- 7.7 - -	5.9 23.1 11.1 23.1	41.2 30.8 44.4 30.8		
직 업 별	농림·어업 자영업 판매·서비스직 기능·작업직 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 전문·자유직 주부 학생 무직	- 8.3 25.0 - 15.4 - 16.7 - - -	- - 25.0 40.0 15.4 37.5 33.3 50.0 - 100.0	- 8.3 - - 15.4 12.5 16.7 50.0 - -	- 8.3 - - - - - - - -	- 58.3 - - 23.1 - - - - -	- 16.7 50.0 60.0 30.8 50.0 33.3 -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졸 이상	100.0 - - 6.1	- 23.1 - 24.2	- 7.7 - 18.2	- 7.7 - -	- 30.8 - 18.2	- 30.8 100.0 33.3		

註: 무응답은 제외된 것임.



〈表Ⅳ-42〉 편도 항공·선박요금 (內國人)

구		분	계(명)	1만원 미만	1만~ 1만5천원	1만5천~ 2만원	2만~ 2만5천원	2만5천~ 3만원	3만원 이상	(단위: %)
성	계(명)		405(100.0)	35(8.6)	21(5.2)	18(4.4)	57(14.1)	71(17.5)	203(50.1)	
별	남		291(100.0)	12.0	5.5	3.1	11.7	17.2	50.5	
	여		114(100.0)	-	4.4	7.9	20.2	18.4	49.1	
연	29세 이하		257(100.0)	12.1	4.7	5.8	14.4	14.4	48.6	
령	30~39세		89(100.0)	1.1	7.9	1.1	16.9	18.0	55.1	
별	40~49세		37(100.0)	2.7	2.7	5.4	5.4	35.1	48.6	
	50세 이상		22(100.0)	9.1	4.5	-	13.6	22.7	50.0	
직	농림·어업		5(100.0)	60.0	-	-	-	-	40.0	
	자영업		18(100.0)	-	5.6	-	16.7	-	77.8	
	판매·서비스직		34(100.0)	-	8.9	2.9	11.8	17.6	58.8	
업	기능·작업직		14(100.0)	14.3	7.1	-	14.3	14.3	50.0	
	사무·기술직		133(100.0)	2.3	3.8	4.5	16.5	22.6	50.4	
	경영·관리직		23(100.0)	-	8.7	-	8.7	13.0	69.6	
별	전문·자유직		71(100.0)	1.4	5.6	1.4	15.5	21.1	54.9	
	주부		42(100.0)	-	2.4	9.5	16.7	19.0	52.4	
	학생		55(100.0)	43.6	5.5	10.9	5.5	9.1	25.5	
	무직		4(100.0)	-	-	-	25.5	50.0	25.0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7(100.0)	-	11.8	-	17.6	5.9	64.7	
	고졸		104(100.0)	6.7	5.8	5.8	16.3	19.2	46.2	
	대졸		54(100.0)	46.3	5.6	11.1	3.7	9.3	24.1	
	대졸 이상		228(100.0)	1.3	4.4	2.6	15.4	19.7	56.6	

註: 무응답은 제외한 것임.

켜보면 농림·어업자와 학생이 최소액인 1만원 미만에서 가장 높고, 최고액인 3만원 이상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教育水準別로는 대재가 來道交通費를 적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⑩ 其他 雜費

앞서 分析된 여행비용항목 이외에 內國人 觀光客이 지출하는 其他 雜費는 1人當 平均 25,990원으로 총 여행비용의 12.8%를 차지하고 있다. 지출액수별 분포는 <表Ⅳ-43>에서 보듯이 1만원 미만이 26.6%로 가장 많고, 이어서 1~2만원 19.6%, 2~3만원 16.3%, 5만원 이상 15.4% 등의 순을 보이고 있다. 이를 性別에 따라 살펴보면 3만원을 기점으로 2~3만원 이하에서는 여자가, 3~4만원 이상에서는 남자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年齡別로는 별 유의할만한 差를 발견할 수 없으며, 職業別과 教育水準別로는 다른 비용항목과 비슷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外國人 觀光客의 경우 1人當 平均其他雜費 지출은 총 여행비용의 5.2%인 22,288원으로 內國人보다 적게 지출하고 있다. 그 분포는 5만원 이상이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1~2만원 28.5%, 2~3만원 17.5%, 1만원 미만 14.7%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性別로 보면 남자는 5만원 이상에서 39.3%로 여자보다 높고, 여자는 1만원 미만에서 66.7%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年齡別로는 29세 이하가 3~4만원에서 20.0%, 30~39세가 5만원 이상에서 75.0%, 40~49세가 1만원 미만에서 37.5%, 50세 이상은 2~3만원에서 37.5%를 각각 높게 나타나고 있어 30~39세 연령층이 가장 많은 기타 잡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職業別 기타 잡비를 보면 자영업자와 판매·서비스직, 전문·자유직, 경영·관리직 순으로 高額을 지출하는 직종임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教育水準別로는 고졸이 대졸에 비해 기타 잡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다.

### 3. 濟州道 周邊海外市場의 觀光動向 分析

日本, 台灣 등은 濟州道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도 우리 나라와 깊은 관계에 있어 왔다. 따라서 이들 市場은 어느 지역보다도 觀光마케팅 활동여건이 좋고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開發의 여지가 많은 潛在市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濟州道는 1986年度에 전체 來道觀光客의 7.8%인 115千여명의 外國人 觀光客을 유치하는 데 그친 실정이므로 國際觀光 部門의 진흥을 위하여 주변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政策開發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本節에서는 이미 韓國觀光公社에서 조사·수집한 資料를 토대로 일본, 東南亞 등 濟州道の 주변 해외시장에 대한 觀光動向을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들 市場에 알맞는 觀光客誘致戰略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 海外市場開

< 表IV - 43 > 기타 잡비

구 분	계(명)		1만원 미만		1~2만원		2~3만원		3~4만원		4~5만원		5만원 이상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계(명)	331(100.0)	34(100.0)	88(26.6)	5(14.7)	65(19.6)	8(28.5)	54(16.3)	6(17.5)	29(8.8)	4(11.8)	44(13.3)	-	51(15.4)	11(32.4)
성별														
남	237(100.0)	28(100.0)	25.7	3.6	21.1	21.4	13.9	21.4	8.9	14.3	13.5	-	16.9	39.3
여	94(100.0)	6(100.0)	28.7	66.7	16.0	33.3	22.3	-	8.5	-	12.8	-	11.7	-
연령														
29세 이하	214(100.0)	15(100.0)	28.0	20.0	17.3	33.3	18.2	13.3	6.5	20.0	13.6	-	16.4	13.3
30~39세	72(100.0)	4(100.0)	20.8	-	19.4	25.0	15.3	-	13.9	-	18.1	-	12.5	75.0
40~49세	30(100.0)	8(100.0)	30.0	37.5	36.7	12.5	6.7	12.5	10.0	-	3.3	-	13.3	37.5
50세 이상	15(100.0)	8(100.0)	26.7	-	20.0	12.5	13.3	37.5	13.3	12.5	6.7	-	20.0	37.5
직업														
농림·어업	3(100.0)	-	33.3	-	-	-	33.3	-	-	-	-	-	33.3	-
자영업	15(100.0)	5(100.0)	26.7	-	33.3	-	6.7	20.0	13.3	-	13.3	-	6.7	80.0
판매·서비스직	27(100.0)	3(100.0)	22.2	33.3	7.4	-	22.2	-	14.8	-	11.1	-	22.2	66.7
기능·작업직	11(100.0)	3(100.0)	18.2	-	9.1	66.7	9.1	33.3	18.2	-	9.1	-	36.4	-
사무·기술직	111(100.0)	7(100.0)	18.9	28.6	20.7	42.9	15.3	14.3	6.3	14.3	18.9	-	19.8	-
경영·관리직	19(100.0)	5(100.0)	36.8	-	21.1	20.0	10.5	20.0	21.1	20.0	-	-	10.5	40.0
전문·자유직	58(100.0)	7(100.0)	22.4	28.6	19.0	14.3	17.2	-	6.9	14.3	19.0	-	15.5	42.9
주부	34(100.0)	-	14.7	-	29.4	-	23.5	-	5.9	-	14.7	-	11.8	-
학생	46(100.0)	1(100.0)	58.7	-	15.2	-	13.0	100.0	8.7	-	2.2	-	2.2	-
무직	3(100.0)	1(100.0)	33.3	-	-	-	33.0	100.0	-	-	-	-	33.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4(100.0)	-	21.4	-	28.6	-	7.1	-	7.1	-	14.3	-	21.4	-
고졸	82(100.0)	6(100.0)	24.4	-	18.3	16.7	13.4	16.7	6.1	-	15.9	-	22.0	66.7
대졸	46(100.0)	1(100.0)	58.7	-	13.0	-	13.0	100.0	8.7	-	2.2	-	4.3	-
대졸 이상	187(100.0)	23(100.0)	20.3	21.7	21.4	21.7	18.7	13.0	9.6	13.0	15.0	-	15.0	23.3

註: 무응답은 제외 한 것임.

拓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 1) 日本

아시아 第1의 觀光市場인 日本은 1985年의 경우 年間 495萬名의 해외여행자를 輸出하여 前年度 對比 6.2% 증가를 보이고 있다. 日本人의 해외여행은 1964年 해외여행 자유화 실시 이후에도 1960~1970年代에는 대부분이 域內觀光 중심이었으나 1980年代에 들어서면서 九州, 대양주 등 장거리 여행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장거리여행 경향은 日本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지로의 항공로선의 연결·접속, 국민소득의 증가, 엔화강세 및 대외무역의 흑자 등으로 인하여 더욱 촉진되고 있다. 특히 1985년에 日本의 해외여행자가 해외에서 소비한 經費는 48억弗에 달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4.6% 증가한 액수이다.<sup>21)</sup>

#### ① 海外旅行實態<sup>22)</sup>

日本 總理府가 발간한 1985年度 「觀光白書」에 의하면 日本人의 海外旅行者數는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신장하고 있으며, 특히 하와이, 대만, 한국, 홍콩 등 4개 선호지역에 대한 여행자는 전체의 50%가 넘고 있다. 旅行目的別로 보면 觀光目的이 해외여행자 전체의 82%로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 수년간 변하지 않고 있다. 해외여행자수를 月別로 살펴보면 어느 季節이나 해외여행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중 盛需期는 하계휴가와 춘계휴가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1985年의 日本人 해외여행자의 性別 分布는 남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과거 10년간의 伸張勢는 여자가 남자의 신장률 1.7배를 크게 상회하는 2.8배의 신장률을 나타내고 있어서 점차 여자의 해외관광성향이 뚜렷이 증가되고 있다. 性·年齡別로는 남자가 30대, 40대가 많고 남자 전체의 50%를 점하고 있다. 여자는 20대가 43%로 압도적으로 많고 新婚旅行 등에서 최대로 증가되고 있는 層이다. 또한 남녀를 막론하고 高年齡者의 비율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이 日本人 해외여행은 1970年代 후반부터 일반화되어 量的인 확대와 더불어 質的인 변화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먼저 해외여행을 하는 계층이 확대된 것이고 女子가 접하는 비율도 차츰 커짐과 동시에 年齡層도 분산화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또한 旅行을 시도하는 層의 확대는 해외여행에 대한 기호나 희망의 다양화를 초래하고 目的地의 다양화로 되어 나타나고 있다. 目的地中에서도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국가들의 占有率이 약간 저하하고 있는 경향은 여행자 總數의 증대에 의한 필연적 결과이나 동시에 거기에는 日

21) 交通部·韓國觀光公社, 觀光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1986, pp.18~20.

22) 한국관광공사, 일본관광시장조사, 1985, pp. 15~23.

本人 旅行需要의 다양화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새로운 需要의 개척을 하지 않으면 現在와 같이 市場占有率은 저하하여도 絶對量은 증가하는 상태를 유지하기에는 곤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② 訪國旅行實態

1986年 日本人의 韓國旅行者數는 791,011名으로 1985年에 비해 23.8%나 크게 신장하고 있으며 訪韓客 전체의 47.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外國을 여행한 日本人의 13% 이상이 韓國을 방문하였으나 그 비율은 日本人의 目的地의 다양화 등으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어 日本市場을 개척하기 위한 새로운 觀光政策이 필요로 하는 단계에 들어와 있다. 이와 같이 日本은 1971年부터 韓國의 제일의 市場으로 부각되어 왔으며, 日本市場 依存度가 과거 62%에 이르렀던 시기도 있었으나 1980年代에는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平均 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85年度 訪韓 日本人의 旅行日的은 전체 여행자의 85.3%가 觀光目的으로 입국하였다. 그리고 訪韓日本人을 性別로 보면 남자가 비교적 많은 편이며, 旅行日程別로는 3日 以內가 35.6%, 4~6日이 42.2%를 6日 以內가 전체의 77.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韓國觀光公社에서 1985年에 실시한 日本觀光調査의 결과에 따르면 日本人 觀光客들이 한국여행시 가본 곳이나, 가지는 않았으나 알고 있는 곳에 대한 응답률은 서울이 100% 부산 95.6%, 경주 84.6%, 관문점 73.3%, 제주도 71.7%, 민속촌 33.4%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韓國을 방문하는 旅行者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여 대규모 旅行社들이 한국패키지여행을 기획, 판매하는 등 한국여행붐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부응하여 급증하고 있는 顧客層은 여성, 청소년 및 가족여행자 등이다. 즉, “日本에 가까운 나라” “저렴한 비용과 짧은 여행기간으로 여행할 수 있다” 등의 販賣強調點으로 다종다양한 여행상품이 기획되고 있는 가운데 女子에 대해서는 歷史·文化를 보는 觀光 위주로, 청소년에 대해서는 수학여행, 스포츠, 또는 제주도에서의 골프, 스쿠버다이빙 등의 위락관광이 주목되고 있다.

## 2) 臺灣<sup>23)</sup>

臺灣은 1979年 國民의 海外旅行 自由化를 실시한 이래로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과 대외무역의 흑자, 인구의 도시집중화, 고학력화, 여가선용에 대한 욕망 등이 높아짐에 따라 海外旅行需要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伸張勢는 1980~1984年 期間中에 연평균 약 11.6%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23) 한국관광공사, 동남아관광시장동향, 1986, pp. 33~55

한편 우리나라의 外來觀光客 유치실적에 따르면 대만은 제 3의 市場으로 1981년에 전체 外래관광객의 10.9%의 점유율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1986년에는 5.7%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러한 變化는 중국인들의 여행성향변화, 한국·일본지역의 여행비용의 상승 등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대만인 방한객 중 觀光目的 입국자가 80% 정도를 점하고 있어 觀光의 市場性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 ① 海外旅行實態

대만인의 해외여행 형태는 해외여행자의 약 83%가 團體여행을 하고 있으며 個別旅行을 선호하고 있는 집단은 비교적 20대와 30대의 남성이, 그리고 기업인, 기술직, 군인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다. 대만인들의 해외여행에 소요되는 日數는 平均 17.8日인데 目的地에 따라 각기 다르다. 즉, 유럽이 45.3日로 가장 긴 여행을 하는 지역이고, 동북아시아 지역은 14.7日, 동남아시아 지역은 12.0日로 가장 짧은 일정을 소요하고 있다. 또한 대만국민의 해외여행관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해외여행 우선 순위를 동북아를 66.9%, 미주 15.9%, 동남아 13.5%, 구주 3.6%, 대양주 1.6% 등의 순을 나타내고 있다.

### ② 訪韓旅行實態

韓國觀光公社가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대만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행실태에 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만인의 訪韓時 旅行目的은 응답자 421명중 약 76%가 觀光目的이었으며, 이어서 業務目的이 10.5%인데 반해 親知訪問이 1.8%로 가장 낮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訪韓觀光客의 旅行形態는 團體旅行과 個別旅行 對比 85.3% : 14.7%로 단체여행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訪韓旅行時의 동행자로는 친구가 상기응답자의 38.3%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가족 23.9%, 혼자 14.9%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韓國을 여행하게 된 동기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가 전체의 40.3%로 가장 높고, 여행사의 권유 20.8%, 한국관광선전물 17% 광고매체 10.6% 등으로 여행사 및 광고선전에 의해서가 합계 48.4%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韓國을 방문하는 대만인의 체류기간별에 따른 訪問觀光地를 <表Ⅳ-44>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박3일 이하의 日程인 경우는 서울과 서울 근교인 판문점·임진각 및 민속촌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3박4일 이상의 日程인 경우 경주, 부산, 제주 등 지방 유명관광지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5박6일의 경우는 서울의 비중이 53.8%에 불과한 반면에 경주, 부산, 제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韓國의 관광매력으로 대만인 訪韓觀光客의 최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항으로는 민속문화관광, 야간유희, 설경 등의 순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관광활동의 필수사항 중의 하나

〈表Ⅳ-44〉 체류기간별 訪問觀光地

(중복응답, 단위: %)

관광지역	체한기간	1박2일	2박3일	3박4일	4박5일	5박6일	비고
서울	울	95.7	99.5	96.3	100.0	53.8	
판문각	문	28.3	63.9	79.0	69.0	76.9	
인천	천	4.3	7.3	23.5	26.2	53.8	
민속촌	속	37.0	62.9	72.8	69.0	69.2	
경주	주	4.3	21.0	50.6	83.3	76.9	
속리산	리		1.0	4.9	21.4	30.8	
지리산	리			1.2			
내장산	장			1.2			
설악산	악		0.5	7.4	21.4	23.1	
해인사	인	2.2	0.5	6.2	9.5	30.8	
부산	산	10.9	15.1	43.2	61.9	69.2	
한려수도	려			6.2	2.4	7.7	
부여·공주	여			2.5		7.7	
제주	주		2.4	11.1	38.1	38.5	
계		182.6	274.1	406.2	512.4	538.5	

資料: 한국관광공사, 동남아관광시장동향, 1986, p. 45.

인 飲食에 대해서는 가장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한편 대만여행객의 주요 한국여행코스는 순수한국상품과 한국경유 일본상품, 홍콩경유상품 등이다. 이 중 순수한국상품은 네가지 코스가 주로 판매되고 있는데 서울-서울근교, 서울-경주-부산, 서울-설악산-경주-부산, 서울-경주-부산-제주 등을 들 수 있다.

### 3) 싱가포르<sup>24)</sup>

싱가폴은 經濟發展에 의한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海外旅行者는 계속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역이 좁고, 자연경관이 단조로워 國民觀光地가 절대 빈약하므로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한 입접국에 대한 단거리 여행과 정기휴가를 이용한 장거리 여행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24) 한국관광공사, 전계서, pp.122 ~ 137.

① 海外旅行實態

1985年度 싱가포르의 海外旅行者 數는 前年對比 9.2% 증가한 526,016名으로 국민 4.86명 중 1명이 해외여행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이 높은 해외여행자 증가추세는 해외여행에 대한 규제가 없을 뿐더러 다양한 패키지투어 (Package Tour) 모집광고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싱가포르의 海外旅行者를 性別로 보면 남자가 63.9%로 압도적으로 많고, 旅行形態는 個別旅行者가 전체의 78.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해외여행의 目的으로 남자인 경우 순수관광목적이 44.5%, 업무겸 관광목적이 3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자는 순수관광목적이 전체의 76.8%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旅行者들이 해외여행시 소요하는 日程은 1주일 미만이 35.9%로 가장 많고, 1~2주일이 23.6%, 2~4주일이 17.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訪韓旅行實態

<表Ⅶ-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5年度 싱가포르의 海外旅行者中 2%인 12,980名이 韓國을 방문하였고 전체 訪韓觀光客의 0.9%를 차지하였으나 싱가포르 경제의 침체 등으로 방한여행자 증가율은 최근 수년간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여행자의 目的別 분포는 觀光目的이 전체의 80.4%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다음은 商用目的이 14.4%를 점하고 있으며 月別 訪韓觀光客은 6월이 18.3%, 4월이 11.9%, 5월이 10.1% 등으로 집중되어 있다.

<表Ⅳ-45> 연도별 방한여행자 추이 (싱가포르)

구분	년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여행자	여행자수	여행자수	여행자수	여행자수	여행자수	여행자수
총 해외 여행자		299,876 (13.0)	330,118 (10.1)	385,728 (16.8)	433,849 (12.5)	481,855 (11.0)	526,016 (9.2)
방한관광객 (%)		4,968 (11.4)	6,794 (36.8)	8,397 (23.6)	11,085 (32.0)	12,727 (14.8)	12,980 (2.0)

註: ( )안의 숫자는 전년대비 신장율(%)을 나타냄.

資料: 한국관광공사, 동남아관광시장동향, 1986, p.132.

한편 싱가포르에서 판매되고 있는 韓國觀光商品은 주로 일본, 홍콩, 대만 등의 東北亞地域 觀光商品과 연계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4박5일 이내의 단기코스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韓



國觀光時 서울경유코스를 기준으로 할 때, 韓國內 주요 관광지별 방문비율은 민속촌이 67%, 부산이 56%, 경주 48%, 제주 30%, 설악산 15% 등의 순을 나타내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韓國觀光商品은 88 올림픽게임의 서울 개최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고, 최근 東北亞旅行이 신장되고 있는 가운데 엔화 강세에 의한 日本內 여행비용 상승도 한국과 대만에서의 체재연장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 말레이시아<sup>25)</sup>

말레이시아의 海外旅行者는 아시아지역에서 日本 다음으로 많으며 지속적인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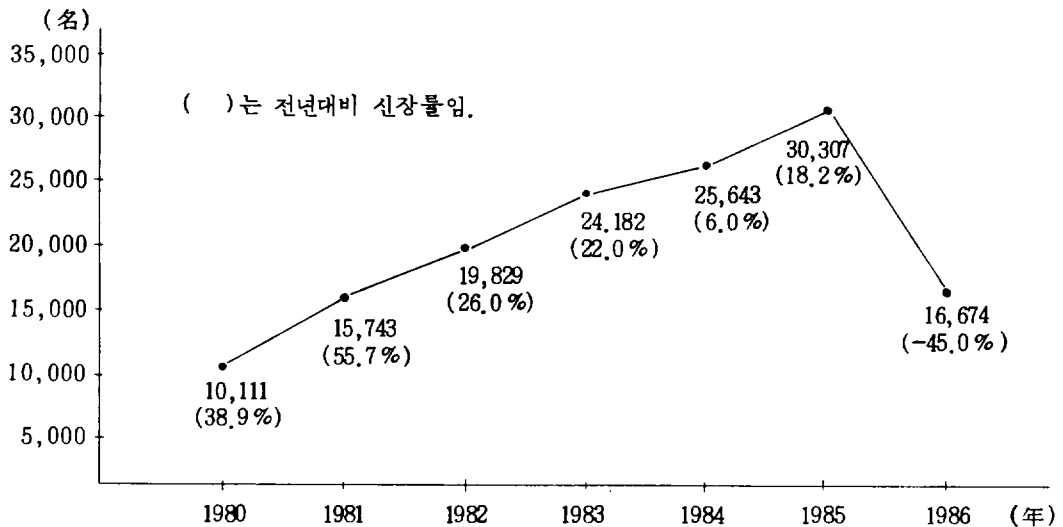
① 海外旅行實態

말레이시아의 海外旅行性向은 아시아에서 홍콩 다음으로 높고, 주요 해외여행 目的地로는 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일본 등의 순으로 방문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觀光客의 해외여행 시기는 대체로 일정한 편이며, 1983年 統計에 의하면 4~5월이 가장 많고 10~11월이 가장 적은 편이다.

② 訪韓旅行實態

말레이시아의 訪韓觀光客은 <그림 IV-2>에서 보듯이 1985年까지 과거 5년간 지속적

<그림 IV-2> 말레이시아 방한관광객 추이



資料: 한국관광공사, 동남아관광시장동향, 1986, p.171.

25) 한국관광공사, 전제서, pp.167~174.

으로 증가하였으나 1986년에는 16,674명이 입국하여 전년도에 비해 45%의 높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체 訪韓觀光客의 1.0%를 점유하는 비율로 1985년의 2.1%에 비해 매우 낮아지고 있다. 1985年度에 방한관광객의 88.6%가 觀光目的으로 입국하였으며, 商用이 6.3%를 나타내고 있다. 月別 分布는 4월이 24.1%로 가장 높고, 이어서 5월, 6월 등의 순으로 나타나 봄철 관광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한편 말레이지아에서 판매되고 있는 韓國觀光商品은 홍콩, 대만, 일본 등 東北亞 地域의 상품에 포함되고 있으며, 한국 체류기간은 대체로 2박3일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남부 지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4박5일 정도이다.

### 5) 태 국<sup>26)</sup>

태국의 海外旅行者는 1983年度까지 매년 약 20%의 증가를 보여왔으나 경제의 침체와 빈부의 격차 등에 따른 태국정부의 해외여행 억제 및 국내여행 유도의 시책으로 1984년부터 해외여행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 ① 海外旅行實態

태국의 海外旅行者 數는 1984년에 607,527명으로 前年對比 20.7% 감소하였다. 태국인의 해외여행 목적지로서 인기도는 근거리 지역인 아시아가 32.3%, 유럽 28.6%, 북미 23.0%, 기타 4.1%의 순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중에서는 홍콩, 싱가포르, 일본이 주요 旅行目的地로 방문하고 있다. 韓國은 단일 목적지로서 보다는 홍콩, 일본 등 東北亞 商品에 포함되어 경유지로 방문되고 있으나, 새마을운동, 불교사찰 관광 등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점차 단일 목적지로 선호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海外旅行形態는 태국인이 혈연, 지연에 의한 집단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끼리 단체여행하는 경우가 전체 여행자의 40.8%에 이르고 있고, 여행사를 이용하는 경우는 25.6%에 불과하다. 旅行目的은 순수관광이 45.2%, 商用·會用이 36.9%를 점하고 있고, 계절별 해외여행 분포는 4~5월에 약 22%, 10월에 약 10%가 출국하고 있다. 현재 태국인의 海外旅行은 전체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부유층에 제한되어 있는데, 이들은 주로 고급관광 및 기업인, 화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태국인들은 해외여행성향이 外國의 歷史·文化보다는 대도시의 변화가 중심의 선진문명에 대한 관심과 쇼핑 등 대도시 지향의 관광을 선호하고 있다.

26) 한국관광공사, 전세서, pp.202~209.

② 訪韓旅行實態

태국인의 訪韓觀光客 數는 1980年 이후 증가추세에 있으며 1986년에 11,313名이 입국하여 前年對比 7.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을 방문한 전체 外來觀光客의 0.7%에 해당한다. 訪韓 태국관광객의 月別 분포는 4월이 20.6%로 가장 많고, 이어서 5월, 6월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性別間의 比率은 남자가 59%, 여자가 41%이고, 旅行目的은 순수관광이 78.2%, 商用이 12.2%로 이들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태국 방한객의 旅行形態는 여행사의 패키지투어가 51.1%이고 개인여행은 48.9%이며, 여행 동반자는 단체여행인 경우 친지·가족이 전체의 63.8%로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

한편 태국인이 선호하는 韓國內의 觀光地는 서울, 경주, 부산 등이고, 韓國에 대한 관광 매력은 4계절의 변화와 자연경관, 대도시의 발전상, 불교문화, 쇼핑 등을 들고 있다.

## V. 濟州地域 觀光所得 殘留效果 提高方案

### 1. 觀光商品供給의 多樣化 및 觀光客受容態勢의 確立

#### 1) 觀光商品 供給의 多樣化 方案

##### ① 既存 觀光商品 供給의 實態와 問題點

濟州도를 최상의 觀光目的地로 인식시키고 持續的이고 效果的으로 國內外觀光客을 유치하기 위하여 濟州도를 부각시킬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서 定期觀光코스를 開發하는 것은 그 意義가 크다. 本道에서는 1960년대초 觀光에 대해 關心을 갖기 시작하여 1970년대에 들어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1973년 3월 2일 官民合作의 濟州觀光旅行社가 營業開始를 하면서 1973년 5월 1일 濟州에서 最初로 觀光商品으로서 濟州定期觀光코스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1975년 5월 定期觀光쿠폰(濟州旅行券)을 發行하기 시작하였고, 1975년 12월 觀光事業法 改正에 의한 旅行料金 申告制 實施에 따라 1976년 7월 濟州道에 2泊3日(午前入道の 경우), 3泊3日(午後入道の 경우)의 觀光코스가 申告되어 실시되었는데 觀光需要의 變化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되어 왔다. 1986년 6월 1일부터는 宿泊地를 中心으로 하여 6개 코스를 판매하였는데 제 1, 제 2코스는 동서회의 當日코스이고, 제 3코스는 濟州市와 西歸浦에서 각각 1泊씩 머물고, 제 4코스는 濟州市에서만 2泊, 제 5코스는 西歸浦에서만 2泊, 제 6코스는 제주시 2泊, 西歸浦 1泊하는 형태이었다. 종래 宿泊地를 기준으로 한 觀光코스를 재조정하여 1987년 5월 1일부터 地域別 觀光圈을 고려하여 제주시권(당일), 濟州

東廻圈, 濟州西廻圈 및 綜合觀光圈( 각각 濟州市, 西歸浦 출발 )의 5개 코스로 조정하였다가 이를 더 細分하여 재조정된 것이 1987년 10월 7일부터 시행, 판매되고 있는 1日코스의 東部圈, 西部圈, 中部圈, 2日코스의 中部東部圈, 西部東部圈, 中部西部圈, 3日코스의 西部東部中部圈의 7개코스의 定期觀光코스이다. 종래의 觀光코스와 달리 道内の 地域別 觀光圈域을 도입하여 1泊 혹은 2泊 등의 도중 宿泊을 요하는 長期滯留의 旅行客들이 숙박지를 옮겨야 하는 不便을 해소하였고, 쇼핑이나 보다 많은 위락시설 이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는 點이 개선되었다. 실제로 全道가 한시간 生活圈임을 생각할 때 숙박지를 옮겨야 하는 長期코스는 效果의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觀光地間 相互 有機的인 連結이 미비하여 觀光코스가 단순하며 천지연, 정방폭포, 만장굴 등 一部 유명관광지로의 집중현상을 초래함으로써 관광상의 혼잡을 초래하여 큰 불편을 낳고 있고 나아가 자연환경의 훼손까지 초래하고 있다.

또한 觀光코스에 제주의 傳統性과 固有性을 지닌 觀光資源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 아직도 자연자원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대부분의 外國人 觀光客의 경우 制限 期間 안에 흥미롭고 특색있는 資源을 보며 즐기려는 觀光性向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陸上의 觀光루트만 개발되어 있을 뿐 4面의 바다를 이용한 海上루트나 陸上和 海上을 연결하는 連繫觀光루트가 전혀 없으며 季節別로도 劃一的인 觀光商品이 공급되어, 本道의 自然과 文化가 어우러진 特色있는 觀光地 與件을 조성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午前, 午後 또는 夜間觀光 등 短時間內에 이루어질 수 있는 觀光프로그램이 없어 觀光客들이 來道日이나 歸道日에는 觀光할 수 없는 不便을 낳고 있다.

따라서 현재 季節別, 觀光客 階層別 特色을 고려함이 없이 劃一的으로 제공되는 定期觀光코스로서 一般觀光商品의 供給外에 季節別 또는 觀光客 階層別 特殊 觀光商品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이 本道 觀光의 多樣性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의 當面課題이다.

## ② 季節別 新規 觀光商品 開發 方案

㉞ 濟州道 봄철 觀光의 特徵은 유채꽃, 철쭉 등으로 대표되고 있는데 城山日出峯을 중심으로 5월이 되면 유채꽃이 화사스럽게 피어 바다와 어우러진 모습은 瀛洲十景 가운데 하나인 岬어난 景觀으로서 城山日出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漢拏山의 철쭉과 草原地帶에 널리 分布되어 있는 畚出火山들 사이에 멀리 한라산을 배경해 질푸른 초원에서 한가히 풀을 뜯고 있는 소와 말의 모습들은 古藪牧馬로서 봄철의 岬어난 景觀을 창출해내고 있다. 따라서 봄철의 特色상품으로 城山日出峯, 城邑民俗村, 산굼부리, 무수천계곡, 조각공원, 산방굴사 등을 잇는 東·西部 産業道路上의 새로운 觀光루트를 개발하여 봄철 관광상품화 하도록 한다.

㉔ 濟州道 여름觀光의 특징은 해수욕, 낚시, 한라산 녹음 등으로 대표되고 있는데 本道가 四面의 海洋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수욕, 낚시 등 海上 및 海洋慰樂活動의 最適地라는 점에서 海上 및 海洋을 中心으로 한 觀光商品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바다쪽에서 육지를 바라볼 때 海岸絶景을 감상할 수 있도록 海岸景觀이 비교적 빼어난 西歸浦 海岸一帶의 범섬, 숲섬, 문섬 등과 中文 — 和順 — 마라도 — 모슬포 海岸과 南元海岸 — 表善 — 城山浦 — 牛島를 잇는 海上觀光코스를 개발하여 濟州道 여름觀光의 多樣化를 期하도록 한다. 이 경우 海低公園의 개발과 관광낚시터를 개발하여 보완토록 한다.

㉕ 濟州道の 가을觀光의 특징은 감귤농원과 한라산 단풍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가을은 제주도 민속문화행사의 계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한라산의 橫斷道路 주변의 단풍을 즐기고 가을철 노랑계 물든 감귤농원의 서정을 만끽할 수 있도록 西歸浦農園一帶와 漢拏山 第1·2 橫斷道路 주변의 觀光資源, 民俗마을 등을 잇는 觀光코스의 개발이 요구된다.

㉖ 濟州道 겨울觀光의 특징은 한라산의 雪景과 수렵이라 할 수 있다. 한라산의 雪花를 감상할 수 있는 施設을 漢拏山 國立公園 集團施設地區內에 설치하고 冬季스포츠 活動이 가능하게 스키場을 개발하도록 한다. 스키場을 개발하는 경우 立地條件上 標高 800 ~ 1,500 m, 傾斜度 5~35°이면서 積雪日數가 최소 90日 이상이 되는 地域이라 할 수 있는데 漢拏山을 주변으로 하여 위의 立地條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立地候補地는 비교적 많다.

### ③ 觀光客 階層別 特殊 觀光商品 開發 方案

현재 제공되고 있는 定期觀光코스는 다양한 관광객 階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치 않아 그 이용률이 낮다. 따라서 현재 판매·이용되는 定期觀光코스 외에 特殊한 觀光階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特殊觀光商品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㉗ 國際觀光客의 경우 自然觀光地 鑑賞이 낮은 반면 西歐人들이 주로 수영·해수욕 등 海洋慰樂活動과 日本人들이 낚시, 수렵 등의 다양한 動物慰樂活動을 추구하고 있으며, 民俗文化에 관심이 높고 遊興과 쇼핑활동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外國人 觀光客을 위한 觀光商品의 開發은 自然景勝觀覽 위주의 觀光코스를 탈피하여 濟州道 固有의 民俗文化를 접할 수 있고, 다양한 위락활동과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데 重點을 두고 개발토록 한다. 外國人 觀光客들이 지니고 있는 觀光에 있어서 主된 關心은 異國風物(exoticism)에 대한 文化的 魅力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㉘ 濟州道를 찾는 國內觀光客中 多數가 新婚觀光客이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自己一生의 한번의 機會라는 생각 때문에 짧은 기간에 濟州道內 全 觀光地를 방문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자동차를 타거나 걸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함으로써 新婚夫婦 들만의 오붓한 시간을

갖거나 安樂한 위락활동을 즐길 여유를 갖지 못한 채 濟州觀光을 하고 있다. 따라서 主要觀光地를 선별하여 새로운 관광상품으로서의 新婚旅行코스로 개발하여 獨만의 오붓하게 安樂한 觀光이 이루어질 수 있게 개발토록 한다. 또한 孝道觀光商品의 개발도 비슷한 여전이다.

㊸ 濟州를 찾는 觀光客들 中 또 하나의 特殊階層으로 修學旅行團體가 있는데 이들도 一般觀光客과 달리 觀光動機가 주로 教育이나 見學에 있으므로 수학여행단체를 위한 觀光商品開發은 濟州道內的 삼성혈, 혼인지, 城邑民俗村 등 歷史, 民俗文化를 잘 접할 수 있으면서 濟州의 自然을 觀察할 수 있도록 하는 수학여행코스를 개발한다.

## 2) 觀光客 受容態勢의 確立

### ① 觀光基盤設施의 확충

㊹ 宿泊施設: 宿泊施設은 觀光產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基本施設로서 이의 부족 내지 미비는 觀光客의 유치 및 체류를 불가능케 할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濟州道는 陸地와 떨어져 있어 대부분의 觀光客들이 宿泊觀光行態를 이루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濟州道の 宿泊施設은 최근 관광호텔 및 일반호텔 등 고급 숙박시설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나 地域的으로는 濟州市와 西歸浦市에 거의 전체 숙박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다. 다만 臨時宿泊施設인 民泊이 주요 海水浴場을 중심으로 郡部地域에 분포되어 夏季觀光客의 利用에 기여하고 있다.

濟州道 宿泊施設의 開發過程에서 나타나는 問題點은 다음과 같다. 첫째 盛需期와 週末에는 施設의 부족으로 단체숙박현상이나 예약불이행 사태가 성행하고 있으며, 非需期와 週中에는 施設의 과잉상태가 되고 있다. 둘째 기존 宿泊施設이 市部地域에 집중되어 있어 觀光客의 체류일정을 단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觀光客의 欲求에 부합하는 다양한 宿泊施設이 미흡하다. 넷째 최고급 시설인 觀光호텔은 施設投資의 大規模性에 의해 道外資本의 投資에 의존되고 있어 限界所得 流出性向이 비교적 높다.

따라서 國民觀光의 확대와 더불어 급증하는 觀光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觀光客의 욕구에 맞는 宿泊施設의 多樣化가 요구된다. 또한 소규모 숙박시설의 개발을 통해 道民이 직접 投資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道民所得增大에 기여케 하고 임시숙박시설을 확충·개선하여 盛需期의 시설부족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施設로는 民泊, 유스호스텔, 山莊, 방갈로 등을 들 수 있는데 주로 市部地域을 벗어난 觀光地에 개발함으로써 宿泊施設의 分散도 꾀할 수 있다.

이 중 民泊은 道內 海水浴場을 중심으로 서귀포시를 제외한 全域에 184棟 456室이 지정(1986年末 현재)되어 여름철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濟州道 농어촌의 소박한 生活樣式과

순박한 서어비스를 제공하는 民泊은 都市民들의 해수욕, 낚시, 등산 등의 慰樂活動에 있어서 많은 유인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觀光地內的 부족한 宿泊施設을 확충할 수 있는 가장 서민적인 施設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施設과 운영의 질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해결될 때 그 利用度는 매우 높아질 것이다.

이와 같은 民泊을 育成하는 方案을 제시하면, 첫째 國民觀光地로 지정된 地域을 중심으로 民泊村을 조성하고, 觀光農園, 觀光漁業 등과 복합된 宿泊施設團地로서의 개발이 바람직하다. 둘째 民泊村의 開發方法은 그 構成員들이 자주적인 組織體를 통해 모든 開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자주적인 財源調達과 관광객 유치촉진의 공동협력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개발에 따른 利益은 그 地域住民에게 돌아가게 하여야 한다. 셋째 民泊施設의 建設 등 정부의 國民住宅 建設事業과 병행하는 등의 民泊育成에 적극성을 띠는 경우 二重的인 效果를 기대할 수 있다.

㊤ 交通施設: 濟州國際空港 기존시설은 1990年代 항공수요에 대비한 시설로서 年間 260萬名의 旅客處理能力을 보유하고 있어 당분간 施設不足으로 인한 觀光客 輸送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觀光需要의 급증에 따른 國內外 航空路線은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특히 外國人 觀光客 誘致의 관건은 편리한 接近度 提高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日本과의 直行路線을 확대·증편하고 臺灣, 홍콩 등 東南亞 主要國家와의 直行路線의 개선 등을 통하여 濟州道를 방문하는 外來觀光客의 편의를 증진시켜야 한다.

또한 濟州道の 港灣施設도 늘어나는 旅客需要와 물동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항구마다 기능을 부여하고 외박시설과 접안시설을 계속 확충해 감으로써 觀光客 輸送能力이 많이 개선되었다. 최근에 이르러 觀光交通 手段으로서의 海運은 豪華遊覽船이 세계 主要觀光地를 연결하는 크루즈(Cruise) 觀光이 본격화되고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濟州道の 관문항으로서 종합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濟州港은 대형 호화유람선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대규모 外國人 觀光客 誘致에 기여케 하고, 주요 觀光地에 가까운 기존 항구마다 遊覽船 등이 취항할 수 있는 여객부두를 건설하여 海上交通 手段의 활성화를 꾀한다. 특히 來道客의 海運利用率이 점차 떨어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交通手段의 제공을 위해서는 旅客船의 高速化가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高速페리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현재의 運航時間을 단축할 수 있다면 많은 內國人 觀光客을 유치할 수 있으며, 한려해상공원, 다도해 등과 연결되는 새로운 海上遊覽 觀光루트를 개발할 수 있다.

한편 域內交通施設은 景觀이 아름다운 海邊과 山岳地帶에 觀光專用道路를 개설하고 觀光馬車, 觀光列車 등의 독특한 交通手段을 도입한다. 그리고 주요 觀光地마다 주말 및 성수기에

큰 혼잡을 빚고 있는 停車場 施設을 계속 확충해 나가야 한다.

㊸ 기타 便益施設：濟州道를 찾는 內·外國人 觀光客에게 각종 便宜를 제공할 수 있는 觀光案内所, 案内板 등의 역할을 여행성향이 團體觀光에서 가족단위 및 개인여행으로 전환되어감에 따라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觀光案内所인 경우 濟州道內에는 공항, 항만, 관광지 등에 설치되어 있으나, 공항, 항만의 案内所를 제외하고는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外國人 觀光客이 利用할 수 있는 통역안내원이 배치된 案内所가 거의 없다. 또한 個別觀光客의 관광활동에 지표가 되는 觀光案内板 및 道路標識板 등은 안내의 내용이 부실하며, 외국어표기의 오자, 주변경관과 조화되지 않는 디자인 등으로 충분한 안내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소규모로 多元化되어 있는 觀光案内所는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공항 및 항만, 대규모 관광지에는 종합적으로 觀光案内를 할 수 있는 綜合觀光案内所를 설치한다. 綜合觀光案内所에는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안내원을 배치하며, 각종 안내팜프렛 및 책자 등을 비치·이용케 한다. 또한 觀光客에게 숙박업소, 민박 등에 대한 예약 및 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안내대상의 다양화를 통하여 관광객의 요구에 맞는 시설 또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案内板은 外國人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형안내판으로 제작하여 비치하고, 안내내용 등을 정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외에도 각종 衛生施設의 改善, 대규모 쇼핑센터의 개설, 出入國 節次의 改善 등도 관광객의 유지와 더불어 觀光收入의 增大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 ② 觀光弘報·宣傳의 강화

觀光弘報活動의 方法은 신문, 라디오, TV 등 매스콤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이외에 세미나, 홍보책자 발간 배포 등이 있다.

濟州道를 海外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弘報對策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첫째, 濟州道 자체의 弘報機構를 설치·운영한다. 예컨대 濟州道觀光協會가 제주도의 관광지원과 관광산업에 대한 홍보물 제작·배포, 해외광고 등을 담당하고 그 운영비용은 관광업체의 분담금과 제주도 당국의 보조금 등에서 충당한다.

둘째, 弘報內容에 대한 제주도의 이미지 對象을 선정하여 홍보효과를 높인다.

세째, 韓國觀光公社 海外宣傳事務所 등을 적극 활용한다.

네째, 濟州道の 주된 市場別로 그 市場의 觀光客 特性和 觀光行態를 고려하여 대상별, 계층별 홍보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섯째, 觀光客의 홍보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來訪客을 제주도 선전원이 될 수 있도록 훌륭한 서어비스의 제공에 노력한다.

여섯째, 國際的인 民俗祭를 연례적으로 개최하여 제주도의 지명도를 높이고, 기타 國際的인 會議 등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한다.

일곱째, 外國人 觀光客 誘致를 위하여 고급화된 旅行性向에 맞도록 觀光資源의 소개와 아울러 서어비스에 대한 弘報도 중점 실시한다. 장차 濟州觀光은 量的인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質的인 수준을 높혀 나가고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홍보를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끝으로, 航空路線의 海外直航路線을 개설하여 觀光客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日本 등 패키지투어상품에 濟州道가 포함되도록 해외여행도매업자를 대상으로 집중홍보한다.

### ③ 觀光서어비스의 向上

濟州道 觀光事業의 振興을 위해서는 훌륭한 受容施設, 弘報活動 등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人的 서어비스의 향상도 가장 기본적인 과제가 된다. 觀光產業은 他 產業과는 달리 고객에 대한 人的 서어비스가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습득한 觀光從事員의 養成供給과 기존종사원의 再教育 등은 더욱 중요시되는 것이다. 관광종사원의 양성은 教育機關에서 배출되는 人力으로 충당하고 관광산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기존종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이들에게 관련교육기관에서 再教育을 받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그리고 서어비스 向上을 위한 觀光人力 管理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觀光從事員 資格試驗制度를 실시하여 우수한 종사원 확보에 기여케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기관에서 관광관련 직무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고 관광분야에 투신한 종사원은 매우 저조한 수준인데, 그 이유는 제주도의 관광업체들이 비용만을 중요시하는 데서 발전가능성이 많은 고급인력의 채용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觀光서어비스의 質的 向上을 위해서 觀光人力은 관광전문교육을 받은 유능한 종사원이 기용되어 능력에 따른 직책을 부여하여야 하며, 확고한 서어비스觀 내지 人力에 대한 합리적 활용과 이들에 대한 신뢰감 등이 조속히 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觀光產業 일선종사원의 서어비스 향상과 함께 道民들의 제주도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긍지가 뒷받침되어야 차디 관광객에 대한 친절정신의 중요성이 크게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地域住民의 의식구조 개선과 효과적인 관광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학교교육은 교육내용을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건전한 관광의 방향과 그 효과를 교육하고, 사회교육을 통해서는 전 도민의 觀光要員化를 위하여 관광의 본질과 그 이념 등을 제도하여 觀光意識을 개선한다.

## 2. 觀光產業과 第1次產業과의 連繫性 強化 方案

觀光產業이 濟州道內 第1次產業과의 連繫性을 강화하는 것은 既存產業인 農業, 畜產業, 林業, 漁業 등에 觀光特性的 서어비스產業의 性格을 加味하는 것으로서 觀光地의 變化와 多樣性을 가져다주고 地域의 經濟基盤을 강화하게 되며, 內發的 開發方法을 가능케 함으로써 道民所得增大 效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1) 觀光產業과 農業과의 連繫性 強化 方案

#### ① 觀光農園의 開發·育成

觀光農業은 農業의 一過程 또는 全部를 Recreation 利用에 開發을 加해 이를 觀光客에게 Recreation 을 제공하던가 또는 農場을 대여하거나 農業 및 其他 特産物을 直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產業이다.<sup>27)</sup> 觀光農業은 近年에 產業觀光의 일종으로 등장했으며 人間이 自然에 대한 욕구가 커짐에 따라 레크리에이션을 즐기기 위해 農場을 찾는 경향이 현저해졌다.

觀光農園은 그 첫째 要件이 地域的인 特産物, 傳統의 으로 재배되는 農産物, 土着農産物 등이 재배되고 있어야 하고, 둘째 自然的 條件으로 冬季의 溫和, 夏季의 서늘한 氣候的 條件과 매력적인 景觀的 要素가 있을 때 最適地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데<sup>28)</sup> 本道에는 감귤, 파인애플, 바나나, 키위 등의 亞熱帶性 果實이 풍부하고, 바람이 많은 편이나 우리나라 最南端에 위치하여 海洋性 氣候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漢拏山을 중심으로 周邊景觀이 비교적 수려하여 觀光農園을 조성하는데 餘他市道보다 우수한 條件을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既存 觀光農園의 實態를 보면 果實, 벌꿀販賣 위주의 斷片的인 상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觀光農園으로서의 觀光慰樂 서비스供給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施設規模도 조잡하고 영세한 편이다. 그리고 觀光農園間의 競爭이 심하며 觀光農園에서 판매하는 製品의 價格體系가 不安定하고 비싼 편이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日本의 開發事例에서 보면 日本 茨城縣 久慈郡 所在에 있는 袋田 park의 경우 面積 22 ha에 사과, 배, 오얏, 버찌, 포도 등을 재배하면서 附帶施設로서 휴게소 220 m<sup>2</sup>, 매립 84m<sup>2</sup>, 창고 84 m<sup>2</sup>, 사무소 30 m<sup>2</sup>, 야외바베큐場 15 個所, 民泊 2棟, 旅館 7室, 캠프場 1 ha, 낚시터 0.5 ha 등을 개발하여 直營하고 있는데 利用客의 滯留時間은 平均 2~3時間인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滯留型 宿泊者도 있어 觀光農園의 經營收支를 밝게 하고 있다.<sup>29)</sup>

따라서 本道에서의 觀光農園의 開發과 育成은 果實이나 벌꿀 등의 農産物販賣 이외의 果實採取나 勞作活動과 野外慰樂 및 휴식서비스 활동을 공급할 수 있도록 大規模園地(예 長期

27) 國際觀光公社, 「國民觀光開發理論 및 外國의 사례」, 1978, p.209.

28) 上揭書, p.210.

29) 上揭書, pp.211~2.

滯留客을 위한 宿泊서비스 기능도 포함)로 개발해 나가도록 한다. 附帶施設로는 最少基本施設로서 停車場, 便所, 手洗場, 과일 및 農産物直賣店 外에 휴게소, 食堂, 管理事務所, 球技場과 풀장, 宿泊施設 등이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宿泊施設의 경우는 農村田園型的 民泊을 導入하는 것이 좋다. 大規模로 개발하는 경우 日本의 예에서 보면 地方自治團體, 農協과 民間 등의 共同經營의 형태로 개발하고 있는데, 濟州道の 경우에 있어서도 地自制 實施와 더불어 邑·面의 地方自治團體와 單位農協 및 柑協 그리고 民間이 참여하는 共同參與 開發方式을 도입하는 경우 民間部門의 자본영세성과 事業經營上의 risk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觀光農園의 經營收支上 赤字要因을 줄이기 위하여 開園期間 연장을 위해 봄·여름의 栽培種目을 다양화하여 확대시키고, 單一品種이라 하더라도 早生種, 中生種, 晩生種으로 結實期를 조정하며, 出荷調整을 위해 비닐하우스栽培 등의 經營技術上 努力이 필요하다.

## ② 유채꽃의 觀光資源化 方案

유채꽃은 十字花科에 속하는 草本生物이다. 한 포기에서 가지가 뻗은 수는 40~60 본 가량이고 꽃은 화경을 가진 完全花이며 황색의 總狀花度로 3~5월에 꽃이 핀다. 꽃은 오전 9시경에 거의 90%가 개화되고 한송이가 피어 있는 기간은 3일 정도이며, 한 포기의 개화기간은 약 30일로서 다른 花草나 作物에 비해 비교적 開花期間이 긴 것이 특징인데 유채는 비교적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곳이 제주도와 전라남도이다.

유채꽃은 이른 봄철 濟州道の 산과 바다와 어우러져 독특한 景觀을 창출함으로써 봄철 觀光의 특징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봉에 있어서 대표적인 人工栽培蜜園으로서 花蜜量이 풍부하다.

1960년대에 들어와 油菜栽培는 食用油의 國內需要의 증가에 따라 換金作物로서 급속히 伸張되었는데 1970년대 中半 이후 動植物性 기름의 輸入自由化 조치에 따라 油菜油販路에 어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油菜의 收益性이 麥酒麥보다 크게 下落하여 유채 栽培가 축소되어 왔다.

그러나 제주도 봄철관광에 있어서 유채꽃에 대한 觀光客의 選好度는 무척 높는데, 유채꽃을 봄철 觀光資源化하는데 있어서 開花期가 짧다는 점, 耕作面積이 작고 지정사진 촬영장소가 부족하다는 점, 지역주민소득 파급효과가 낮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油菜의 栽培擴大는 4월초부터 제주도 사방에 노란 유채꽃 바다를 전개하여 제주도의 검은 회색빛 自然景觀과 좋은 대조를 이루어 봄철 濟州道の 독특한 景觀을 창출하고, 또한 養

蜂의 주요 밀원으로서 觀光產業과 養蜂業에 外部經濟效果가 높다. 그러나 유채꽃을 觀光資源화하기 위한 方案의 하나로써 油菜油를 觀光商品화하는 데는 觀光상품으로서 매력성이 낮아 그 展望이 밝지 않다. 따라서 유채꽃을 觀光資源화하기 위해서는 비교우위에 있는 麥酒麥보다 價格收支面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農산물 수입개방정책을 부분 조정하여 대부분 輸入原料에 의존하고 있는 食用油 生産業體의 原料利用 比率을 전환하여 國內產 油菜油和 輸入原料와의 利用比率을 일정하게 유지케 함으로써 유채재배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한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金融 혹은 財政支援에 의해 보전토록 한다. 또한 觀光지 주변에 있는 유채밭에서 사진촬영, 유채꽃 감상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어 유채재배에 적지않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入場料를 有料化하고 가벼운 위락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유채밭의 公園化를 유도토록 하기 위해 濟州道가 全部 收買할 것을 전제로 契約栽培토록 한다. 이때 收買費用分擔은 觀光產業體나 養蜂產物의 販賣收益의 一部로서 보전토록 한다.

### ③ 觀光牧場의 開發 育成

觀光牧場은 牧場의 一部 또는 全部를 개방하여 觀光客을 유치하여 畜產物의 生産管理過程을 견학하고 直賣場에서 生產品의 直接試飲, 生產品을 購買 歸家케 하는 것 외에 其他 野外用 스포츠 및 위락활동을 제공함으로써 既存 畜產業에 觀光特性의 서비스 產業的 特性을 加味한 것을 의미한다.<sup>30)</sup>

濟州道の 경우 漢拏山의 기슭에 광활한 목초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기후가 온난하고 강우량이 풍부하여 목축의 발달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1986년말 현재 企業牧場 43개소, 官營牧場 4개소, 부락 공동목장 85개소가 韓牛, 젓소, 濟州馬 등을 사육하고 있다. 특히 次產業 가운데 읍선투어 商品으로서 觀光客이 선호하는 商品은 승마(응답자의 16.5%), 펴 등 수렵(12.3%), 牧場施設 視察(12.3%) 등인 것과 같이 현재 130여 個所에 달하는 濟州道の 牧場은 中山間地帶 草原에 放牧하는 광경과 사육사의 作業過程 등, 牧場의 經驗이 적은 內陸人觀光客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觀光客 誘致를 위한 적극적인 開發이 미흡하여 觀光資源으로서 큰 效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85개의 부락 공동목장이 있으나 이용이 방치되거나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을 공동의 觀光牧場으로 개발하는 경우 도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日本의 開發事例에서 보면 日本 群馬縣 北群馬郡 所在의 省耕牧場의 경우 해발 500 m에 總面積 45 ha, 施設面積 9 ha에 附帶施設로는 木造休憩所 1棟, 野外바베큐場 330㎡, 가든 레스토랑 165㎡, 어린이 牧場 2,640㎡(토끼, 오리, 염소, 양 등 飼育), 푸른廣場, 放牧

30) 上掲書 p. 212.

場, 牛舍, 은실, 酪農場 등의 施設을 갖추어 觀光目的에 이용, 牛乳處理施設을 갖추고 신선한 우유를 觀光客에게 직접 판매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觀光牧場의 開發 育成은 첫째 經由型 觀光客을 위한 觀光牧場은 幹線道路邊에 위치하고 있는 中小規模의 목장을 중심으로 牛乳處理施設을 갖추고 牛乳採集 및 處理加工過程을 보여주며 신선한 牛乳를 觀光客들에게 直接 販賣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한다.

둘째 休養을 目的으로 한 滯留型 觀光客들을 위한 觀光牧場은 大規模 또는 中規模의 牧場을 중심으로 관광객들의 장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간단한 慰樂 및 스포츠施設과 食堂, 散策路 등의 施設, 小規模 別莊形態의 宿泊施設을 具備토록 한다. 특히 제주도의 독특한 景觀의 하나인 草原을 이용, 乘馬路를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乘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조랑말을 이용한 乘馬場을 결하여 開發함으로써 조랑말을 觀光資源으로 활용토록 한다.

#### ④ 수렵관광의 활성화 방안

濟州道內的 수렵관광은 濟州道の 東西로 구분되어 수렵이 가능토록 된 自然狩獵場과 人工수렵장으로 2,33 ㎢의 大侑狩獵場이 있는데 수렵이 점차 大衆化 추세를 나타내면서 그 利用 展望이 대단히 높다. 그러나 자연수렵장내에서 수렵가능한 주 狩獵대상은 꿩인데 그 수효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므로 자연수렵장의 경우는 수렵구역을 재조정하여 현재 東·西部로 구분된 것을 東·西·南·北部로 4區域으로 구분하여 隔年別로 東西部, 南北部로 구분하여 수렵 활동을 제한한다.

그리고 현재 人工수렵장으로서 대유수렵장 이외에 人工狩獵場을 개발하고, 이에 결하여 射擊場을 개발하여 一般觀光客이 사격연습을 할 수 있도록하고 傭사들이 포획한 것을 즉석에서 요리할 수 있도록 바베큐場을 개설토록 한다.

#### ⑤ 養蜂産物の 觀光土産品化 方案

濟州道內에서 생산되는 第1次産業인 農林水産物 中에서 觀光客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 가운데 하나가 꿀, 로얄제리 등이 養蜂産物이다. 養蜂産物은 영양가 높은 自然食品이기 때문에 健康食品으로서 알려져 있어 觀光土産品 가운데 가장 매력이 높은 제품이 되고 있다.

濟州道內에서 생산되는 養蜂産物이 觀光土産品으로 판매되는 경우에 있어서 不良品 등 低質의 品質水準, 價格體系가 비싸고 一定치 않아 不安定하다는 점, 強賣行爲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濟州道內에서 생산되는 養蜂産物을 觀光土産品화하는 데 있어서의 改善方案은 첫째 品質水準을 強化토록 한다. 道內 養蜂家를 대상으로 養蜂組合과 養蜂協會로 兩分化되어 있는 團體를 統合하여 品質檢査를 강화하여 品質水準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둘째, 觀光土產品으로서 養蜂產物이 價格이 비싸고 價格體系가 一定치 않은 것은 養蜂產物의 生産原價와 販賣價와의 差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流通過程에 있어서 不合理性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統合된 養蜂團體에 의한 收買를 통해 製品原價를 一定水準으로 유지토록 하여 觀光土產品으로서 價格水準을 저렴화시킨다.

세째, 觀光土產品으로서 養蜂產物을 效率的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영세한 養蜂飼養農家에 대해 金融支援을 강화토록 한다. 양봉경영에 있어서의 기본요소는 풍부한 밀원, 우수한 種蜂, 양봉가의 技術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세한 養蜂農家를 보호하기 위한 中·長期의 養蜂飼養資金支援을 강화토록 한다.

## 2) 觀光產業의 林業과의 連繫性 強化

### ① 觀光林業의 開發 育成

觀光林業은 人工的으로 재배한 林產物 및 自然的으로 성장한 林產物을 觀光客들이 채취하거나 觀察하도록 林野를 개방하는 것으로 既存 林業에 觀光特性的의 서비스의 性格이 加味된 産業觀光의 한 形態이다. 다만 林產物 採取型으로서 觀光林業이 觀光農園과 다른 점은 後者は 段耕地에서 生産, 採取하도록 함으로써 人工的으로 재배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反面, 前者는 自然的으로 成長된 것이 강조되고 있다.<sup>31)</sup>

濟州道の 林野面積은 總面積의 59%인 102,101 ha에 漢拏山을 중심으로 하여 低地帶의 暖帶植物로부터 溫帶, 寒帶植物 등 1,800余種이 分布되어 있고 버섯, 野生種實, 고사리 등 林產物도 풍부하여 觀光林業의 適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觀光林業의 開發은 漢拏山에 分布되어 있는 標高栽培場을 중심으로 표고재배과정을 見學할 수 있도록 觀光林業化 한다. 이때 季節別에 따라 野生種實을 채취하거나 고사리꺾기 등의 林產物 採取型的의 觀光林業活動을 가미하면 多樣化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長期滯留型 觀光客을 위해서는 自然樹林 속에서 自然을 감상하면서 휴식할 수 있도록 散策활동, 各種의 便宜施設과 鄉土的인 別莊 등의 宿泊施設을 설치토록 한다.

### ③ 自然植物學習園의 造成

植物資源이 풍부하고 景觀이 아름다운 林野를 오솔길, 캠프場을 개발하여 Recreation의 場所로서 관리·제공함으로써 觀光客들이 鑑賞, 見學하고 즐길 수 있게 하는 형태가 自然植物園이다. 林產物 採取型은 관광객이 林產物을 채집하도록 그것들을 人工的으로 생산하거나 자

31) 李璣鉉, 「觀光農業開發論」, 亞細亞出版社, 1986, p.116.

연적으로 成長한 임산물을 관리하는 측면이 강조되지만, 이 경우 임산물을 생산·관리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들을 관광객이 채집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즐기고 배우게 하는 측면이 강하다.

가장 대표적인 自然植物園의 例로는 漢拏山國立公園의 實物相이라 할 수 있는데 海岸에서 頂上까지 暖帶植物로부터 溫帶, 寒帶植物이 1,800余種이나 다양하게 分布되어 있어 自然植物園으로서 우리나라의 植物相을 대표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漢拏山 國立公園외에도 榧子林, 納邑錦山公園, 동백동산 등이 自然植物園으로 개발할 수 있는 最適地이다. 이들 自然植物園이 基本施設로서 停車場, 휴게소, 賣店, 食堂, 化粧室 등 이외에도 野生鳥類園, 野生動物園 등과 滯留型 觀光客을 위한 散策路 및 캠프場을 설치토록 한다. 다만 冬栢나무, 榧子나무 郡落地라는 점을 감안하여 生態系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納邑公園은 蓮花池, 納邑里의 古村落, 下加里의 古木群 등과 연결하여 觀光코스화하며 濟州景觀을 保存토록 한다.

### 3) 觀光產業과 水產業과의 連繫性 強化

#### ① 觀光漁場의 開發 育成

觀光漁業은 臨海漁場에서 漁民들이 사양하는 魚貝類를 觀光客들로 하여금 직접 채집하게 하거나, 採取하는 것을 見學 또는 觀察하게 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產業觀光의 한 形態이다.<sup>32)</sup>

濟州道는 海岸線의 길이가 253 km에 달하며 水深 100 m 내외의 대륙붕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고, 대만난류, 沿岸水 등의 영향과 온대성기후의 환경요소에 의해 水産資源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觀光漁場의 最適地가 비교적 많다.

따라서 觀光漁場의 開發은 漁村部落이 소유하고 있는 비교적 景觀이 좋은 臨海漁場으로 개발하여 소라, 조개, 성게잡이, 굴따기, 海草따기 등의 作業과 제주도의 傳統的인 고기잡이 道具인 “태우”와 그물, 낚시대 등을 빌려 주어 고기잡이 作業을 관광객들의 직접 경험하게 하며, 海邊에는 衛生施設이 완비되고 展望이 좋은 휴게소를 설치하여 海女の 作業光景을 觀察하고 海産物을 試食케 한다. 長期滯留를 유도할 수 있도록 낚시, 보트타기 및 其他 海上레저 시설 및 漁村의 民泊村을 개발하여 海洋動的 Recreation을 만끽토록 개발한다. 이와 더불어 海底에 分布되어 있는 다양한 海底 動植物이 있고, 海底景觀이 뛰어난 지역을 海底公園으로 개발하여 觀光資源화 함으로써 國內外 觀光客을 유치토록 한다.

32) 上揭書, p.127.

② 관광낚시터의 개발

濟州道는 연안이 다양하고 풍부한 魚族 등 낚시에 알맞은 條件을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觀光낚시터 개발의 最適地이다. 그리하여 낚시를 목적으로 하는 觀光客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濟州道 觀光낚시의 경우 낚시 전용시설의 부족, 낚시터 安全 및 便宜施設의 부족, 專門案内員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觀光낚시터의 開發은 첫째 차귀도, 설섬, 문섬, 형제도, 半島, 가파도, 추자도, 비양도 등의 섬과 江汀海岸, 松岳海岸, 南原海岸, 道頭海岸, 달여도海岸 등에 主要 낚시터 船着場을 설치하도록 한다.

둘째, 쾌적하고 多樣한 낚시觀光이 가능토록 安全施設과 給水施設, 便宜施設 및 管理舍와 管理船을 운용한다.

셋째, 海岸 및 魚族의 保全을 도모하기 위하여 漁獲, 採取區域·期間의 설정, 漁獲對象의 제한, 낚시申告制의 導入과 專門案内員을 배치하도록 한다.

③ 漁民에 의한 海產物 直接販賣의 개선방안

現在 日出峰, 正房瀑布, 龍頭岩 등 有名觀光地 주변에서 海女作業 光경을 구경하며 漁民들이 채취한 海產物을 試食케 하는 海產物 販賣가 이루어지고 있어 道民所得增大에 직접 기여하고 있으나, 漁民이 채취한 海產物을 觀光客에게 직접 판매할 때 불결한 위생, 不安定한 價格體系, 販賣展示施設의 부족, 觀光地의 環境저해 및 強賣·呼客行爲 등이 문제점이다.

따라서 漁民이 채취한 海產物을 직접 販賣하는 데 있어서 改善方案은 漁村契의 직접관리 下에 둠으로써 일정한 판매장소를 설치하여 철저한 위생관리를 期하고 신뢰할 수 있는 價格體系를 유지하게 한다.

## VI. 結

本 研究는 濟州道 觀光開發이 地域開發次元에서 道民所得을 증대시킬 수 있는 方向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前提에서 濟州道 第1次 産業과 觀光産業과의 連繫下에 地緣産業으로 육성함으로써 觀光의 측면에서는 그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觀光對象이 되므로 觀光環境의 多樣化를 기할 수 있으며, 産業的 측면에서는 供給의 地域性, 市場需要의 脫地域性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第1次産業과 觀光産業과의 連繫下에서의 地緣産業의 育成은 當該



地域의 經濟基盤을 강화시키고, 內發的 觀光開發方法의 도입을 가능케 함으로써 道民所得創出效果를 提高시킬 수 있다.

濟州道 觀光産業과 第1次産業과의 連繫關係에 대한 實證分析을 통해서 보면 濟州觀光의 季節的 特性은 봄철觀光的 경우 유채꽃, 철쭉 등이고, 여름觀光은 주로 海岸景觀의 감상과 海邊·海洋慰樂活動, 가을觀光은 橘林秋色으로 성격지워진 주렁주렁 매달린 곶밭에 의해 황금빛 세계를 이룬 景觀과 한라산 樹林地帶의 단풍이다. 겨울觀光은 鹿潭晚雪로 지적되는 한라산 雪景과 수렵·등반 등 冬季慰樂活動이라 할 수 있다.

유선투어商品으로 가능성이 높은 것은 낚시관광, 승마, 목장시설, 관광농원의 順이고, 관광객이 선호하는 농수산물은 봉산물, 파인애플, 감귤, 바나나, 옥돔, 표고 등이다.

관광객이 관광농원 利用上의 문제점은 단순한 상품종류, 작고 조잡한 시설규모 농원간의 過當競爭, 不安定한 價格體系 등인데 관광농원의 개발육성 방안은 觀光商品의 다양화와 鄉土的인 商品開發, 품질의 高級化, 유통체계의 合理化 등으로 분석되었다. 유채꽃의 관광선호도는 매우 높는데 觀光資源化하는 데 있어 開花期가 짧고, 경지면적이 적으며 사진촬영 지정장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觀光牧場 開發을 위한 필요시설은 숙박, 각종 오락시설, 도로 등 기반시설이고 그 수요전망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觀光商品化가 가능한 林業分野의 종류는 표고재배장, 고사리 채취, 야생열매 채취, 자연식물원 감상 등이다.

漁民의 海産物 直接販賣時의 문제점은 불결한 위생과 불안정한 가격체계, 판매전시시설의 부족, 관광지의 환경저해 등인데, 그 개선방안은 철저한 위생관리, 신뢰할 수 있는 가격체계의 확립, 일정판매장소의 지정 등이다. 제주도 낚시觀光의 문제점은 낚시전용선의 부족, 안전편의시설의 부족, 전문안내원 부족 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濟州道 來道 觀光客의 觀光動向 및 費用分析을 통해서 보면 숙박시설에 대한 이용현황은 內國人 觀光客의 경우 일반호텔, 관광호텔, 여관 등인데, 外國人의 경우는 관광호텔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식사장소는 內外國人 觀光客 모두 호텔식당과 일반음식점이 대부분이며, 道內交通手段 이용의 경우도 內外國人 觀光客 모두 택시, 관광전세버스의 순으로 나타났다.

觀光客이 1次産業 가운데 원하는 利用施設은 內國人의 경우 관광목장, 낚시, 어패류채취, 식물원학습, 수렵의 순이고, 外國人의 경우는 낚시, 관광목장, 수렵, 식물원학습의 순이다. 구입한 농수산물은 內國人 觀光客의 경우 파인애플, 꿀, 감귤, 옥돔 등 해산물, 표고의 순이고, 外國人 觀光客의 경우 옥돔 등 해산물, 파인애플, 꿀, 감귤, 표고의 순이며, 구입장소는 內外國人 觀光客 모두 전문 판매점, 관광농원, 상설시장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既存 觀光코스 가운데 관광객이 주로 이용한 관광지는 천지연, 성산일출봉, 중문 천제연, 만장굴, 용두암, 산방굴사, 산굼부리, 정방폭포, 제주민속촌, 목석원, 제주 민속자연사 박물관, 한림공원, 삼성혈 등의 順이고, 기존 관광코스外에 추가로 여행하고 싶은 관광지는 內外國人 공히 한라산, 유무인도, 목장지대, 서귀포해안 등의 順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國際觀光 部門의 진흥을 위한 濟州道 주변 해외시장의 관광동향 분석결과를 살펴 보면 日本은 韓國을 방문하는 觀光客이 급증하는 것을 반영하여 대규모 旅行社들이 한국백 키지 상품을 기획·판매하는 등 한국여행 붐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부응하여 급증하는 고객층은 여성, 청소년 및 가족여행자 등인데, 그 중 청소년에 대해서는 수학여행, 제주도에 서의 골프, 스쿠버다이빙 등의 慰樂觀光이 주목되고 있다. 臺灣인 경우는 訪韓客中 長期旅行者일수록 방문하는 관광지가 서울 중심에서 점차 경주, 부산, 제주 등 지방 유명관광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대만인 관광객이 韓國의 관광매력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민속·문화관광, 야간유희, 설경 등의 순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東亞諸國에서 판매되고 있는 韓國觀光商品은 주로 일본, 대만, 홍콩 등 동북아시아 지역 관광상품과 연계되어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濟州地域 觀光所得 殘留效果를 提高시키기 위해서는 觀光商品 供給의 多樣化를 期하고 觀光受容態勢를 確立하여야 한다. 지금 현재 판매되는 定期觀光 코스는 濟州道の 季節別 觀光特性을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多樣한 階層의 觀光欲求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一般觀光客을 위한 定期觀光코스 外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季節別 特殊 觀光商品과 外國人, 新婚觀光客, 수학여행단 등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觀光商品을 개발하여 觀光商品 供給의 다양화를 기하도록 한다.

또한 觀光産業과 第1次産業과의 連繫性 強化를 통해 地域觀光所得 效果를 提高시키도록 한다. 관광농원·관광목장의 개발, 유채꽃의 관광자원화, 수렵관광, 양봉산물을 관광토산품화하여 觀光産業과 農業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관광임업의 개발, 자연식물원을 조성하여 林業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觀光漁業의 육성, 낚시터 개발, 漁民에 의한 海産物直販의 改善을 통해 漁業과의 連繫性을 강화시켜 나감으로써 觀光産業과 第1次産業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 參 考 文 獻

- 姜光夏·許香珍, “제주도 지역관광소득분석 연구”, 「사회발전연구」 제 3집, 제주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1987.
- 高南旭·金泰保, “제주도관광개발과 도민소득증대의 연계촉진 방안연구”, 「사회발전연구」 제 2집, 제주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1986.
- 交通部·韓國觀光公社, 「觀光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1986.
- 國土開發研究院, 「地域産業聯關表 作成報告」, 1983.
- 金恩憲, 「觀光經濟學」, 經營文化院, 1985.
- 金泰保, “地域經濟成長을 위한 觀光産業振興方案”, 「論文集」 제 12집, 濟州大學校, 1980.
- 안충영, “地方經濟의 問題點”, 「地方의 再發見」, 현대사회과학논총.
- 章文閣, 「經濟學大辭典」.
- 濟州道, 「特定地域 濟州道 綜合開發計劃 제 1권 — 觀光開發計劃」, 1985.
- 韓國觀光公社, 「東南亞觀光市場動向」, 1986.
- \_\_\_\_\_, 「日本觀光市場調査」, 1985.
- 韓國銀行, 「1980年 産業聯關表 作成報告」, 1982.
- 清成忠男, 「地域의 變革と 中小企業」, 東京, 日本經濟評論社, 1975.
- \_\_\_\_\_, “地場産業의 現代的 意義”, 「地域開發」, 1980年 7月號.
- 末武直義, 「觀光事業論」, 東京, 法律文化社, 1984.
- 山崎充, 「變わる 地場産業」,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1974.
- A.J.Burkart, S.Medlik, *Tourism: Past, Present and Future*, Second Edition, Heineman: London, 1981.
- Archer B.H. and Owen, Christine, “Towards a Tourist Regional Multiplier”, *Regional Studies* 5(4): 289~94, 1971.
- Bryden, John M., *Tourism and Development: A Case Study of the Common Wealth Caribbe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London, 1973.
- C.M.Tiebout, *The Community Economic Study*, New York, CED, 1962.
- Moheb Ghuli, *Tourism and Regional Growth, Inter-Continental Graphics*, Netherland, 1977.
- Peters, Michael, *International Tourism: The Economics and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Tourist Trade*, Hutchinson & Co., London, 1969.